정답 및 해설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100발100중

고등 기출 문제집

공통 국어 1

1학기·전과정

미래엔 신유식

1 문학의 향기

01 서정 갈래와의 만남_산수유나무의 농사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12~017쪽

01 ⑤	02 ②	03 ①	04 ②	05 ③	06 ①	07 ⑤	08 ④
09 ④	10 ②	11 ②	12 ②	13 ④	14 ③	15 ②	16 ②
17 ③	18 ④	19 ②	20 ⑤	21 ②	22 ④	23 ⑤	24 ⑤

01 이 글은 비유 등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서정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반어와 설의적 표현은 활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② '산수유나무', '그늘' 등 동일한 단어의 반복과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고 있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와 같이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노랗다', '노란 좁쌀' 등 노란색의 색채어를 통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서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④ 시적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산수유나무의 개화를 바라보는 이'를 시적 화자로 내세워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lus 〈참고〉 반어와 설의적 표현

반어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수사법으로, 문장 자체의 논리에는 이상이 없지만 본래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반대되는 의미의 말을 표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_김소월, 〈진달래꽃〉
설의적 표현
쉽게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다. 예 외로워라, 이 내 몸은 / 뉘와 함께 돌아갈꼬 _유리왕, 〈황조가〉

02 도치, 즉 정상적인 어순을 뒤바꾸어 의미를 부각하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그늘 농사를 짓는다고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산수유나무의 능동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산수유나무와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독자의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⑤ '노란(노랗다)'이라는 색채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03 2행은 '그늘'이라는 일상적 소재를, '어둡다'는 통념과 다르게 '노랗다'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마음의 그늘'은 산수유나무의 '그늘'과 대비되는 사람들 마음속의 '그늘'로,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내면화된 것이 아니다. ③ '그늘'을 '농사'에 비유하면서 수고로움과 정성을 환기하고 있다. ④ '그늘'이 '넓어진다'는 표현을 통해 그늘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⑤ '그늘'의 정도를 '다섯 되'와 같이 중량감을 활용하여 표현함으로써 그늘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04 화자는 그늘 농사를 짓는 '산수유나무'의 모습을 예찬하는 한편, 불평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산수유나무를 본받기를 바라고 있다.

오답 해설 ④ 화자가 산수유나무와 자신을 동일시한 것은 아니며, 사람들을 도외시(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함.)한 것도 아니다. ⑤ 화자는 산수유나무를 측은지심(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을 지닌 존재로 보고 있다. 화자가 산수유나무에 대해 측은지심을 지닌 것은 아니다. 또한 사람들에 대해 '사양지심(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닌 것도 아니다.

05 현재 진행 표현을 통해 행위의 능동성과 현장감을 부각하고 있다. 당위성(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할 성질)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산수유나무가 타인을 배려하여 정성과 노력으로 그늘을 만드는 것을, 농부가 정성과 노력으로 농사를 짓는 행위에 비유하고 있다. ④, ⑤ 산수유나무의 행위를 '그늘 농사'라고 표현한 것은 그 수고로움과 노력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는 그 행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06 ⓐ는 점차 말려들고 좁아져 인색해지는 인간의 마음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와 달리 나머지는 모두 산수유나무의 그늘로, 긍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Plus 〈참고〉 다의성(多義性)

개념	한 단어가 두 개 이상의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현상이나 특성
예	학교에 갔다. – 장소의 이동 여름이 갔다. – 시간 또는 시기의 바뀜. 맛이 갔다. – 상태의 변화

07 산수유나무는 꽃을 피우는 동시에 그늘을 만들어 배려를 실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사람에 적용하면 타인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고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배려하는 삶을 실천하는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④ 타인을 위한 배려가 드러나지 않는다.

08 [C]에서 '꽃'은 '하늘'과, '그늘'은 '땅'과 관련된다고 표현한 것은 낮은 곳, 인간적인 것을 지향하며 확장되는 '그늘'의 가치를 부각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땅'이 '그늘'의 본질적 한계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타인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며 예찬하고 있다. 따라서 그늘을 꽃과 같이 노랗다고 표현함으로써 그늘에 부여하는 가치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⑤ [A]에서는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노랗다고 하였고 [C]에서는 그늘을 드리우는 것을 농사에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산수유나무가 농사 지어 만든 노란 그늘은 노란 색깔을 지닌 농사의 결과물이라는 연상 작용에 의해 '노란 좁쌀'에 비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9 자연물인 산수유나무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인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어조의 전환, ② 수미상관의 방식, ③ 감탄사, ⑤ 공감각적 이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10 동일한 글자 수의 반복은 음수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글자 수가 일정하게 배열되는 시조 등에서 확인되는 운율이다. 이 글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산수유나무, 그늘, 농사, 짓고 있다, 노란(노랗다)' 등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 ③ '-다', '-고 있다'라는 종결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④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문장이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반복·변주되고 있다. 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Plus 〈참고〉

음수율(音數律)
시에서 음절의 수를 일정하게 나타내어 운율을 표현하는 것이다. 3·4조, 4·4조, 7·5조 등이 대표적이다. 예 그립다 / 말을 할까(7) / 하니 그리워(5) // 그냥 갈까 / 그래도(7) / 다시 더 한 번(5) _김소월, 〈가는 길〉 → 앞의 세 글자, 네 글자를 합하여 일곱 글자, 뒤의 다섯 글자로 7·5조의 음수율을 느낄 수 있다.

11 '옥말려들다'를 독창적인 어휘로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그늘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무채색의 어두운 이미지로 인식하기 마련인 그늘을 노란색이라는 색채 이미지로 표현하여 참신함을 주고 있다. ③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과 달리 꽃이 아닌 나무의 그늘에 주목하여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을 형상화하는 것에서 독특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자연물인 산수유나무가 드리우는 그늘을,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에 비유함으로써 나무를 능동성을 지닌 존재로 표현하여 새로움을 주고 있다. ⑤ 만질 수도 없고 무게도 없는 그늘을 '노란 좁쌀 다섯 되의 무게'와 같이 감각적·구체적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그늘에 부여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12 그늘을 통념과 다르게 인식하여 '노랗다'고 표현한 것일 뿐 반어적으로 표현(말하려는 내용을 강조하려고 실제와 반대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산수유나무의 개화를 '터트리고 있다'면서 동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③ 하늘로 꽃을 피우는 꽃과 땅으로 넓게 드리우는 그늘의 대비를 통해 그늘이 지닌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3 산수유나무는 화자가 긍정하는 배려의 가치를 보여 주는 대상이고, 화자는 이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불평하는 사람들'과 달리 배려의 마음을 지닌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② 화자와 비슷한 처지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으며, 연민을 불러일으키지도 않는다. ③, ⑤ 심미적 대상이나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대상으로 형상화되고 있지 않다.

14 화자는 ㉠이 그늘을 넓히는 산수유나무를 본받기를 바라고 있다. 즉 산수유나무가 만든 것과 같은 '그늘(배려하는 마음)'을 넓히라는 것이지 ㉠이 옥말려든다며 불평하는 '마음의 그늘'을 넓히라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타인을 위해 그늘을 만드는 나무의 모습에서 ⓐ, ⓑ, ⓓ, ⓔ와 같은 조언을 이끌어 낼 수 있다.

15 '한 해 농사'라는 표현은 ㉡이 지극한 정성과 부단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표현한 것으로, 오직 한 번만 허락되는 기회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6 '(산수유나무의) 그늘'은 주체의 수고롭고도 정성스러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배려를 의미한다.

17 '산수유나무, 그늘, 농사, 짓고 있다, 노란(노랗다)'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선경후정은 먼저 외부의 경치를 노래하고 후에 화자의 정서를 노래하는 시상 전개 방식인데, 이 글에서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노란'이라는 단일한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을 뿐, 다양한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시선의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Plus 〈참고〉 시상 전개 방식

선경후정(先景後情)
먼저 경치를 묘사(선경)하고 뒤에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후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한시(漢詩)의 전형적인 창작 기법이다. 예 보슬보슬 봄비는 못에 내리고 / 찬바람이 장막 속에 스며들 제(선경) / 뜬시름 못내 이겨 병풍 기대니(후정) / 송이송이 살구꽃 담 위에 지네. _허난설헌, 〈봄비〉
시선의 이동
화자의 눈길이 머무는 곳(대상)을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것으로, '머리→팔→다리', '먼 곳(원경)→가까운 곳(근경)' 등으로 나타난다. 예 머언 산 청운사 / 낡은 기와집 // 산은 자하산 / 봄눈 녹으면 // (중략) 청노루 / 맑은 눈에 // 도는 / 구름 _박목월, 〈청노루〉 →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의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 있다.

18 산수유나무를 통해 화자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인 배려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산수유나무가 화자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② 산수유나무를 의인화하고 있지만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지는 않다. ③ 예찬한 덕목이 '아름다움'인 것도, 자연 귀의(돌아가거나 돌아와 몸을 의지함.)의 태도를 드러낸 것도 아니다. ⑤ 대비한 속성이 영원성과 유한성인 것도, 인생무상의 정서를 드러낸 것도 아니다.

19 꽃에 대해 '터트리고 있다', 그늘에 대해 '짓고 있다'와 같이 현재 진행상으로 표현하여, 꽃을 피우고 그늘을 만드는 산수유나무의 움직임에 현장감과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③ 대상(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④ 화자의 의지가 아니라 대상(산수유나무)에 대한 인식을 부각한 것이다. ⑤ 현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담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0 ⓐ는 '땅에서 넓어'지며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지만, ⓑ는 '옥말려'드는 고통으로 사람들의 불평을 유발한다.

오답 해설 ① ⓐ는 산수유나무가 만드는 실제의 그늘이다. ② ⓐ는 긍정, ⓑ는 부정으로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다. ③ ⓐ만 통념에서 벗어난 색채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④ ⓑ는 부정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반성이나 성찰과는 거리가 있다.

21 [B]는 '그늘'의 가치를 모르는 존재이다. 따라서 '그늘'을 소망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④ [B]는 자기 '마음의 그늘'에만 관심을 갖는다. ⑤ 화자가 [B]에게 산수유나무를 '보아라'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22 하늘을 향해 피어나는 꽃과의 대조를 통해 '땅에서 넓어'지는, 즉 '낮은 곳, 인간적인 것'을 지향하는 '그늘'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명사구가 아니라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② '꽃'과 '그늘'을 의인화하고 있지 않으며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③ '꽃'의 가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늘'이 차별화되는 가치를 지녔음을 부각한 것이다. ⑤ 상승과 하강 이미지를 반복한 것도, '그늘'의 한계를 부각한 것도 아니다.

Plus 〈참고〉 상승과 하강 이미지

상승 이미지	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 예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같이_조지훈, 〈마음의 태양〉	상하의 방향과 관련된 어휘들에 의해 구현됨.
하강 이미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 예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_김수영, 〈폭포〉	

23 '벌써'는 그늘의 넓이나 무게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화자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24 이 글의 '그늘'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위안을 함축한다. 〈보기〉에서는 노승이 학생에게 베푼 '다사로운 손길'이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Plus 〈보기〉 설해목_법정

갈래	경수필
성격	교훈적, 사색적, 종교적
주제	부드러운 것의 강함
해제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부드러운 것과 강한 것의 대립 구도를 통해, 부드러운 것이 억센 것보다 강하다는 주제 의식을 전달함.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18~023쪽

01 ②	02 ②	03 ⑤	04 ④	05 ⑤	06 ③	07 ④	08 ②
09 ②	10 ⑤	11 ⑤	12 ④	13 ③	14 ④	15 ⑤	16 ⑤
17 ⑤	18 ⑤						

▸ (나)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_나희덕

핵심 정리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고백적, 성찰적
주제	대상에 대한 이해와 조화의 과정
해제	대상에 대한 선입견으로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화자가 대상을 진실하게 이해하고 공감해 가는 과정을 그림.

01 (가)는 노란색, (나)는 흰색과 분홍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 (나) 모두 역설적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③ (나)는 '-습니다'라는 경어체 표현을 통해 성찰적이고 고백적인 어조를 형성하고 있다. 웅장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④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은 (나)이다. '그 나무', '그 복숭아나무' 등에서 '그'라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특정한 대상에 주목하고 있음을 환기하고 있다. ⑤ (가)는 가정적 표현으로, (나)는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있지만 모두 소망의 간절함과는 거리가 있다.

02 (가)의 화자는 산수유나무의 모습을 그려 배려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그려 이해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화자가 산수유나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공감이 아닌 배려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나) 역시 화자가 자신을 복숭아나무와 대비하고 있지 않으며 관용이 아닌 이해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가)가 인내의 가치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나)는 화자의 시각 변화를 통해 성찰의 가치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가) 사랑의 가치나 (나) 신뢰의 가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 '꽃'과 '그늘'의 대비를 통해 '그늘'이 지닌 배려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을 뿐 평등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나) 역시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또 다른 수천의 빛깔이 있음을 말하려고 한 것일 뿐 이 둘의 관계를 통해 조화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그늘'을 넓어지고 무거워지는 것으로 표현하여 그늘이 지닌 배려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04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여러 겹의 마음'을 마침내 읽고 이해하게 되었으므로 [D]를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피우고 싶은 꽃빛'을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우고 싶은 꽃빛'은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복숭아나무의 숙명적 외로움의 이유이며, '여러 겹의 마음'과 관련 지어 볼 때 그 나무가 지닌 '다양한 바람'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에서 화자가 느끼는 거리감을 추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문맥으로 보아 그 복숭아나무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②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치고 있다. 대상에 대한 거리감이 피하는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③ 단순히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줄로만 알았던 '그 복숭아나무'가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한 순간을 '눈부셔 알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수천의 빛깔'을 발견한 것이 복숭아나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그 순간이 '눈부셔'라는 감각적 표현으로 부각되고 있다. ⑤ '흩어진 꽃잎들'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그 복숭아나무'의 꽃잎들은 이미 진 상태이다. 그래서 복숭아나무는 '수천의 빛깔'이 아닌 '조금은 심심한 얼굴'이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화자는 복숭아나무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수용하면서 그 '그늘'에 서서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05 ㉠은 다른 존재에게 휴식과 위안, 편안함을 제공하는 배려의 공간이고, ㉡은 화자가 대상인 복숭아나무를 이해하고 그와 교감하는 공간이다.

06 '노란 좁쌀 다섯 되'라는 구체적 수치로 중량감을 표현함으로써 그늘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보아라'와 같이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인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그늘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④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대상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고 있다. ⑤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성찰과 공감, 교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나) 따뜻한 얼음_박남준

핵심 정리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예찬적, 역설적
주제	자기희생적 사랑에 대한 예찬
해제	얼음의 속성과 모습을 통해 자기희생적 사랑의 숭고함과 가치를 노래함.

07 (가)는 노란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그늘을, (나)는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물고기('작고 여린 것')를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 (나) 모두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지만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② 영탄적 표현은 (나)의 '아 몸을 다 바쳐서~그 빛나는 것이라니'에서만 확인된다. ③ 명령형 어미는 (가)의 '보아라'에서만 확인된다. ⑤ (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은 확인되지 않는다.

Plus 〈참고〉

감정 이입(感情移入)

객관적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옮겨 넣어 그 대상이 화자와 동일한 정서를 느끼는 것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예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_김소월, 〈초혼〉

08 (가)의 '그늘'과 (나)의 '얼음'은 모두 다른 존재를 위한 배려를 표상한다.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인 측은지심과 연결된다.

09 (가)의 제목에서 '산수유나무'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④ '따뜻한 얼음'이라는 역설적 표현으로 얼음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⑤ '따뜻한'이라는 단어를 통해 화자가 얼음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lus 〈참고〉

역설(逆說)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을 통해 그 속에 숨은 진실을 드러내는 기법이다.
예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_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10 ㉠은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늘로, 심리적·개인적 고통을 함축하고, ㉡은 이타적으로 확장되는 그늘로, 타인을 위한 배려를 함축한다.

오답 해설 ①, ② ㉡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③ ㉡만이 외부로 확대되고 심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은 '사람들'의 내부에서 심화된다. ④ 예찬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다. 한편 ㉡이 화자에게 연민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11 '껴안고 눈물지어 본 이들'은 '쫓기고 내몰린 것들'을 포용하는 존재로, '그늘 농사'의 대상이 아니라 '그늘 농사'의 주체인 산수유나무에 대응한다.

오답 해설 ①~④ 모두 '얼음'이 보호하고 포용하는 대상이므로, 배려를 함축하는 '그늘 농사'의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 ⓐ는 고통에 처한 이들을 위한 얼음의 희생을 녹아내린 얼음, 곧 눈물로 표현하고 있다. '상황에 따른 변신'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옷을 껴입듯'이라는 인간의 행위에 빗대어 '추위가 더할수록' '두께가 깊어지는'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② '철모르는 돌팔매로부터 겁 많은 물고기들'을 '놀라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대상을 보호하려는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제 몸의 온기란 온기'를 '세상에 다 전하고' '스스로 차디찬 알몸'이 되었다는 것에서 자기희생적인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몸을 다 바쳐서 피워내는 사랑이라니'와 '그 빛나는 것이라니'에서 화자가 예찬하는 가치인 '자기희생적 사랑'을 지닌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나) 감나무_함민복

핵심 정리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성찰적, 묘사적, 감각적
주제	이상을 추구하며 자신을 다스리는 삶의 태도
해제	감나무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며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삶의 자세를 표현함.

13 (가)와 (나) 모두 '-다'라는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② (가)는 '보아라'에서 명령형 어조로 비판의 태도를, (나)는 '보라'에서 명령형 어조로 감탄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가)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사람들'로, 의인화된 대상이 아니다. ⑤ (나)에서 감탄사를 활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14 3행에서 '보아라'라는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산수유나무를 보라고(본받으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② 4행에서 '아니다'라는 부정 표현을 사용하여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의 행위에 의미가 담겨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거부감과는 관련이 없다. ③ '-다'라는 현재 시제의 어미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⑤ '보아라'를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청자에 대한 친밀감과는 거리가 멀다.

15 ⓔ는 감나무가 단호하게 가지를 다스린 결과이다. 즉 '단호한 결단으로 가지를 다스'린 결과 '새들'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을 내어 주는 속성이 아니라 단호한 속성과 연결된다.

오답 해설 ③ '함부로 곧게 뻗어 올린 가지 하나 없'는 감나무 가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부각하고 있다. ④ '온몸이 부르터' '늙수그레'한 겉모습과 달리 '열매'는 처음부터 '단단하다'는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16 '그늘을 부끄러워하는 현실'이나 그에 대한 안타까움은 (가)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17 빈번한 쉼표의 사용으로 호흡을 조절하여 시상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독자로 하여금 시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주목하게 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상의 단호하고 치열한 속성을 부각할 뿐 여운을 조성한다거나 독자의 성찰을 유도한다고는 볼 수 없다.

18 (나)에서 '땡감을, 떨구'는 것과 '아니다 싶은 가지'를 '분질러 버리'는 것은 모두 자신을 다스리는 감나무의 단호하고 엄격한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땡감을, 떨구"게 하는 시련을 겪지 않기 위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가을'에 '열매를 매'단 후 '눈바람 치면 다시 알몸으로' '동안거에' 든다는 것에서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순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③ '하늘 길을 가면서' '태양에 대한 치열한 사유에 온몸이 부르'텄다는 것에서 이상에 도달하려는 치열한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④ (가)의 화자는 그늘을 짓는 것을 농사에 빗대면서 그늘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무슨 생각'이 '많았던지' '참 늙어 보인다'면서 감나무를 통해 인간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24~025쪽

01 ⓐ: 농부, ⓑ: 농사 **02** 그늘 **03** '-다'와 '-고 있다'라는 종결 표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4** (1)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2)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3)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05** 그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산수유나무가 보여 주는 배려를 본받기를 바라고 있다. **06** ⓛ으로 보아 주체의 노력이 작용하고, ⓒ으로 보아 낮은 곳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그늘은 어려운 이들에 대한 배려라는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02 〈보기〉의 '내줄 곳', '내준 무릎'은 모두 다른 대상의 휴식과 안식을 위해 내어 주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배려의 의미를 함축하는 이 글의 '그늘'과 통한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26~02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05 시적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직접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8 공감각적 이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11 현실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대상의 행위에 담긴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18 '꽃'과 '그늘'은 모두 산수유나무가 만들어 낸 결실이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와는 관련이 없다.

22 산수유나무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는 거리가 멀다.

02 서사 갈래와의 만남_카메라와 워커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30~037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④	05 ③	06 ④	07 ④	08 ④
09 ①	10 ②	11 ②	12 ③	13 ③	14 ⑤	15 ②	16 ⑤
17 ③	18 ③	19 ①	20 ④	21 ②	22 ③	23 ④	24 ⑤
25 ④							

01 주인공인 '나'가 자신이 경험한 일과 그에 대한 인식, 내면 심리 등을 서술하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작품이다.

오답 해설 ①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3인칭 관찰자 시점과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뉜다. ② 서술자는 일관되게 '나'이며 교체되고 있지 않다. ④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으며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Plus 〈참고〉 서술자와 시점

서술자 위치	작품 속		작품 밖	
특징	서술자가 작품 속에 '나'로 등장함.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작품 속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함.	
시점	1인칭		3인칭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작품 속의 '나'=서술자 =주인공	작품 속의 '나'=서술자 ≠주인공	작가 관찰자 시점, 제한적 시점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 사건의 전모를 모두 알고 있음.

02 문과 이과 선택 문제를 놓고 '나'와 훈이가 갈등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 문제를 둘러싼 개인과 개인의 갈등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아니라 두 명의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③ 훈이의 아버지와 관련된 내용이 대화에 등장하지만 갈등의 쟁점은 아니다. ④ 이과를 선호하는 사회 풍토가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나 '나'는 이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뿐 이와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내 말에 감동했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훈이는 내가 옮겨 준 대로 이과에 잘 다녔다.'로 보아 훈이가 특별히 반항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는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해서~반드시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②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론 어머니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으므로'에서 알 수 있다.

04 '나'는 훈이의 동의 없이 그의 진로를 변경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훈이의 반응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고, 자신의 말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게 된 것이다. 훈이가 '나'의 무관심을 책망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관심(간섭)을 책망할 만한 상황이다.

05 '사람은 왜 사나', '돈은 왜 버나' 고민하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회의하는 것은 삶의 이유나 본질에 대해 성찰하는 자세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자세에 대해 '바보짓', '생각이 빗나'간 것, '영 사람 버리고 마는'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삶의 이유나 본질에 대한 성찰적 자세는 '나'의 인생관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넌 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 재산도 늘리고'에서 알 수 있다. ② '너는 이 사회에 순응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돼야지'에서 알 수 있다. ④ '오늘 고깃국을 먹었으면 ~ 내 이웃은 우거짓국도 못 먹었는데 ~ 바보짓 말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⑤ '이렇게 자꾸 빗나가기 시작하면 영 사람 버리고 마는 거야.'에서 알 수 있다.

06 ㉢에서 '그런 사람'은 바로 앞의 대화에서 '나'가 언급한 '사회의 병폐란 병폐는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나'는 훈이를 설득하면서 '내가 오빠에 대해 오랫동안 몰래 추측하고 있던' 것을 언급한 것인데, 훈이가 이를 간파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07 '나'는 '문학이나 철학'을 하면 '영 사람 버리고' 말므로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떡하든 '이 사회에 순응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문학이나 철학'을 하면 '이 사회에 순응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글에 담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전쟁에서 오빠가 죽은 것이 문과 출신이라는 것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이 훈이가 문과에 가는 것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전쟁의 상흔이 진로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깊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08 '나'와 훈이의 대화를 통해 해외 취업에 대한 두 인물의 시각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역순행적'이 아니라 '순행적'이다. ② '나'의 시각에서 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③ '나'의 내면이 드러나고 있지만 의식의 흐름 기법과는 거리가 멀다. ⑤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교차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Plus 〈참고〉 의식의 흐름 기법

개념	인간의 정신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이어지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각을 그대로 설명해 나가는 방법
특징	작중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 기억, 비논리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연상 등이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뒤섞여 흐르는 것을 그대로 보여 준다.

09 이 글은 서술자가 작품 속 주인공의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작품으로, 주인공의 내면적 갈등이나 감정 등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다.

오답 해설 ② '작품 밖 전지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며, '인물의 심리나 동기, 사건의 전모 등에 대해 독자 스스로 해석하게 하는' 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③ 서술자의 위치, 문학적 효과 모두 3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④ '작품 속 부차적 인물'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며,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⑤ 서술자의 위치, 문학적 효과 모두 서술자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10 '그럭저럭 무사히 졸업하고 입대했지만 곧 의가사 제대를 할 수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사회 문제에 끼어들지 않았고, 대학 졸업 후 입대하여 제대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훈이가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내내 대학가는 어수선해서 데모, 휴교, 조기 방학의 악순환의 연속이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대기업은커녕 착실한 중소기업의 문턱도 낮지는 않았다.', '말없이 고분고분 취직 시험을 수없이 보고, 보는 족족 떨어졌다.' 등에서 알 수 있다.

11 '거칠고 대담한, 그리고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봤다.', '녀석이 나를 노골적으로 미워하며 대들었다.' 등에서 '나'에 대한 훈이의 냉소적(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어 비웃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④ 맹목적: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하거나 생각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⑤ 위선적: 겉으로만 착한 체하는.

12 '제가 잘되고 잘사는 것으로, 다만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겪은 ~ 깊숙한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에서 '나'는 훈이의 성공이 전쟁으로 인한 '나'의 상처가 치유되는 길이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④ '제가 잘되고 잘사는 것으로, 다만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고 그때 받은 깊숙한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저 녀석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에서 알 수 있다. ②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 가르쳐 대기업에 붙여, 공일 날 카메라 메고 야외에 나갈 만큼의 사람 사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⑤ "너무 고지식하게 정문만 뚫으려고 했던 것 같아. 방법을 좀 바꾸어서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알아봐야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에서 알 수 있다.

13 '나'는 훈이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일요일이면 카메라 메고 동부인해서 야외로 놀러 나갈 만큼' 여유롭게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미리 카메라를 사 줌으로써 그런 자신의 소망과 계획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따라서 카메라는 '나'가 훈이에게 바라는 삶, 즉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여유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 ⓔ는 자신의 진심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훈이와의 대화를 회피하는 태도이다. 훈이가 계속 자신의 마음을 곡해하는 상황이므로 대꾸를 한다 해도 진심은 전달되지 않고 갈등만 커질 것 같기 때문에 대화를 진행시키지 않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② '나'가 훈이에게 바라는 삶을 상징하는 카메라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나'가 강요해 온 삶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 '제 살갗을 드러낸 얼굴은 옹기그릇처럼 암갈색의 광택이 났고, 드러난 이빨만이 징그럽도록 선명하게 희었다.' 등에서 인물의 외양을, '씻기는커녕 옷도 안 벗은 채 아무렇게나 쓰러지더니 코를 골기 시작했다.' 등에서 인물의 행동을, '벗어만 놓고 빨지 않은 옷가지들이~시척지근하고도 고릿한 야릇한 악취를 풍겼다.' 등에서 공간을 묘사하여, 열악한 환경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인물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되고 있으므로 '시간의 역전'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인물의 이력을 요약적으로 진술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④ '나'와 훈이의 대화에서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장면의 전환은 드러나지만 긴박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16 '활자로 된 거라곤 흔한 주간지 하나 없는 황폐한 방구석이 이 녀석의 황폐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 내 마음은 암담했다.'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여유조차 없는 훈이의 상황에 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훈이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남자답고 성숙해진' 것으로 판단하지도, '뿌듯해'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무참한 느낌'과 '암담'함을 느끼고 있다. ② 훈이의 게으름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훈이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절망감을 느낀다. ③ '예전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다고 판단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나'는 훈이의 왕성한 식욕을 '무참한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 대견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17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섭게 먹어 댔다'는 것은 훈이가 고된 노동과 부실한 식사로 인해 늘 허기져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멀고, '나'가 그런 훈이의 모습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아니다.

18 ⓒ를 통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추리할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② 기술직은 관리직처럼 '빈틀댈 수 있는 직종'과는 달리 시내에 나가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 노동자가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현실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19 ㉠은 부실한 식사와 고된 노동에 대해 평가하는 말이다. 그런데 '기똥차다'는 뛰어나다는 뜻이므로,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 현실에 대해 '기똥차다'고 말한 것은 현실에 대한 반감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lus 〈참고〉

반어
겉으로 표현된 의미와 속에 숨어 있는 참의미가 반대되게 표현하는 것
해학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수법
풍자
부정적인 대상을 비판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수법

20 '훈이의 하숙방'은 피곤에 찌들어 '돼지만도 못한' 생활을 하는 훈이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는 공간이다.

21 '논의 벼는 비단 폭처럼 선연하게 푸르고~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뿌리내리기 힘든 고장인가.'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현실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그로 인한 씁쓸함을 부각하고 있다. '자연 지향의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나'와 훈이가 서울로 돌아가는 문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과 이해가 드러나고 있다. ③ '나'를 통해 전쟁 세대의 상처를, 훈이를 통해 산업화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의 무거움을 보여 주고 있다. ④ 훈이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면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나'의 믿음이 현실 속에서 좌절되는 모습을 통해 성실하게 일하면 안정적으로 잘살 수 있다는 기성세대의 믿음이 허상임을 그리고 있다. ⑤ 이 글의 결말 부분에서 '나'의 고백적 서술을 통해 훈이를 키운 자신의 방식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나'는 '나'의 소망과 괴리된 삶을 견디려는 훈이의 모습에 낙담하고 있다. 훈이가 '나'의 소망과 괴리된 삶에 만족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이놈의 고장 참 고약하더라.', '산골 인심이 어째 이 모양이냐.', '훈이가 그거 하나 여지껏 못 얻어먹었다고 생각하니 부아가 부글부글 치솟는 걸 느꼈다.'에서 알 수 있다. ② '형편없는 식사와 중노동을 약으로 버틴 훈이를 뜯어먹은 이를 지겹게 눌러 죽이'는 것이나, 훈이에게 서울로 가자고 권유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훈이의 싫다는 대답을 나는 전연 예기치 못했으므로 당황할 밖에 없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뭐가 잘못된 것일까.~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에서 알 수 있다.

23 노동자를 임시직으로 고용하여 저임금과 차별적 대우로 착취하여 이윤을 남기는 산업 현장의 구조적 부조리를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열악한 노동 환경'이 아니라 '인정이 메마른 세태'를 알 수 있다. ② '노동자를 천시하는 풍조'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알 수 있다. ③ '노동자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는 상황'이 아니라 '노동자를 착취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현실'을 알 수 있다. ⑤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과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별개인, 즉 산업 발전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을 알 수 있다.

24 '잘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굴진 마.'라는 말로 상대방에게 억지

노력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이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6개월만 기다리라는 임시직 신세로 3, 4년을 현장으로만 굴러다니는 친구가 수두룩'하다는 말에서 자신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을 것, 즉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④ '나는 다만 고모가 꾸미고, 고모가 애써 된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놓여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에서 기성세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나는 내 나름으로 이곳에서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에서 자기 나름대로 현실에 대응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25 ㉠은 국토 건설 사업에 이바지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에 대한 비웃음과 자조를 담고 있고, ㉡은 고된 노동의 현실에서 그것을 감당하려는 상대방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38~043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⑤	05 ④	06 ④	07 ⑤	08 ④
09 ⑤	10 ⑤	11 ④	12 ①	13 ③	14 ④		

01 '데모가 있을 때마다 나는 훈이가 그런 데 휩쓸릴까 봐 애를 태웠다는 것에서 '나'는 훈이가 데모에 참여할까 봐 전전긍긍(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훈이는 특별히 반발하지 않았다. ② '내가 옮겨 준 대로 이과에 잘 다녔다'고 했으므로 '이과에 적응하지 못하고 말썽을 부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재수는 막무가내로 싫다고 해서 삼류 대학 공대 토목과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⑤ "그걸로 우리에게 복수라도 하겠다 이 말이냐?"에서 알 수 있듯이 훈이의 행동을 '복수'로 판단한 것은 '나'이다. 훈이는 기성세대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이지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다.

02 훈이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나'로부터 독립하려고도 한다. 그러나 '나'가 계획한 일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나'가 꾸미고 계획한 대로 함으로써 계획한 일들의 파국을 보려 한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착실하게 일해서~재산도 늘리고, 그러고 살아야 돼.', '이 사회에 순응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돼야지' 등에서 추리할 수 있다. ② '나'가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훈이에게 강요하고 훈이의 인생에 관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④ 훈이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03 '나'는 훈이가 '이 사회에 순응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문과에 가면 이와 거리가 멀어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문과에 가면 이 사회에 순응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없다.'가 '나'가 내세우는 근거이며 '나'는 이를 근거로 훈이를 설득하는 것이다.

04 ㉠, ㉡은 모두 '나'가 경계하는 대상이다.

05 노동자를 차별하고 착취하여 이윤을 남기는 기업의 행태를 '훌륭한 경영의 합리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결코 훌륭한 것도, 합리적인 것도 아닌 산업 현장의 모습을 '훌륭한 경영의 합리화'라고 했으므로, 산업 현장의 부조리에 대한 반감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객관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에 회사 측의 기만적인 행동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뜻이 담겨 있지는 않다. ⑤ 직설적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반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06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경험과 심리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작품이다.

오답 해설 ① 액자식 구성이 아니다. ② 서술자의 교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논의 벼는 비단 폭처럼 선연하게 푸르고~도처에서 내와 개울을 이루고 있다.'에서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서술자가 이야기 내부에 있는 주인공 자신인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주인공의 행위와 사건을 관찰하여 제시하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07 훈이가 지칠 줄 모르는 식욕과 게걸스러운 먹음새를 보여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훈이가 고된 노동과 부실한 식사로 인해 항상 허기져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나'에 대한 불만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 해설 ① "밥일이 있어.", "식비 빼고 하숙비 주고 나면 몇천 원 떨어질까 말까야." 등에서 알 수 있다, ② '훈이는 그동안 몰라보게 살이 빠진 데다가~못 알아봤던 것이다.', '이제야 제 살갗을 드러낸 얼굴은 옹기그릇처럼 암갈색의 광택이 났고'에서 알 수 있다. ③ "하여튼 짜식들 사람 부리는 솜씨 또한 기똥차게 악랄하다구.~기를 못 펴게 되니 더러워서……."에서 알 수 있다. ④ "그런 사람들은 기술직이 아냐.~반들댈 수 있는 직종이야 수두룩하니까.", "기똥차지, 기똥차. 그거 얻어먹고 폴대 메고 하루 몇십 리씩 산골을 누비는 나도 기똥차구." 등에서 알 수 있다.

08 ⓐ, ⓑ는 모두 '그까짓'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①). ⓐ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낸 표현이지만(③), 노동 현장인 공사판에 대한 비하의 태도 또한 담겨 있다(⑤). ⓑ는 자신이 처한 현실인 노동 현장에 대한 비하의 의미 외에(⑤) 그것에 대한 반감도 담겨 있다(②). 그러므로 ⓐ를 상황에 대한 불신, ⓑ를 상황에 대한 확신과 연결 지어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④).

09 '워커'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고생하는 인물의 현재 상황을 상징하는 소재로, 산업화 시대의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성세대가 강요한 삶'이 아니라 그것의 실패와 연결된다.

10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로 보아 '혼란 때문임을 자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자인한 것이고 이로 인해 혼란을 느낀 것이다.

11 '서울 → 강원도'와 같은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만, 서술자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안정된 삶을 상징하는 '카메라'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훈이의 현재 상황을 상징하는 '워커'의 상징적인 대비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좌절'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와 훈이의 대화를 통해 해외 취업 문제를 둘러싼 두 인물 간의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③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고생하는 훈이와 달리 아름답기만 한 자연적 배경을 묘사함으로써('논의 벼는 비단 폭처럼 선연하게 푸르고~아름다운 고장이다.'), 훈이를 바라보는 '나'의 혼란스러운 심리를 대조하여 부각하고 있다. ⑤ 주인공인 '나'의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나'의 심리 상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12 ㉠은 '나'가 해외 취업에 반대하는 이유를 훈이 마음대로 추측하여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나'가 해외 취업에 반대하는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부양 책임을 훈이에게 떠넘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고아인 훈이가 '꼭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살아 주'는 것으로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서 자신이 받은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③ ㉢은 고모에게 억지 노력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말인데, 이어지는 '여기 와 보니 6개월만 기다리라는 임시직 신세로 3, 4년을 현장으로만 굴러다니는 친구가 수두룩해.'라는 말로 보아, 그 이유는 그들과 마찬가지인 자신의 현재 상황 역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13 ⓐ는 전쟁에 대한 '나'의 복수이므로,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행위로 볼 수 있다. ⓑ는 '나'와 훈이의 갈등 상황에서 '나'가 훈이의 의도를 오해하여 표현한 것이므로,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상황에서 비롯된 말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는 '나'에 의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위로 볼 수 있지만, ⓑ는 우발적이든 아니든 실제로 일어난 행위가 아니다. ② ⓐ에는 '나'의 의지가, ⓑ에는 '나'의 오해가 반영되었다. ⑤ ⓐ는 전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는 훈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14 '그게 보기 싫어 먼 딴 데를 바라보'는 것은 '나'의 제안을 거부하고 '워커에 뿌리라도 내린 듯이 꼼짝 않고 서' 있는 훈이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차마 볼 수 없는 '나'의 심리를 드러내는 행동이다.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감춘 채, 세상과의 타협을 지향하는 이중적 삶의 방식'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에 복수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이 연극적 자아인 '나'의 '내부에 존재하는 세상에 대한 분노'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② '뒷문으로 통하는 길'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훈이의 취업을 위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알아보려는 모습은 '자신과 자기 주변만을 생각하는' 연극적 자아의 속물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애써 된 이 일의 파국'에서 애를 쓴 사람은 '나'이고 파국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은 훈이이다. 따라서 연극적 자아인 '나'가 자신의 주변 인물인 훈이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훈이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려는 것은 전쟁으로 삶의 뿌리가 뽑히는 것을 지켜보면서 겁을 먹은 '나'가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감춘 채, 세상과의 타협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44~045쪽

01 '나'는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세대로, 생존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반면, 훈이는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안정된 삶을 바라는 기성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 **02** 문과 이과 선택 문제, 해외 취업 문제, 현장 일을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가는 문제 **03** 진로나 취업과 관련된 갈등에서는 '나'의 의견에 훈이가 따름으로써 갈등이 해소되지만, 노동일을 그만두는 문제와 관련된 갈등에서는 훈이가 '나'의 제안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말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된다. **04** (1)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 기성세대가 소망하는(강요하는) 삶 (2)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며 고생하는 삶,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 **05** (1)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소망이 좌절된 것으로, 근면·성실하면 잘살 수 있다는 기성세대의 믿음이 허상임을 보여 준다. (2) 기성세대가 계획한 삶을 거부하고 현실의 무게를 견디며 주체적으로 살려는 태도를 보여 준다. **06** (1) 이공계 선호 현상 (2) 취업난 (3) 비정규직 차별 **07** 드디어 버스가 오고 고모는 그것을 혼자서 탔다. 고모는 나에게 몇 번이나 돌아가라는 듯 손짓했으나 나는 시골 버스가 떠나기까지의 그 지루한 동안을 워커에 뿌리라도 내린 듯이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고모는 그게 보기 싫었는지 먼 딴 데를 바라보았다. **08**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07 '나'는 '고모'로, '훈이'는 '나'로 바꿔어야 한다. 또한 '나'(고모)의 생각이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한 말은, 그것을 추측하는 표현으로 바꿔어야 한다(돌아가라고 → 돌아가라는 듯, 싫어 → 싫었는지).

08 기똥차지 않은 현실을 기똥차다고, 훌륭하지 않은 현실을 훌륭하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O×로 마무리 check

본문 046~04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10 훈이가 '나'에게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는다.

11 훈이를 고속 도로 건설 현장의 일꾼으로 취업시킨 것은 '나'이다. 따라서 훈이의 취업 역시 '나'의 간섭이 작용한 것이다.

13 적극적 저항은 드러나지 않는다.

16 '나'는 훈이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웠지만 결국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키우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03 극 갈래와의 만남_동주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50~057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②	05 ⑤	06 ⑤	07 ①	08 ③
09 ④	10 ③	11 ①	12 ④	13 ④	14 ③	15 ③	16 ②
17 ⑤	18 ⑤	19 ③	20 ②	21 ⑤	22 ⑤		

01 시나리오는 서술자를 내세우지 않고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과 갈등을 보여 주는 극 갈래에 속한다.

오답 해설 ① 서정 갈래, ② 교술 갈래, ③ 논설문, ⑤ 서사 갈래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2 몽규가 여진을 끌어들여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갈등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킨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지금도 마찬가지지. 관습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단정 짓는 건."이라는 동주의 비판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다. ② 몽규와 동주는 문학이 이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시의 역할 등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내면서 서로의 말을 반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③ "(수습하듯이) 아, 그래. 둘 다 맞아. 다 맞는데……. (동주를 보며) 일단 시들은 정말 좋은 게 안 들어온 거 같아서 그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여진은 동주를 밖으로 유도하여 동주와 몽규를 분리함으로써 두 사람의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03 〈보기〉를 통해 몽규가 이광수를 따라한 글을 거부한 것은 이광수가 변절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함', 즉 개성이 없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따라한 대상'을 문제 삼은 것이므로 이를 통해 작가의 개성을 중시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③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몽규가 이광수를 변절자라고 칭한 것은 '일제 말기에는 친일파로 돌아서 민족을 배반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이광수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보기〉로 보아 이광수는 작품을 통해 '전근대적인 도덕과 윤리를 비판하고 근대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역설'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⑤와 같이 추리할 수 있다.

04 "민족주의니 애국주의니 공산주의니 이념을 위해 모든 가치를 팔아먹는 ~ 그거야말로 시대의 조류에 몸을 숨기는 썩어 빠진 관습이지!"라는 동주의 말로 보아 동주는 문학을 이념의 도구로 여기는 것은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동주는 문학을 이념의 도구로 여기는 것을 시대의 조류를 타는(이용하는) 행동이라고 본 것이지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가 없어서 문학으로 숨는 거밖에 더 돼?"에서 알 수 있다. ③ "관습과 이념을 타파하자고 하는 일이야.~나는 이 문예지를 하려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라는 몽규의 말과, "문학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 그거야말로 시대의 조류에 몸을 숨기는 썩어 빠진 관습이지!"라는 동주의 말에서 각각 알 수 있다. ④ "자기 생각을 펼치기에는 산문이 좋지."라는 몽규의 말과, "시도 자기 생각을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라는 동주의 말에서 각각 알 수 있다. ⑤ "시는 가급적 빼자고. 인민을 나약한 감상주의자로 만드는 건 문학이 아니야."라는 몽규의 말과, "시도 자기 생각을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 그런 힘이 하나하나 모여야 세상이 변하는 거라고."라는 동주의 말에서 각각 알 수 있다.

05 여진과 동주 사이에 강렬한 연애 감정이 있다고 추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진은 동주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동주는 여진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밤하늘에서 하숙집 지붕, 창문으로 점점 화면이 내려오며 팬 다운(pan down).'이라는 지시문에 부합하는 계획이다. ② '원고를 던지며'라는 지시문에 부합하는 계획이다. ③ '이상한 분위기에 긴장하는 친구들.'이라는 지시문에 부합하는 계획이다. ④ 몽규와 동주는 서로 다른 문학관을 드러내며 격앙된 어조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긴장된 분위기를 드러내기에 적절한 계획이다.

06 ㉡은 자신의 태도가 기존의 관습과 이념을 타파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 말이다. 민족주의나 공산주의는 몽규가 목적하는 새로운 이념이지 타파하려는 기존의 이념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어릴 때와 지금 추종하는 이념과 관습은 바뀌었지만, '관습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단정 짓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③ "민족주의니 애국주의니 공산주의니 이념을 위해 ~ 관습을 타파하는 일이야?"라는 동주의 대사를 통해 몽규가 추구하는 이념이 민족주의, 공산주의임을 알 수 있다.

07 ⓐ는 '(시간이) 늦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발화가 아니라 '(시간이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를 에둘러 전달하는 발화이다.

오답 해설 ② 과거와 달라진 상대의 태도에 당황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③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며 질문하고 있다. '공감'과는 거리가 멀다. ④ 앞선 대화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말을 반박하고 있다. '호기심'이나 '추가 정보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⑤ 상대방의 제안에 당황하고 있다. '불쾌감'과는 거리가 있다.

08 작중 상황과 연관된 〈별 헤는 밤〉의 구절을 내레이션으로 삽입하여 인물의 처지와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작중 분위기가 긴장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뿐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지 않다.

09 여진은 문학적 재능을 지닌 동주와 당대 문단의 거목인 정지용을 연결해 주고 싶어 한다. '동주와 자신의 관계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동주가 시를 사랑하는 거만큼 몽규도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몽규가 이념에 사로잡혀서 시를 폄하하는 건 아니라고."에서 알 수 있다. ② "아직 남한테 보여 줄 시들이 아닌데…….", "너무 부끄러워서 태워 버리려고 한 건데……."에서 알 수 있다. ⑤ "여자들한테 통할 시라니까. 여진이가 뭐래?", "통했네."에서 알 수 있다.

10 S# 34~35에서 동주와 여진의 대화 장면 위에서 반짝이는 별빛은 순수와 낭만, 애상 등의 의미를 전달하고, 동주가 올려다보는 별빛은 동경과 애상 등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달관(인생의 진리를 꿰뚫어 보아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고 넓고 멀리 바라봄. 또는 그러한 경지.)'과는 거리가 있다.

11 [A]는 '좋아하는 시인'이라는 여진의 질문과 연관되어 삽입된 내레이션이다. 하지만 실제 작품에서는 [B]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로, '아름다웠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상념'을 표현한 부분이다. '너무나 멀리', '아슬히 멀듯이' 등의 시어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부각하는 표현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12 ㉣에서 동주는 "정지용 선생님 뵙고 싶지?"라는 여진의 말에 동의하는 마음을 '돌아보며 멋쩍게 웃는'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겸손을 가장'한 것도,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것도 아니다. ② 동주의 작품에 대한 주관적 감상을 표현한 것이다. ③ 여진의 평가에 당황한 것은 맞지만 '불쾌감을 드러'냈다고는 볼 수 없다. ⑤ 동주와 여진의 관계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낸 것은 맞지만, '동주가 여진에게 호감을 갖게 된 상황'은 아니다.

13 S# 38은 현재, S# 39~40은 과거이다. 이처럼 현재와 과거를 교차 편집하여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취조를 당하고 있는 인물의

현재 상황과 식민지 현실에 대한 인물의 고뇌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다양한 효과음'의 활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② 모두 '현실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③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아니다. ⑤ S# 38에서는 동주와 특고의 갈등이, S# 39에서는 동주와 몽규의 갈등이 나타나지만, S# 40에서는 다른 인물과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14 '자신은 이상주의자일 뿐 무장봉기와는 무관하다'는 것은 특고가 예상하는 동주의 변명이다. 동주의 실제 말은 '몽규와 자신은 모두 평범한 문학청년이고 유학생일 뿐, 혐의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④ "너는 그저 송몽규의 리더십을 추종하는 문학청년일 뿐이란 건가?", "모든 일은 송몽규의 지시! 그래서 난 억울하다, 그런 얘기인가?"라는 말로 보아 특고는 동주가 자신은 무고한 추종자라고 주장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몽규는 동주를 보호하고 그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를 위험한 일에 관여시키지 않으려 한 것이다. 따라서 '겁이 많으므로'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 ② "태평하게 대학 생활이나 즐길 때냐?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너 따라 경성에 온 거야."에서 알 수 있다. ④ "여진이나 잘 챙겨.~도움이 많이 될 거야.", "넌 여기 있어야지."에서 알 수 있다. ⑤ "지금 임시 정부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 세상이 날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책만 보며 살겠니?"에서 알 수 있다.

16 S# 40에서 정지용은 "침묵하고 있는 나도 부끄럽고, 술에 취한 나도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정지용은 부정적 현실과 거리를 두고 침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영달만을 추구'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제 일본인 교장으로 바뀌는 것도 시간문제야."에서 알 수 있다. ⑤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라는 말에 담긴 의미이다.

17 "일본에도 좋은 선생이 많이 있어. 나도 교토에서 보낸 시절이 좋았어."라며 일본으로 유학 갈 것을 조언하고 있다. 동주가 지식인이자 시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조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동주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이다. ② 동주의 신분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동주의 재능을 평가한 말이다. ③ 동주의 자질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시를 쓰기 어려운 시대임을 한탄한 것이다. ④ 결심한 바를 밝히면서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고민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18 동주와 몽규의 모습을 교차 편집하여 서명에 대한 두 인물의 인식의 공통점과, 서명에 대한 선택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상징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소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② 특고와 동주, 특고와 몽규가 갈등을 벌이고 있으며, 인물 간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다. ③ '언어유희'는 확인되지 않는다. ④ 두 사건을 교차 편집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과거의 사건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현재의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Plus 〈참고〉

교차 편집
둘 이상의 사건을 서로 엇갈리게 편집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는 일을 섞어서 보여 줄 때 사용한다. 정교한 교차 편집은 일종의 서술 트릭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같은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거나, 인과 관계가 있거나 없는 사건들의 인과 관계에 혼동을 주는 방식 등이다.

19 "왜 우리 죽음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라는 동주의 말에 특고는 "명분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라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여기까지 잡아 와서 이런 요식 행위는 왜 하는 건가?"에서 알 수 있다. ④ "너희들이 허울 좋은 명분을 항상 내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나? 얼등감 때문이지."에서 알 수 있다. ⑤ "왜 우리 죽음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전쟁 이후가 두려워서 이런 걸 하는 겁니까?"에서 알 수 있다.

20 ⓐ는 투사로서 마땅히 해야 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는 부정적 현실에서 시인이 되기를 원했던 부끄러움 · 앞장서서 투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볼 수 있다.

21 몽규는 제대로 투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인해 서명을 하고, 동주는 앞장서지 못하고 따라나서기만 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서명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와 ㉯는 모두 인물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이 동기가 되고 있다. 특고가 제시한 명분이나 절차를 수용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 ㉯에는 모두 부정적 현실에 대한 반감이 담겨 있다. ③ ㉮, ㉯에 이르기까지 동주와 몽규는 모두 서명을 강요하는 이유를 따지며 반발하고 있다.

22 '(눈물을 글썽이며)'라는 지시문으로 보아 서류에 서명하는 부분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서류의 내용을 읽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중간에 들어가는 혼잣말 역시 슬픔과 부끄러움, 회한이 담긴 말이므로 '밝은 목소리'로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④ '특고가 정곡을 찔린 듯 말이 없어진다.'로 보아 적절한 주문이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58~063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②	05 ③	06 ①	07 ③	08 ⑤
09 ⑤	10 ③	11 ③	12 ③	13 ③	14 ⑤	15 ⑤	

▸ (나) 쉽게 씌어진 시_윤동주

핵심 정리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고백적, 명상적, 저항적, 미래 지향적
주제	암담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해제	어두운 시대 상황에 갇혀 있는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자기반성, 현실 극복의 의지를 그림.

01 (가)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과 갈등을 보여 주고 주제를 드러내는 극 갈래에 속하는 시나리오이다. (나)는 시적 화자의 말로 주제를 드러내는 서정 갈래에 속하는 현대시이다. (나)는 시적 화자가 '나'로 작품의 표면에 등장하여 자기 고백적인 내용으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의 체험을 통해 정서를 전달하는 것은 교술 갈래의 특징으로,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과 갈등을 그리는 것은 서사 갈래의 특징으로, (가)와 (나)는 모두 서술자의 개입이 없는 갈래이다. ④ 허구적 인물과 사건을 형상화하는 것은 서사 갈래의 특징으로, (나)는 서사 갈래가 아니다. ⑤ 정서를 운율이 있는 압축된 언어로 노래하는 것은 서정 갈래의 특징으로, (가)는 서정 갈래가 아니다.

02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이라는 표현이나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윤동주가 세상에 순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갈등하며 고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육첩방'은 다다미가 깔린 일본식 방으로, 시적 화자가 일본에 있음을 드러낸다.

03 ⓑ와 ⓓ에는 모두 자신을 소외시키는 몽규에 대한 동주의 섭섭함이 담겨 있다.

오답 해설 ① ⓐ와 ⓗ에는 유사한 현실 인식이 담겨 있다. ③ 몽규가 동주에게 자신의 행선지를 말하지 않는 것은 이로 인해 나중에 동주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는 상대에 대한 보호 혹은 배려의 의미가 담겨 있다. ⓕ에는 동주의 시를 높이 평가하는 칭찬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에는 상대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고, ⓘ에는 상대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⑤ ⓖ에는 상대를 안타까워하고 현실을 한탄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 ⓘ에는 상대를 위로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04 화자는 부정적 현실을 변화시킬 현실적 힘을 지니지 못한 시인의 처지를 '슬픈 천명(天命)'으로 인식하면서, '한 줄 시를 적어' 보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B]는 슬픈 현실을 극복하려는 나름의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현실 회피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밤'이라는 시간과 '남의 나라'라는 공간을 통해 화자의 현실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③ 부모님의 노고와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낡은 지식을 가르치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등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 [D]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자기반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④ [E]에서 다시 한 번 현실을 확인한 다음 [F]에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모습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다.

05 ㉠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부끄러운 '나', 즉 현실적 자아로 볼 수 있고, ㉡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현실 극복 의지를 지닌 '나', 즉 이상적 자아, 반성적 자아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연에서는 이상적 자아인 '나'(㉢)가 현실적 자아인 '나'(㉣)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함으로써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은 ㉡과, ㉣은 ㉠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로 보아 ㉠은 무력감을 느끼는 현실적 자아임을 알 수 있다. ②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아침을 기다리는' 모습에서 ㉡은 반성적 자아로 볼 수 있다. ④, ⑤ ㉤은 분열된 두 자아가 화해와 화합을 상징하는 ㉥을 이루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독(毒)을 차고_김영랑

핵심 정리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의지적, 저항적
주제	일제 강점기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타개하려는 의지
해제	'독'이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화자의 단호한 태도와 자세를 형상화함.

06 (가)의 '동주'와 '몽규', (나)의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일제 강점하의 억압적 현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나)의 '나'는 결연하고 강한 의지와 저항 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③, ④ 세 인물 모두와 관련 없는 내용이다. ⑤ (나)의 '나'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나'는 죽는 날까지 '독'을 차고, 즉 결연한 저항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07 교차 편집을 통해 특고에 대한 동주와 몽규의 태도에 차이가 없음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⑤ 서명에 대한 동주와 몽규의 결정은 서로 달랐지만 거기에 담긴 생각은 다르지 않음을 보여 준다.

08 3연의 '아!~있었던가', '허무한듸!', 4연의 '나는~가리라' 등에서 영탄적인 어조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조하는 수사법인 반어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②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수사법인 공감각적 심상은 사용되지 않았다.

Plus 〈참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사와 어미를 중심으로 반복된다. 따라서 반복되는 것은 '문장'이 아니라 '구조'임에 유의해야 한다.

예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집 마늘밭에 눈은 쌓이리.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집 추녀 밑 달빛은 쌓이리.

– 박용래, 〈겨울밤〉

09 '비열한 욕망을 드러낼 자신이 없어서'는 상대를 비판하는 몽규의 말이다. 따라서 이를 몽규와 동주에 대응하는 특고의 말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내맡긴 신세'는 억압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 고통받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보기〉를 통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는 김영랑의 초기 시에서 발견되는 특징임을 알 수 있으며, 후기 시에 속하는 (나)와는 거리가 있다.

오답 해설 ② '이리 승냥이'는 화자를 위협하는 존재들로, 화자가 독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원인에 해당한다. ⑤ '외로운 혼'은 화자가 자신의 '막음 날' '건지'고 싶어 하는 것이므로, 식민지 현실이라는 외부 세계로부터 지키고 싶은 시인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

▸ (나) 파수꾼_이강백

핵심 정리

갈래	희곡
성격	상징적, 우화적, 풍자적
주제	진실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의 비극(진실을 향한 열망)
해제	'늑대와 양치기 소년' 우화를 활용하여 진실을 왜곡한 채 정권 유지에만 급급했던 1970년대 정치 현실을 풍자함.

11 (가)가 내레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작중 상황과 연결되는 시를 내레이션으로 삽입하여 주인공의 고뇌와 고결한 정신을 부각하는 한편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시나리오, (나)는 희곡으로 모두 극 갈래에 속한다. ② 시나리오인 (가)는 영상 촬영을 지시하는 특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④ 희곡은 등장인물 수에 제한을 받는다. (나)는 관객을 마을 사람들로 간주하여 작품 중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이 제한을 해결하고 있다. ⑤ 희곡은 배우와 관객이 직접 대면하는 반면, 시나리오는 스크린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만난다.

Plus 〈참고〉 **희곡과 시나리오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 대사와 해설, 지시문으로 구성됨.
- 인물의 대사나 행동이 현재형으로 제시됨.

차이점

시나리오	•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위한 대본임. • 시간·공간의 설정과 인물의 수에 제약이 거의 없음. • 신(scene)을 구성 단위로 함. • 장면 전환이 자유로움. • 촬영에 필요한 특수 용어가 사용됨.
희곡	• 무대 상연을 위한 연극의 대본임. • 시간·공간의 설정과 인물의 수에 제약이 있음. • 막과 장을 구성 단위로 함. • 장면 전환이 어려움.

12 S# 100~101에서 동주의 사망을, S# 102에서 그 원인이 병과 각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S# 100을 보면 몽규가 동주 부와 몽규 부에게 동주의 사망 소식을 알린다. ② S# 100을 보면 몽규는 생체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④ 동주 부와 몽규 부는 동주의 죽음에 오열하지만 거칠게 저항하지는 않는다. ⑤ S# 103에서 동주 부가 몽규 부를 나무라지만, 이는 유골을 유언에 따라 잘 처리하려는 마음을 드러낸 것일 뿐, 유골 처리 방안을 놓고 갈등을 벌인 것은 아니다.

13 ㉠은 죽은 뒤 시체를 실험실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한 말로, 일제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즉 현실에 저항하는 모습이다. ㉡은 이리 떼가 있다는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촌장의 논리에 따르는, 즉 현실에 굴복하는 모습이다.

14 ⑥는 순결한 삶에 대한 지향을 위협하는 현실적·외적 시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 자신의 내적 고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화자의 내적 고뇌를 의미하는 시어는 S# 102의 '(잎새에 이는) 바람'으로 볼 수 있다.

15 S# 104에서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는 내레이션에 언덕 위로 밤이 찾아오며 별이 빛나는 배경을 연결하여 암울한 현실 인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64~065쪽

01 (1) ㉠과 같은 편집을 통해 현실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과 같은 편집을 통해 두 사람의 선택이 서로 다른 이유를 부각하는 한편, 거기에 담긴 생각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02** 작중 상황과 연관 지으며 인물의 처지나 심리를 드러내고,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03** (1) 낭만, 동경, 순수, 애상 (2) 고결, 애상, 희망 **04** 몽규는 문학이 이념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동주는 문학이 이념의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05**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06** 부정적 현실에 제대로 저항·투쟁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 서명을 한다. **07** 부정적 현실에서 시인이 되길 바랐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도 못한 것이 부끄러워 서명을 하지 않는다. **08** 위험에 말려들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성장하기를 바란다.

03 (2) S# 104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언덕 위로 밤이 찾아오며 별이 빛난다.'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05 매국적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을 비판하는 한편, 자신의 처지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동주를 위로하는 말이다.

06 했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그 하지 못한 일을 시인하는 서명을 한다는 것이다.

07 했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그 일을 했다고 시인하는 서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66~06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04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구성인 것은 맞지만, 추리물처럼 사건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6 이 글은 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한 시나리오로, 프레임 인(frame in), 인서트(Insert) 등과 같이 영상 촬영을 지시하는 특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Plus 〈참고〉 주요 시나리오 용어

scene number	장면 번호. 'S#'로 표시함.
narration	장면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게서 들려오는 설명체의 대사
F.I.(fade in)	화면이 점점 밝아짐.
F.O.(fade out)	화면이 점점 어두워짐.
C.U.(close up)	어떤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대함.
Ins.(insert)	장면과 장면 사이에 사진 등이 끼어드는 것. 삽입 화면.

08 S# 33에서의 갈등은 해소된다기보다는 중단 또는 흐지부지되고 있다.

11 회상 장면인 S# 34~35에서는 〈별 헤는 밤〉이 내레이션으로 흐르는 가운데 동주가 '별빛을 올려다'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히 S# 35의 마지막 장면과 현재 장면인 S# 36의 시작 부분 '여전히 달빛을 올려다보는 동주'와 연결되고 있다.

12 S# 38에서 동주는 몽규와 자신 모두 평범한 문학청년이고 유학생일 뿐이라며 무장봉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결백뿐만 아니라 몽규의 결백 또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8 자신을 구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골을 조국으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19 몽규의 유언에 따라 유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다소 격앙된 것일 뿐, 유해의 처리 방안을 놓고 두 사람이 갈등을 하는 것은 아니다.

21 〈서시〉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 시를 내레이션으로 인용한 의도도 이와는 거리가 멀다.

04 교술 갈래와의 만남_풀 비린내에 대하여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70~073쪽

01 ③ 02 ① 03 ⑤ 04 ③ 05 ⑤ 06 ② 07 ① 08 ②
09 ⑤ 10 ④ 11 ③ 12 ④

01 이 글은 교술 갈래에 속하는 수필로, 수필은 글쓴이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 감동, 교훈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오답 해설 ① 극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② 서정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④ 설명문에 대한 설명이다. ⑤ 서사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02 글쓴이는 자동차의 안락함에 길들여져 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고 있다. 즉, 자신의 생태적 무관심과 이기심을 반성하며 새로운 삶의 태도를 탐색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옛날 티베트 승려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현대인의 태도와 대조하면서 자동차를 모는 것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③ 스웨덴의 생태학자 에민 텡스림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만, 생태적 성찰이라는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동차가 '감성적 기계'라는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이다. ④ 일화를 활용하여 성찰의 계기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여러 일화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특정 대상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자연물인 풀벌레는 인간에 의해 희생되며 죄의식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인간의 유한성과 대비되는 무한성을 지녀 인생무상의 정서를 유발하는 대상이 아니다.

03 '풀 비린내'는 ㉠으로 인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 '이전'의 글쓴이는 풀 비린내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답 해설 ①~③ ㉠은 글쓴이가 몰던 자동차에 풀벌레들이 부딪쳐 죽은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글쓴이는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생태적 자각을 하게 된다. ④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04 글쓴이는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임을 고려하여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기로 한다. 자동차의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심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에 부딪치는 소리를 모래 알갱이가 튀는 소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② 풀벌레들이 짓이겨져 나는 냄새인 풀 비린내를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여긴 것은, 글쓴이가 자동차로 풀벌레를 죽인 것에 대해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④ 글쓴이는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⑤ '풀 비린내'를 죄라고 여기는 것은,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05 ⓑ, ⓒ가 잘못된 인식임을 인정했다기보다는 그런 인식에 길들여지는 것을 경계하게 된 것이고, ⓐ를 자각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자동차를 '달리는 무기'로 보는 것이 통념이지만(①), 글쓴이는 안락함과 편리함이라는 자동차의 심리적 효용에 주목하면서(②) 자동차를 ⓑ, ⓒ라고 평가하게 된다(③). 하지만 풀벌레를 죽게 한 사건을 통해 자동차를 모는 것이 살생의 행위임, 곧 자동차가 ⓐ임을 경험하면서 ⓑ, ⓒ의 인식이 내포한 생태적 문제점을 자각하게 된다(④).

06 글쓴이는 '차는 살생의 도구이므로 이를 소유하는 것은 살생을 용인하는, 전혀 생태적이지 못한 모습이다. 따라서 차를 소유한 자신은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행동이나 처지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일 뿐 실제로 자동차와 관련된 생태적 발언을 삼가기로 결심한 것은 아니므로 ㉡의 내용으로는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⑤ ㉡과 관련하여 글쓴이는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자동차의 편안함에 길들여지지 않고(①), 그것이 생명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려는(⑤) 태도로 볼 수 있다. ③, ④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은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것(④)인데, 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 것(③)으로 다시 표현되고 있다.

07 [A]에는 '자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인해 생물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가 들어가야 한다. ①은 인간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용한 비닐이 바다표범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A]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으로 볼 수 없다. ③~⑤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다.

0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풀벌레를 죽게 한 일상의 경험을 계기로 생태적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냉소적(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어 비웃는) 어투로는 볼 수 없다. ③ 옛날 티베트 승려들의 사례와 대비하여 자동차를 모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④ 스웨덴의 생태학자 에민 텡스림의 말을 인용하여 자동차가 감성적 기계라는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생태적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긴 하지만 자연에 귀의(돌아가거나 돌아와 몸을 의지함.)하려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09 글쓴이는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즉 '자동차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살상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면허를 따 놓고도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고 하였다. ② 글쓴이가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것은 객지로 이사하면서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와 같은 실제적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③ 글쓴이는 마음이 답답할 때 차를 몰고 교외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등 실제적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잦아지면서 자동차에 길들여져 갔다. ④ 글쓴이는 풀벌레가 차체에 부딪쳐 죽는 경험을 통해 자동차를 모는 것이 살생 행위라는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된다.

10 ㉠은 자동차를 그네 침대로 표현한 것으로, '달리는 무기'라는 인식을 전복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자동차의 용도를 '달리는 무기'라는 통념과 다르게 제시하여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 준 것이다.

11 자동차를 모는 행위에는 (풀벌레의 죽음과 같은) 살생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난 살생 행위'라고 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자책감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책감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② 자동차로 인한 살상이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일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④ 자동차를 모는 행위가 동물이나 인간의 죽음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지 이것이 인간들 간의 싸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한 것이 아니다. ⑤ '원죄 의식'이라는 표현은 죄의식을 강조한 표현일 뿐, 종교적으로 승화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12 〈보기〉의 글쓴이는 사냥을 일삼는 '인간들한테 분노하고 치를 떨 자격이 나한테 있을까'라고 반문하는 자신에 대해 '이런 자괴심조차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생태적 발언을 할 자격

이 없다는 자괴심조차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풀벌레가 차에 부딪쳐 죽고, 새가 통유리창에 부딪쳐 죽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경험은 비슷하다. 하지만 〈보기〉의 글쓴이는 '나는 새를 속여 먹은 것이다.', '자연 친화적 좋아하네.' 등에서 보듯이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내 잘못이 아니었듯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의 글쓴이는 '인간 우월주의', 곧 인간 중심적 시각에 대해 비판적이다. 따라서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의 글쓴이는 '자연과 문명은 어차피 적대적'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의 관계가 분명 개선될' 것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의 글쓴이는 '자연과 문명은 어차피 적대적'이라고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명을 선택해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Plus 〈보기〉 죽은 새를 위하여_박완서

성격	경험적, 성찰적, 비판적
주제	자연과 괴리된 채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성찰과 비판
해제	새가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사건을 계기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인간, 그리고 그들의 문명이 지닌 자기중심성과 폭력성을 비판함.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74~077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③ 05 ① 06 ④ 07 ⑤ 08 ③ 09 ⑤ 10 ③ 11 ③

▸ (나) 젊은 손수 운전자에게_김광규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풍자시
성격	비판적
주제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
해제	현대 물질문명을 대표하는 자동차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움.

01 (가)는 교술 갈래에 속하는 수필, (나)는 서정 갈래에 속하는 시이다. 서정 갈래는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운율이 있는 압축된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오답 해설 ① 객관적인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설명문이다. ②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허구적인 인물과 사건을 형상화하는 것은 서사 갈래이다. ③ 특정 주제에 관한 글쓴이의 생각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논설문이다. ⑤ 서술자를 내세우지 않고 사건과 갈등을 직접 보여 주는 것은 극 갈래이다.

02 자동차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은 ⓐ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① ⓐ는 자동차를 소재로 자신이 깨달은 삶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는 자동차를 소재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② ⓐ는 다른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는 자연이나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모두 더불어 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는 풀벌레를 죽게 한 상황에 대해 자책감을, ⓑ는 젊은 손수 운전자가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달려 나가는 상황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느끼고 있다. ⑤ ⓐ는 자신을 성찰하면서, ⓑ는 '젊은 손수 운전자'인 청자를 비판하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03 ㉠은 운전이라는 행위에 잠재된 폭력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운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③ ㉠은 자동차에 풀벌레들이 부딪쳐 죽은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한다. 글쓴이는 이를 '살상의 경험'으로 인식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생태 문제에 대해 성찰하게 된다. ④, ⑤ 글쓴이는 자동차가 풀벌레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 그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였다.

04 글쓴이가 풀벌레 등의 자연을 '완벽했던' 것으로 인식했는지는 불분명하고, '향수'라는 정서와도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은 죽은 풀벌레의 냄새를 표현한 것(①)으로, 글쓴이에게 생명을 죽게 했다는 죄의식과 자책감을 불러일으킨다(④). ② 살생의 기억과 충격이 '냄새'라는 감각을 통해 환기되고 있는 것이다.

05 [A]에서는 '가로수, 과일 장수, 생선 장수, 애기를 업은 여인'과 같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대상은 보지 못하고 지나치면서, '교통 순경과 신호등'의 눈치만 살피며 달려간다고 하였다. 그런데 ㉠에서는 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기억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표현했으므로 의미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③ '가족들의 소중한 사랑', '이웃의 걱정과 안타까움'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것들을 '뒤로 하고' '외면'한다고 하였으므로 [A]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④ '과속 감시 카메라'를 피하는 것은 '교통 순경과 신호등'을 살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것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06 ㉢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차의 편안함에 길들여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모순된 욕망'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부정하는 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모순된 욕망'을 해결해 주는 것에 길들여진 태도로 볼 수 있다. ②, ③ '살상의 경험'이나 그에 대한 자각이 없어서라고 평가할 만한 근거는 없다 ⑤ '차를 소유하고 그에 종속된' 태도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_김기택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비판적, 성찰적
주제	문명적 삶에 대한 반성과 자연과의 교감 추구
해제	문명을 대표하는 텔레비전을 끄는 행위로 인해 자연의 소리를 발견하고 교감하게 되면서 이를 통해 현대인의 삶을 성찰함.

07 (가)에서 '풀벌레'는 존중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타협'은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 정리를 평가한 말이고, '의존'은 자동차의 편안함에 길들여진 모습을 표현한 말일 뿐, '풀벌레'에 대한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 모두 '풀벌레'로 대표되는 자연 또는 생명의 존재 가치를 옹호하고 있다. ②, ③ (가)는 자동차로 인한 풀벌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풀벌레의 소리를 듣게 되는 상황을 계기로 '풀벌레'의 존재가 인지되고 이를 통해 반성과 성찰에 이르게 된다. ④ (가)는 '풀 비린내'를 통해 후각적으로, (나)는 '풀벌레 소리'를 통해 청각적으로 '풀벌레'의 존재가 환기되고 있다.

08 ㉯에서는 풀벌레가 자동차에 부딪쳐 죽은 사건을 계기로 생태적 성찰에 이르게 되고 자동차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감성적 기계」라는 예술 작품에 통념이 '구현'된 것도, 이를 비판한 것도 아니다. 글쓴이는 통념을 '전복'시킨 예술 작품을 언급하면서 화제를 도입하고 있다. ② 자동차를 '감성적 기계'로 평가하고 있다. ④ 안락한 공간인 자동차가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음을 자각하며 비판하고 있다. ⑤ 자동차라는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09 ㉤은 풀벌레를 죽게 한 자신의 행위가 죄임을 잊지 않고 성찰적 자세를 유지하려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다(피할 수 없다)'고 합리화하거나, 스스로를 '다독인다(감싸거나 편들어 두둔해 주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손을 씻고 또 씻는 행위는 자책감과 죄의식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②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생각하는 인간의 무심함과 이기적 태도를 자각하게 된 모습이다. ③ 자동차가 생명을 파괴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을 잊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④ 생명을 파괴하는 위험성을 지닌 차를 소유하는 것은 살생을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생태적 관점에서 떳떳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10 '벌레 소리들 환하다'에서 청각인 '소리'를 '환한 것'으로 시각화하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풀벌레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풀벌레를 '마음'을 가진 대상으로 의인화하고 있지만, 말을 건네고 있지는 않다. ② '생각한다', '~다가', '~을 것이다' 등의 표현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동일한 문장의 반복은 보이지 않는다. ④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것이다')을 통해 화자의 성찰과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소망의 강조와는 거리가 멀다. ⑤ '들어온다, 환하다' 등 모든 종결 어미를 현재 시제로 제시하여 현장감과 생동감을 살리고 있다. 대상의 의지 부각과는 거리가 멀다.

Plus 〈참고〉

공감각적(共感覺的) 이미지

하나의 감각이 동시에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감각의 전이(轉移)가 일어나는 심상. 즉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표현하는 문학적 기법으로, 예를 들어 소리를 색깔로 묘사하거나 냄새를 촉각으로 표현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표현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보다 생동감 있는 경험을 전달할 수 있다.

예 •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청각의 시각화)
•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청각의 후각화)

11 [C]에서 화자는 그동안 자신에게 그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 즉 자신이 그 소리들의 주체와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화자와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 간의 소통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지,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 서로 간의 소통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에 비로소 풀벌레 소리가 방 안 가득 들어오고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② 풀벌레 소리를 자각하게 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④ 화자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에 현혹되어 벽을 만들었고 그 벽으로 인해 풀벌레 소리를 간과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⑤ 화자는 별빛과 풀벌레 소리를 포용하고 있는 밤공기를 허파로 들이쉼으로써 허파와 소리, 별빛이 하나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풀벌레 소리를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78~079쪽

01 두려움, 죄의식, 자책감 **02** 인간에게 편리하고 안락한 도구가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 **03**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춘다. **04** 풀 비린내는 죽은 풀벌레의 냄새를 의미하고, 자동차가 살상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실감하게 하여 글쓴이의 생태적 성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05** 자동차를 '감성적 기계'로 여겼다가 자동차로 인한 살생의 경험을 계기로 자동차라는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05 글쓴이는 자동차를 '감성적 기계'로 여겼다가 풀 비린내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라는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것을 경계하게 되었다.

O×로 마무리 check

본문 080~081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05 글쓴이는 자동차를 인생의 반려로 여기게 된 것이 아니다. 글쓴이는 자동차의 폭력성을 인식하면서 소유하되 의존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09 글쓴이는 풀벌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풀벌레가 죽고 난 후에 풀벌레의 존재를 인지하고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11 글쓴이는 모든 운전자가 자신과 비슷한 살상의 경험을 한다는 사실, 즉 운전으로 인한 살상이 일반적인 일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18 '풀 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생명에 대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피비린내'는 인간 간의 불화가 아니라 동물 및 인간에 대한 살상을 표현한 것이다.

20 글쓴이는 차를 소유하는 것은 살생을 용인하는 것이므로 생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차를 소유한 자신은 생태적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2 따뜻한 말과 글

01 공감하며 소통하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86~091쪽

01 ④	02 ①	03 ⑤	04 ④	05 ①	06 ③	7 ⑤	08 ⑤
09 ④	10 ④	11 ③	12 ③	13 ⑤	14 ①	15 ⑤	16 ④
17 ③	18 ④	19 ③	20 ⑤	21 ④	22 ④	23 ①	24 ③
25 ⑤	26 ①	27 ②	28 ④	29 ④	30 ②	31 ④	32 ②

01 담화 관습은 문화 풍토를 반영하여 생성·변화하므로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바르게 창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담화 관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자세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공손성의 원리 ② 협력의 원리 ③ 체면 유지의 원리 ⑤ 담화 관습의 이해와 활용

02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정보까지 최대한 많이 제공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협력의 원리 – 양의 격률).

오답 해설 ② 협력의 원리 – 관련성의 격률 ③ 공손성의 원리 – 겸양의 격률 ④ 협력의 원리 – 태도의 격률 ⑤ 공손성의 원리– 요령의 격률

03 요령의 격률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리는' 것이다.

04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해야 한다(요령의 격률).

오답 해설 ①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을 '최소화'한다(겸양의 격률). ② 상대방을 비방하는 표현을 '최소화'한다(찬동의 격률). ③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한다(관용의 격률). ⑤ 자신과 상대의 의견에서 공통점을 '최대화'한다(동의의 격률).

05 공손성의 원리 중 관용의 격률에 따라 나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줄여야 한다.

오답 해설 ② 관용의 격률 ③ 요령의 격률 ④ 동의의 격률 ⑤ 겸양의 격률, 찬동의 격률

06 이현은 상대인 윤희를 '한심하'고 '실력 없는 애'라고 비방하고 있다. 이는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려야 한다는 찬동의 격률에 어긋나는 말이다.

07 밑줄 친 부분은 짐 드는 일에 대한 상대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부담을 주는 표현으로, 요령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⑤는 '다른 일이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도와줄래?'와 같이 의향을 묻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부담을 줄이고 있으므로 공손성의 원리에 부합한다.

오답 해설 ①·③ 상대의 부담을 줄이고 있지 않다. ② 상대를 칭찬했다고 볼 수 있지만 부담은 줄이고 있지 않다. ④ 상대를 비방하면서 부담을 주고 있다.

Plus 〈참고〉

요령의 격률 사용 시 유의점

-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등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면서 부담을 줄여 표현함.
- 직접적인 명령보다는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함.

08 찬우는 저녁에 따로 시간을 내기로 하고, 강당 정리도 같이 하자며 자신이 부담을 지고 있다. 이는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은 늘린 것으로, 관용의 격률을 실천하며 말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지호는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줄이는 요령의 격률을, 찬우는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늘리는 관용의 격률을 지켜 말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말하는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고 있다. ②·④ 지호는 배드민턴 기본 동작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찬우의 의견을 물어보며 선택권을 부여하고(②), 강당 정리를 자청하며 찬우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④).

09 유미는 상대를 칭찬하는 표현을 늘리고 있고(찬동의 격률), 서준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다(겸양의 격률).

10 세아는 엄마의 요리 실력이 형편없다고 비방하고 있으므로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려야 한다는 찬동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11 서희는 같이 저녁을 먹기를 바라는 영민과 의견 차이가 있지만,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준 후 음료수를 마시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여 서로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있다(동의의 격률 준수).

오답 해설 ①·② 상대를 격려하는 표현(①)이나 모호한 표현(②)은 보이지 않는다. ④ 영민의 말에서 자신의 혜택은 줄이고 부담은 늘리는 관용의 격률을 지키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서희의 말에서 겸손한 표현이나 상대를 칭찬하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12 이 선생님은 상대에게 선택권이 없는 강한 명령형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이므로 요령의 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김 선생님은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배려하고 있다. ④ 김 선생님의 표현은 요령의 격률을 지키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게 된다.

13 부탁을 할 때는 상대가 부담을 덜 느끼도록 공손하게 말해야 한다. ⑤는 상대의 부담을 줄이고 있지 않으며 공손하지도 않다. 즉,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겸양의 격률을,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요령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에서는 '잠깐만', '좀', '들어 줄래', ②에서는 '가능하다면', '좀', '도와줄 수 있니', ③에서는 '네가 괜찮다면', ④에서는 '조금', '가르쳐 줄 수 있을까'와 같은 표현으로 상대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14 수빈이는 질문 형식으로 부탁하여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줄였고(㉠ – "잠깐만 시간 있어?~옮겨 줄 수 있을까?"), 상대방을 칭찬하는 표현(㉡ – "역시 넌 최고야!")과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 – "너도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등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은 〈보기1〉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은 공손성의 원리에 어긋난다.

15 유나는 도윤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다음 주가 결선이니까 보컬인 네가 제일 잘해야 해.")을 사용하여 요령의 격률을 어기고 있지만, 상대를 비방하고 있지는 않다. 도윤은 "박자 맞추기나 신경 써."에서, 연우는 "너희 모두 분발해야 해."에서, 준서는 "입 씨름할 시간에 연습을 하는 게 낫지 않아?"에서 모두 상대를 비방하며 찬동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네가 드럼으로 박자를 잘 잡아 줘야 내가 잘하지.", ③ "실력을 갖춘 사람은 기타 연주자인 나뿐인 것 같아.", ④ "정말, 너희를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16 ④는 '공손성의 원리' 중 동의의 격률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양의 격률 ② 관련성의 격률 ③ 질의 격률 ⑤ 태도의 격률로 모두 협력의 원리에 속한다.

17 은지는 석준의 말에 동의하는지 아닌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태도의 격률에 어긋난다.

오답 해설 ④ 요령의 격률은 협력의 원리가 아니라 공손성의 원리에 속한다.

18 대화의 맥락은 '모둠 발표 주제'를 정하는 것인데, 지은은 모둠 과제가 싫다거나 매점에 가자는 등 대화의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19 지은은 집에 가는 방편만 말해 주면 되는 대화 상황에,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양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③과 같이 조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관련성의 격률 ② 질의 격률 ④ 태도의 격률 ⑤ 공손성의 원리 중 관용의 격률

20 ⑤는 대화의 맥락에 맞는, 꼭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협력의 원리'를 지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② B는 A의 질문에 모호하게 대답하며 태도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③ B는 대화의 맥락과 맞지 않는 내용을 말하며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④ B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양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21 재훈은 준석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있으므로, 대화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어 대화해야 한다는 체면 유지의 원리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은 늘린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자신과 상대의 의견에서 다른 점을 늘리거나 공통점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대화의 맥락에 맞지 않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⑤ 친근하게 유대감을 나타내며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적극적 예의 전략)을 구사한 사람은 재훈이 아니라 윤희이다.

22 민지는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겸양의 격률을, 딸은 대화의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공손성의 원리를 위반한 것은 민지뿐이다. ② 협력의 원리를 위반한 것은 딸뿐이다. ⑤ 명수는 상대를 칭찬하면서 찬동의 격률을 지키고 있고, 어머니는 상대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상대의 부담을 줄이면서 요령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23 민규는 "이것 좀 태성이한테 갖다 줘."라는 명령형의 표현으로 종현의 부담을 늘리고 있으므로 ㉠(공손성의 원리 중 요령의 격률)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 이유를 묻는 종현의 말에 "말하기 귀찮아."라며 대화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을 지키지 않았다.

오답 해설 ㉥ 민규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지 맥락에 맞지 않는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24 담화 관습이 정착되는 경로를 '청소년 → 다른 세대'로 한정지을 수는 없다.

25 〈보기〉의 일화에서 김 선생은 '닭을 잡아 안주로 내어 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고 [A]에서와 같이 돌려서 말하고 있다. 친구의 인색함에 대해 해학적으로 대응하면서 친구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로 말을 잡겠다는 뜻이 아니므로 [A]를 통해 자신의 대범함을 과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Plus 〈보기〉 **태평한화골계전**_서거정

갈래	설화, 패관 문학
성격	해학적, 풍자적
주제	주인의 인색함 대접을 재치 있는 말로 해결함.
특징	• 돌려 말하는 우리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 잘 드러남. • 해학적 표현으로 대상을 풍자함.

26 '부엌'과 '주방'은 유사한 의미를 지닌 말들일 뿐, '직설적으로 말할 때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완곡하게 돌려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27 실제로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아주 잘 차렸으면서도 차린 게 없다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이는 대화할 때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자신에 관한 칭찬을 줄이고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하는 '겸손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이 반영된 것이다.

28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는 '마음속으로만 애태울 것이 아니라 시원스럽게 말을 하여야 한다.'는 말로, 오히려 말을 권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서 설명한, 신중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이것저것 많이 늘어놓으면 그만큼 쓸 말은 적어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라는 말. ③ 집안에 잔말이 많으면 살림이나 모든 일이 잘 안 된다는 말. ⑤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 말을 삼가라는 말.

29 외국어 합성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오늘날 청소년의 담화 관습 중 하나이지만 〈보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시선 강탈'을 '시강'으로 줄여 표현하고 있다. ② 'ㅠ_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ㅉㅉ, ㅋㅋ'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첫 번째 말 이후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 'ㄱㅊ'을 한 사람은 '강추'로, 다른 사람은 '괜찮(다)'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형태가 완전하지 않은 말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혼란이 생긴 것이다.

31 ④는 날이 샜다고 울어야 할 수탉이 제구실을 못하고 대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뜻으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제쳐 놓고 떠들고 간섭하면 집안일이 잘 안 된다는 말이다. 이는 여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담긴 속담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②

잘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사람이 글자를 모르거나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아무리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거나 손쉬운 일이라도 힘을 들이어 이용하거나 하지 아니하면 안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2 ②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개선'과는 거리가 먼 예이다.

오답 해설 ① 다양한 피부색을 존중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된 표현이다. ③ 동물을 애완의 대상이 아니라 반려로 여기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된 표현이다. ④ 장애가 없는 사람을 정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비정상으로 여기는 시각을 부정한 것으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된 표현이다. 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담긴 표현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된 것이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92~097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②	05 ④	06 ④	07 ②	08 ⑤
09 ①	10 ①	11 ②	12 ①	13 ③	14 ④	15 ①	16 ①
17 ③	18 ③	19 ②	20 ④	21 ②	22 ③	23 ⑤	24 ③

01 자신의 체면이 아니라 대화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어 대화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관련성의 격률 ③ 양의 격률 ⑤ 태도의 격률

02 새별이는 '사랑'을 주제로 하자는 진아의 의견에 대놓고 반대하고 있다. 이는 자신과 상대의 의견에서 다른 점은 줄이고 공통점은 늘린다는 동의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Plus 〈참고〉

동의의 격률 사용 시 유의점

- 상대의 의견 중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현하고 순차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함.
- 완충적인 표현이나 선택권을 부여하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함.

03 ㉠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면 이런 표현을 줄여야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해설 나머지 선택지도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다.

04 찬우는 지호의 자세를 칭찬하면서 꾸준히 연습하면 잘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다.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칭찬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찬동의 격률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호는 자신이 부족한 점이 많다며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다.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겸양의 격률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지호는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③ 찬우는 상대를 비방하지 않았고, 지호도 자신을 칭찬하지 않았다. ④ 찬우는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지호는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최대화'하였다. ⑤ 찬우는 상대를 칭찬하는 표현을 '최대화'하였다.

05 자신을 칭찬하는 상대의 말에 대해,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겸양의 격률을 지켜 대답해야 하므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며 자신을 낮추고 상대가 열심히 해서 잘된 거라며 상대를 칭찬하고 있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③, ③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6 수경은 선생님이 준 자료가 너무 어렵다며 선생님을 탓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에게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상대에게 건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표현하는, 즉 자신의 부담을 최대화하는 관용의 격률을 지켜 말하는 것이 좋다. "선생님, 발표할 때 활용하라고 주신 자료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혹시 조금 쉬운 자료로 찾아 주실 수 있을까요?"와 같이 말하는 것이 좋다.

07 공손성의 원리 중 요령의 격률에 따라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려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관용의 격률 ③ 요령의 격률 ④ 동의의 격률 ⑤ 찬동의 격률, 겸양의 격률

08 〈보기1〉에서 제시한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는 요령의 격률과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관용의 격률 두 가지이므로 여기에 부합하는 대답을 찾는다. ⑤에서는 '제가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속상하셨죠?'라며 아버지의 마음이 상한 원인이 자신의 행위에 있다고 밝힌 후 '제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다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즉, 아버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아버지에게 우리 세대를 잘 모른다며 비방하고 시대가 달라졌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③, ④ '제가 불손하게 행동해서 놀라셨죠?'(②), '제가 건방지게 굴어서 당황하셨죠?'(③), '그래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한 건 죄송해요.'(④)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듯하지만, '아버지께서 제 취향을 몰라주신 게 화가 나서 그랬어요.'(②), '아버지께서 심하게 혼내셔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③), '아버지께서 평소에 자주 소리치고 화를 내셔서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④)에서는 자신이 잘못한 행동의 원인을 아버지에게서 찾으며 아버지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9 "네가 조장인데 당연히 네가 해야지."에서는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사용하여 요령의 격률을 어기고 있고, "너는 책임감도 없냐?"에서는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찬동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10 "니 중앙고로 오믄 바로 주전으로 뛰게 해 줄게.", "선수는 자꾸 경기를 뛰 봐야 실력이 는다 아이가."에서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리고 있으므로 요령의 격률을 지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니 불러 주는 데도 별로 없다카데.", "그캐도 딴 데 가믄 주전 뛰기는 쉽지 않을 기다."에서는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려야 한다는 찬동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11 '괜찮아. 이제 막 시작했어.'라는 '학생 1'의 발화는 회의에 늦은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발화이므로 ㉮에 해당한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나도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해. 하지만 ~ 더 커 보여.'라는 '학생 2'의 발화는 상대방과 의견이 다름을 제시하기 전에 공통되는 의견부터 말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③ '두 관점이라니 무슨 말이야?'라는 '학생 3'의 발화는 대화에 늦게 참여하여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

므로, ㉯에 해당한다. ④ '방금까지 청소년의 팬 상품 소비에 대해 ~ 논의 중이었어.'라는 '학생 1'의 발화는,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학생 3'에게 회의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⑤ '학생들이 ~ 괜찮다면 두 관점의 내용을 모두 글에 담아 줄 수 있어?'라는 '학생 3'의 발화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명령형으로 표현했을 때보다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12 〈보기〉에서 아빠는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겸양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①의 은미도 자신의 글씨가 악필이라며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민정은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늘리는 관용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③ 광수는 상대에 대한 칭찬을 늘리는 찬동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④ 경래는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줄이는 동의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⑤ 경희는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줄이는 요령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13 ㉢에서 지훈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하면서 용우가 편하게 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제의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지훈은 질문의 형식으로 용우의 의사를 물어봄으로써 용우가 대화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② 용우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부각하여 용우가 동아리에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시키고 있다. ④ 용우의 의견을 먼저 인정한 다음, 규현의 생각도 인정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혀 용우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지훈의 칭찬에 대해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4 ④는 체면 유지의 원리 중 적극적 예의 전략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양의 격률 ② 질의 격률 ③ 관련성의 격률 ⑤ 태도의 격률

15 판사는 담화 상황 및 청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할 때 승준이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의 격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④ 판사는 윤주의 말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질의 격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승준에 대해서는 질의 격률과 관련된 지적을 하고 있지 않다.

16 점심 메뉴를 묻는 민준의 질문에 대해 은채는 아침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벗어난 내용(⑤)이며, 대화의 맥락에도 맞지 않는다(③). 또한 듣는 사람이 요구하지 않은 정보(④), 불필요한 정보(②)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 있었던 일인 만큼 타당한 근거가 없는 정보로는 볼 수 없다(①).

17 준영은 상대의 말을 가로챘으며,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불필요한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제공함.)과 관련성의 격률(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발언함.)을 어기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회장은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했으며,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다. ② 준영은 회장의 말을 가로챘고 관련성의 격률도 어기고 있다. 그러나 말을 가로챘기 때문에 관련성의 격률을 어긴 것은 아니며, 이는 순서 교대의 원리를 어긴 것에 해당한다. ④ 세원은 대화의 주제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여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을 지키지 않았다. ⑤ 세원의 발언 중 중의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Plus 〈참고〉

순서 교대의 원리
순서를 적절히 교대해 가면서 말을 주고받는 것으로, 대화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역할을 교대하며 말을 이어 가는데 이러한 말의 교환을 '순서 교대'라고 한다.

순서 교대 원리를 지켜 말하는 방법
• 혼자만 오랫동안 말하지 않는다. • 침묵만 지키지 않고 대화에 적절하게 참여한다. • 다른 화제를 꺼내서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18 ③의 A와 B는 상황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내가 청력이 안 좋아서',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았나 봐') 공손성의 원리 중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늘리는 관용의 격률을 지켜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B는 자신을 칭찬함으로써 공손성의 원리 중 겸양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② B는 상대의 의견과의 차이점을 부각함으로써 공손성의 원리 중 동의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④ B는 상대를 비방함으로써 공손성의 원리 중 찬동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⑤ B는 형과 동생의 나이라는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19 (가)의 A는 친근하게 유대감을 나타내거나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적극적 예의 전략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가)의 발화자들은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반면, (나)의 발화자들은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여 대화하고 있다. ③ (나)의 A는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으면서 의사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소극적 예의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가)의 A는 상대에게 강요하고 명령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체면 유지의 원리를 어기고 있다. ⑤ (나)의 B는 개인적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라고 유감을 표현하며 소극적 예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Plus 〈참고〉 체면 유지의 원리

적극적 예의 전략
친근하게 유대감을 나타내며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소극적 예의 전략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개인적 권리를 침해한 것에 관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의 표현으로 유감을 표현한다.

20 담화 관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거나 바뀌기도 하고, 시대에 맞춰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시대가 변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1 출연자는 '혁명적 존재'라는 뉴스 진행자의 칭찬에 '과찬(지나친 칭찬)의 말'이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22 ③은 잔디를 밟지 말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잔디가 아프다며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⑤의 '아파요'는 ③의 '아파요'와 그 성격이 다르다. 즉, 자신의 마음이 슬픈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23 신중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에 대해 이야기한 글이다. 글쓴이는 꼭 필요한 말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말,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 진실이 아닌 말, 바르지 못한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감정을 드러내는 말'에 대한 언급은 없다.

24 〈보기〉의 청소년들은 줄임말과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고 문장을 명사로 끝맺는 등 간결한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현강, 인강 등 ② 절친 ④ 힘들힘들, 괜안 ⑤ 인강, 귀차니스트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98쪽

01 (1) 공손성, 요령 (2) 공손성, 찬동 (3) 협력, 관련성 (4) 협력, 태도 02 (1) 내가 짐이 많아서 그런데, 괜찮다면 짐 좀 나눠 들어 줄 수 있을까? (2) 시험에 긴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너는 국어 실력이 훌륭하고 평소에도 열심히 공부했잖아. 시험 잘 볼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3) 그래, 좋은 생각이야.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4) 좋은 생각이야. 스파게티 어때? 03 (1) 돌려 말하기, 겸손하게 말하기, 신중하게 말하기 등 (2) 줄임말 사용, 신조어 사용, 이모티콘 사용, 초성만으로 의미를 전달함. 등

02 (1)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줄여야 한다.
(2)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을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을 늘려야 한다.
(3) 모둠의 발표 주제로 삼을 만한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4) 자신의 의견을 명료하게 드러내야 한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9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04 공손성의 원리 중 관용의 격률은, 자기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은 늘리는 것이다.

05 공손성의 원리 중 찬동의 격률은,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리는 것이다.

09 협력의 원리 중 태도의 격률은,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10 소극적 예의 전략도 체면 유지의 원리에 따른 방법이다.

02 함께하는 국어생활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02~107쪽

01 ① 02 ④ 03 ① 04 ④ 05 ⑤ 06 ④ 07 ④ 08 ⑤
09 ② 10 ③ 11 ⑤ 12 ⑤ 13 ② 14 ① 15 ② 16 ②
17 ① 18 ③ 19 ③ 20 ① 21 ③ 22 ② 23 ③ 24 ③

01 언어 공동체는 지역, 세대, 성, 문화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집단'은 지역에 따른 언어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설명으로, 언어 공동체의 일반적 정의로는 볼 수 없다. 지역이 달라도 세대, 성, 문화 등을 공유하면 같은 언어 공동체로 분류될 수 있다.

02 '동화(同化)'는 '성질, 양식, 사상 따위가 다르던 것이 서로 같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다른 공동체의 동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다른 공동체를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같게 만든다는 것으로, 공동체의 다양성을 없앤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은 공동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이다.

03 글쓴이는 한국어를 강의하면서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진정한 소통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상대와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그러한 상대의 모습에 대한 편견 없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성찰을 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다양한 학습 동기를 나열하고 있을 뿐 한국어의 우수성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④ 나와 다른 상대의 모습을 편견 없이 바라보아야 함을 말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비판이나 반성 촉구는 드러나 있지 않다.

04 ㉡은 가족 구성원이 한국인이므로 '한국의 가족 문화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한국의 주거 문화'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05 ⑤는 상황에 맞는 말에 대한 질문으로, '친족어와 호칭어, 높임 표현'에 관한 질문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④ 높임 표현에 대한 질문이다. ①은 "어머니(님) 진지 드세요.", ④는 "너의 아버지(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셨어?"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답할 수 있다. ②·③ 친족어와 호칭어에 대한 질문이다. ②는 "조카 또는 처조카", ③은 "시할아버지 또는 시조부"라고 불러야 한다고 답할 수 있다.

06 각각 소속된 집단(언어 공동체)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사가 다르고 궁금해하는 점도 다른 것이다.

07 '억세게 느껴지는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③ '직업'은 문화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08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편견 없이 대하는 자세와 거리가 멀다.

09 지역에 따른 언어 공동체의 차이가 소통의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다. 아버지의 고향, 어머니의 고향이 각각 다른 언어 공동체를 형성하여 부추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에 표준어를 사용하

는 아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10 엄마의 고향 사람들은 같은 사투리를 사용하는 하나의 언어 공동체에 속하므로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해진다.

오답 해설 ① 엄마의 고향 사람들은 같은 사투리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로 볼 수 있다. ②, ④, ⑤ 같은 언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기 쉽지만 반면 다른 언어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기 쉽고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11 민지와 할아버지는 세대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 공동체에 속한다. 민지 세대의 언어 공동체는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할아버지 세대의 언어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민지가 이런 할아버지 세대의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배려하지 않고 줄임말을 사용하여 말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지 못한 할아버지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12 ⓔ는 자신의 언어 공동체를 기준으로 상대가 속한 언어 공동체를 평가하는 태도로, 언어 공동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볼 수 없으므로 진정한 소통의 자세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는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소통의 자세이다.

13 할아버지와의 대화 경험을 바탕으로 세대 차이를 배려하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이다. 제목은 글의 내용을 압축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할아버지의 대화법'은 세대 간의 소통이라는 의미가 담기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4 (가)는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로 인해 곤란을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북한 사람들 간의 대화인데, 남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사투리나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남한과 북한의 언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오답 해설 ②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지만, (가), (나)로부터 추리할 수는 없다. ③ 북한에도 다양한 언어 공동체가 존재하며, (가), (나)로부터 추리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 ④·⑤ (가), (나)로부터 공통적으로 추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15 (가)의 글쓴이는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로 인해 남한 학생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탓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

16 ㉠은 남한의 언어에 서툰 글쓴이를 배려하지 않았고, 점수를 낮게 받을까 염려하여 글쓴이를 따돌린다. 따라서 다른 언어 공동체의 사람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았고(④·⑤) 차별적으로 대했으며(①) 의사소통의 효율성만을 중시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무관심'했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③ 자신의 점수에만 집착하므로 이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7 남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사투리와 단어('전초선'), 남한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말('일없습니다') 등을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으므로 남한의 시청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즉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가 의미 파악에 있어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18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남한 또는 북한의 언어 하나만을 기준으로 삼는 자세는 적절하지 않다.

19 (가)에서 오늘날이 다문화 시대임을 강조하고 (나), (다)에서 그런 다문화 시대를 사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자기중심적 자세)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 시대를 성숙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함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문제점 열거'나 '극복 방안의 제시'는 보이지 않는다. ④ 다문화 시대의 도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따라서 '예견(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함.)'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⑤ '고유문화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 (가)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라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는 주장을 이끌어 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가)에서는 '오늘날 우리는 다문화 시대를 얼마만큼 성숙하게 살고 있을까?'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나), (다)에서 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③ (나)와 (다)는 모두 자기중심적 태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상반된 모습의 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나)가 구체적인 사례인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잘못된 태도를 조명한 것이지 다문화 시대의 부작용을 조명한 것이 아니다. ⑤ (다)에 인용된 말은 권위자의 말로 볼 수 없다.

21 (나)와 (다)는 자신이나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태도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글쓴이는 이런 태도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다문화 시대를 성숙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②·④·⑤는 모두 자기 문화를 중심에 두는 태도이다.

22 글쓴이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다문화 시대를 성숙하게 살아가는 태도임을 암시하고 있다.

23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한 상황에서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만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의사소통하다 보면 갈등과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어 주체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언어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또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차별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24 민수는 외국인인 마이클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려하지 못했으므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⑤ 서로 다른 언어 공동체에 속한 인물들(민수·은지/마이클)이 대화하는 상황에서 담화 관습의 차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② '밥 한번 먹자'는 민수의 말을 은지는 반갑다는 의미로, 마이클은 표면적 의미 그대로 식사를 함께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④ 한국인인 은지는 민수와 동일한 담화 관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수의 말을 반갑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08~111쪽

01 ④	02 ⑤	03 ③	04 ③	05 ③	06 ③	07 ②	08 ①
09 ③	10 ③	11 ①	12 ④	13 ⑤	14 ④	15 ⑤	

01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쉬운 것은 같은 언어 공동체에 속한 경우이다.

02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삼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03 (가)에서 윤서와 강산은 10대 청소년들의 언어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소통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줄임말(①)과 신조어(②)를 많이 사용하고, 문장을 명사로 끝맺는(④) 등 간결한 표현(⑤)을 선호하는 것이 그것이다. 한편, 10대 청소년들끼리는 일반적으로 격식을 갖추어 말하지 않는데, 두 사람의 대화 역시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 준다.

04 강산은 친구인 윤서와 대화할 때는 줄임말과 같은 자기 세대의 화법을 구사하였지만, 세대가 다른 담임 선생님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을 고려하여 완전한 형태의 말을 사용하고 있다. (나)에서는 다른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가)에서는 같은 언어 공동체에 속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다른 공동체를 존중하는 태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05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나정과 서울말을 사용하는 칠봉, 즉 지역에 따라 구분되는 서로 다른 언어 공동체에 속한 두 사람의 대화이다. 나정은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에 따라 '맞나'라는 말을 맞장구나 동조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칠봉이 이 관습을 이해하지 못해서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성'이 아니라 '지역'이다. ②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지 못하다. ④ 칠봉이 나정에 대해 차별과 편견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나정은 칠봉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말하고 있지 않다.

06 ㉠, ㉢, ㉤은 모두 동조나 맞장구의 표현으로, '그랬구나.'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반면 '음식 맛이 내 입에 맞는다.'는 음식의 맛이 익숙하거나 마음에 든다는 의미이므로 ㉢과 같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칠봉은 나정이 단순한 맞장구의 표현으로 ㉠과 같이 말한 것을 라면을 십 년째 끓였다는 자신의 말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간주하여 ㉡과 같이 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7 민주가 할머니 세대의 담화 관습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긴 상황이다. 곧 세대에 따라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볼 수 있다.

08 (가)의 '아버지'는 '딸'과 대화할 때와는 달리 '숙부'와 대화할 때는 '숙부'를 배려하여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나)의 '의사 1'은 '의사 2'와 대화할 때는 의사 집단에서 사용하는 전문어를 사용하여 대화했지만 '환자'와 대화할 때는 환자를 배려하여 알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대화 상대가 속한 언어 공동체를 고려하여 말한 것으로, 언어 공동체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가)의 '아버지'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③ 언어 공동체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갈등을 없애고 있다. ④ 대상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대상을 배려하고 있다. ⑤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존중한 것이지 변화시킨 것이 아니다.

09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딸과의 대화를 중단시킨 것이지 '고의로' 중단시킨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에 '다른 언어 공동체에 대한 거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도 아니다.

10 '의사 2'는 '의사 1'의 물음에 대해 꼭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오답 해설 ④ '환자'는 '수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에서 상대를 칭찬하는 표현을 늘리고 있다. ⑤ '의사 1'은 '저나 되니까 할 수 있는 수술이지요.'에서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공손성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

11 〈보기〉는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의 '딸'이 '오늘 동생이랑 뭐 먹었니?'라는 아버지의 물음에 대해 어제 놀이공원에서 가수를 본 일을 이야기함으로써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12 줄임말이나 신조어를 즐겨 사용하는 아들 세대와,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 세대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두 사람의 소통이 원활해지려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들인 '주원'에게 조언할 말은, 엄마 세대의 담화 관습을 고려해서 말했어야 한다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질의 격률, ② 관용의 격률, ⑤ 주원이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줄여야 한다는 요령의 격률은 어긴 것은 아니다. 주원은 "엄마랑은 정말 말이 안 통해요."라고 함으로써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을 줄여야 한다는 찬동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소통의 장애를 초래한 원인은 아니다.

13 〈보기〉는 지역에 따른 언어 공동체의 차이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⑤가 지역에 따른 언어 공동체의 차이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오답 해설 ① 직업, ②·③ 세대, ④ 성에 따른 차이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14 〈보기〉는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를 보여 준다. 이런 이질화는 남북한이 거리감을 느끼거나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면서 동질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때 유의할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남한이나 북한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다른 쪽의 변화만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④는 남한을 기준으로 북한의 변화만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15 〈보기〉는 다문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오해를 보여 주고 있다(①). '○○○ 씨'는 자기 문화의 관습에 따라 손님을 대접한 것인데(④), 이를 모르는 '손님'이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 씨'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②), '손님'에게는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③) 볼 수 있다. 그러나 '○○○ 씨'가 한 행동은 자기의 문화 관습에 따른 것일 뿐 '손님'의 문화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그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도 아니므로 ⑤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12쪽

01 (1) 세대 (2) 지역 02 ㉠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을 기준으로 상대가 그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03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다른 언어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언어 공동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소통해야 한다.

01 (2) '일없다'라는 단어를 남한과 북한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언어 차이는 지역에 따른 언어 공동체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02 '한국 사람 다 되었다'는 표현은 상대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그러므로 자신과는 다르다는 뜻을 함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로 마무리 check

본문 11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010 ○ 11 ○ 12 × 13 ○

01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언어 공동체가 될 수 있다.

08 사투리는 다른 지역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 공동체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12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남한이나 북한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올바른 언어생활

01 음운의 변동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18~125쪽

01 ③	02 ③	03 ④	04 ③	05 ①	06 ④	07 ②	08 ④
09 ⑤	10 ③	11 ①	12 ④	13 ⑤	14 ③	15 ③	16 ③
17 ④	18 ①	19 ④	20 ④	21 ①	22 ②	23 ③	24 ②
25 ⑤	26 ⑤	27 ⑤	28 ⑤	29 ④	30 ①	31 ④	32 ④
33 ③	34 ⑤	35 ①	36 ⑤	37 ④	38 ④	39 ④	40 ②
41 ⑤	42 ④	43 ⑤	44 ①				

01 두음 법칙이나 모음 탈락 같은 음운 변동은 표기에도 반영된다. 또한 첨가나 축약, 탈락 등의 음운 변동에 따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오답 해설 ⑤ 된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ㅅ, ㅈ'이 'ㄲ, ㄸ, ㅃ, ㅆ, ㅉ'으로 바뀌는 교체로서,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지만, 거센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쳐지는 축약으로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02 '산림[살림]'은 'ㄴ'이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인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경우로, 유음화의 예이다.

오답 해설 ① 국민[궁민]: 'ㄱ'이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인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비음화). ② 밥물[밤물]: 'ㅂ'이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인 'ㅁ'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비음화). ④ 듣는다[든는다]: 'ㄷ'이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인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비음화). ⑤ 줍는다[줌는다]: 'ㅂ'이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인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비음화).

03 '권리[궐리]'는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농작물[농장물]'은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로, '비음 'ㅁ'의 영향으로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신라[실라], 훈련[훌:련], 물난리[물랄리], 불나방[불라방]'은 모두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로, 'ㄴ'이 유음 'ㄹ'을 만나 'ㄹ'로 바뀌어 소리 난다.

04 ㉠ '굽는'은 [굼:는]으로 소리 나므로 비음화, ㉡ '원리'는 [월리]로 소리 나므로 유음화에 해당한다. 비음화와 유음화는 모두 동일한 조음 위치에서 조음 방법만 바뀌는 현상이다.

오답 해설 ① 비음화와 유음화는 음운이 바뀌는 교체에 해당한다.

05 '식물[싱물]', '입는[임는]', '뜯는[뜬는]'은 각각 'ㄱ, ㅂ, ㄷ'이 'ㅁ, ㄴ, ㄴ' 앞에서 'ㅇ, ㅁ, ㄴ'으로 바뀐 것이다. 이를 〈보기〉의 자음 분류표에서 살펴보면,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뀐 것임을 알 수 있다. 세 경우 모두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앞 자음의 조음 방식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변한 것이다.

06 '놓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놀는]이 되었다가 비음화에 따라 [논는]이 된다.

오답 해설 ① '끝까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끋까지]가 되지만,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② '부엌도'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에 따라 [부억또]가 된다. ③ '눈약'은 'ㄴ' 첨가에 따라 [눈냑]이 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덮밥'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에 따라 [덥빱]이 된다.

07 '진리[질리]'는 'ㄴ + ㄹ → ㄹ + ㄹ'과 같이 유음 앞의 'ㄴ'이 유음으로 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설날[설:랄]', ③ '물놀이[물로리]', ④ '실내화[실래화]' ⑤ '불나방[불라방]'은 모두 'ㄹ + ㄴ → ㄹ + ㄹ'과 같이 유음 뒤의 'ㄴ'이 유음으로 변하는 경우이다.

08 '국내[궁내]', '박물관[방물관]', '백마강[뱅마강]'은 비음화가, '관람[팔람]', '한라산[할:라산]'은 유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 ㉡, ㉣을 비음화, ㉢, ㉤을 유음화로 묶을 수 있다.

09 '등산로, 생산량'은 2음절의 한자어 뒤에 'ㄹ'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로,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등살로], [생살량]으로 발음하지 않고 [등산노], [생산냥]으로 발음한다.

오답 해설 ① '산림, 물난리'와 ② '난로, 실내화'는 모두 2음절의 한자어 뒤에 'ㄹ'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가 아니다. 따라서 모두 유음화가 일어나 각각 '[살림], [물랄리], [날로], [실래화]'로 발음한다. ③ '이원론[이:원논]'만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불나방'은 유음화가 일어나 [불라방]으로 발음된다. ④ '추진력[추진녁]'만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줄넘기'는 유음화가 일어나 [줄럼끼]로 발음된다.

Plus 〈참고〉

'ㄹ'의 비음화

'ㄹ'이 'ㄴ' 뒤에 오지만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2음절의 한자어 뒤에 'ㄹ'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때 유음 'ㄹ'이 비음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ㄴ + ㄹ → ㄴ + [ㄴ]'

예 상견례[상견녜], 생산량[생산냥], 의견란[의:견난], 횡단로[횡단노]

10 구개음화는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ㅈ,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이다. '굳이[구지], 여닫이[여:다지], 쇠붙이[쇠부치]'가 이에 해당한다. '마디'는 'ㄷ'이 모음 'ㅣ'와 만나지만 하나의 형태소 안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높낮이'는 'ㅈ'이 모음 'ㅣ'와 만나 연음된 것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Plus 〈참고〉

구개음화의 조건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이어지는 환경에서 일어난다.

예 • 갈-(어간, 실질 형태소) + -이(접미사, 형식 형태소) = [가치] → 구개음화가 일어남.
• 잔디(하나의 형태소) = [잔디](○) [잔지](×) →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음.
• 밭(실질 형태소) + 이랑(실질 형태소) = [반니랑](○) [바치랑](×) →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음.

11 '해돋이'는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난 경우이므로 구개음화에 따라 [해도지]로 발음한다.

오답 해설 ② '부치기'는 '부치다(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게 하다.)'에서 온 말이다. '붙이다[부치다]'와 달리 'ㄷ, ㅌ'이 없는 말이므로 구개음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③~⑤ 'ㄷ, ㅌ' 뒤에 이어지는 형식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지 않으므로 구개음화 없이 각각 [도다], [해(핸)뼈틀], [바틀]로 발음해야 한다.

12 ㉠ 학교[학꾜]: 된소리되기, 교체 ㉡ 같이[가치]: 구개음화, 교체 ㉢ 좋아[조:아]: ㅎ 탈락, 탈락 ㉣ 같은[가튼]: 음운 변동 없음.

오답 해설 ① ㉠의 된소리되기는 교체이다. 'ㄱ'이 'ㄲ'으로 바뀐 것이지 'ㄱ'에 'ㄱ'이 첨가된 것이 아니다. 쌍받침은 하나의 음운이다. ⑤ ㉣은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결합이지만, 형식 형태소인 '은'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Plus 〈참고〉

쌍받침과 겹받침

간혹 쌍받침을 두 개의 음운이 결합한 것으로 착각하여 문제를 잘못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는 쌍받침과 겹받침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이다.
'국어의 음운은 자음 19개, 모음 21개로 총 40개이다. 이 중 국어의 자음 체계 속에 포함되는 'ㄲ, ㄸ, ㅃ, ㅆ, ㅉ' 등의 쌍받침은 각각 하나의 음운이지만, 'ㄳ, ㄺ' 등의 겹받침은 두 개의 음운으로 본다.

예 • 볶- → 'ㄲ'은 하나의 음운
• 맑- → 'ㄺ'은 두 개의 음운

13 ㉠ 발(실질 형태소) + 이랑(실질 형태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받이랑]으로 바뀌고 이후 'ㄴ'이 첨가되어 [받니랑]이 되고 다시 비음화를 거치면서 [반니랑]이 된다. 따라서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 발(실질 형태소) + 이랑(형식 형태소): 구개음화로 인해 [바치랑]이 된다.

오답 해설 ① ㉡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④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뒤 유음화가 아니라 비음화가 일어난다.

14 ⓐ '끝인사'의 '인사'는 실질 형태소이다. ⓑ '곧이'의 '-이'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고지]로 발음된다. ⓒ '곧이어'의 '이어'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고디어]로 발음된다.

15 구개음화는 'ㄷ, ㅌ'이 'ㅈ, ㅊ'으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은 'ㅎ'이 탈락한 후 'ㄷ'이 'ㅊ'으로 교체된 것이 아니다. 'ㅎ'이 'ㄷ'과 합쳐져 'ㅌ'이 된 후 다시 'ㅊ'이 된 것이다. 즉 '굳히다'는 거센소리되기(축약)에 의해 [구티다]가 된 후 구개음화에 따라 [구치다]로, '닫히다' 역시 거센소리되기(축약)에 의해 [다티다]가 된 후 구개음화에 따라 [다치다]가 된 것이므로, 'ㅎ'이 탈락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6 '솥에'의 '에'는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가 아니다. 따라서 '솥에'는 연음이 되어 [소테]로 발음된다. 반면 '솥이'의 형식 형태소(조사) '이'는 모음 'ㅣ'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 [소치]로 발음된다.

17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어의 원래 형태를 지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② 된소리되기는 음운 교체 현상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음운의 개수에는 변함이 없다. ⑤ 'ㄹ'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올 때 된소리되기가 나타나는 것은 한자어 단어이다.

18 '신고'는 '신- + -고'로, 'ㄴ'으로 발음하는 어간 받침 뒤에 첫소리가 'ㄱ'인 어미가 온 경우이다. 따라서 ㉠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 ③ ㉠ ④ ㉡ ⑤ ㉢에 각각 해당한다.

19 각각 [막꾹쑤], [국빱], [불고기덥뻡], [육깨장]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된소리되기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① 비음화, ② 유음화, ③ 두음 법칙 ⑤ 거센소리되기는 제시된 단어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20 '놓지'는 [노치]로 발음되는 것으로, 'ㅎ'과 'ㅈ'이 합쳐져 'ㅊ'으로 소리 나는 거센소리되기(축약)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밥상[밥쌍]'은 'ㄱ, ㄷ, ㅂ'으로 발음하는 받침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오는 경우이다. ②, ⑤ '갈 수[갈쑤]'와 '기댈 데는[기댈떼는]'은 관형사형 어미'-(으)ㄹ'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오는 경우이다.

21 ①의 '물질'은 '주로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따는 일'을 뜻하는 고유어로, 한자어 '물질(物質)[물찔]'과 달리 'ㄹ' 뒤에 'ㅈ'이 오더라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감:떤]: 어간 '감-'의 받침 'ㅁ' 뒤에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 '-던'이 연결되어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③ [만날싸람]: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ㅅ'이 와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④ [국끼]: 받침 'ㄱ' 뒤에 'ㄱ'이 와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⑤ [어찌할빠]: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ㅂ'이 와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22 '덮개'는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받침 'ㅍ'이 대표음 'ㅂ'으로 바뀌어 [덥개]가 되고, 이어서 된소리되기에 의해 'ㅂ' 뒤의 'ㄱ'이 'ㄲ'으로 바뀌어 [덥깨]로 소리 난다.

오답 해설 ①·④ 된소리되기만 일어난다. ③ 비음화만 일어난다. ⑤ 구개음화만 일어난다.

23 '연세'의 '연'은 '년(年)'에서 'ㄴ'이 탈락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④ '내일'의 '내'는 '래(來)'의 'ㄹ'이 'ㄴ'으로 교체된 것이다.

24 파생어는 '덮개, 짓밟다' 등과 같이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이다. 〈보기〉의 밑줄 친 말 중 두음 법칙이 일어난 것은 ㉠의 '연간(年間)'과 ㉣의 '이익(利益)'인데, 두 단어는 모두 파생어가 아니다. 따라서 ②와 같이 말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파생어는 두음 법칙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고유어인 ㉤ '나글거린다'와 외래어인 ㉥ '라디오 뉴스'에서는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 '연간(年間)'은 '년간(年間)'에서 'ㄴ'이 탈락한 형태가 표기에 반영되어 있고, ㉣ '이익(利益)'은 '리익(利益)'에서 'ㄹ'이 탈락한 형태가 표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의존 명사인 ㉡의 '년(年)'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리(利)'가 ㉢ '금리(金利)'와 같이 둘째 음절에서는 제 소리대로 발음되지만, ㉣ '이익(利益)'과 같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 법칙에 의해 'ㄹ'이 탈락된 것에서 알 수 있다.

25 〈보기〉는 특정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음운에 변동이 생기는 현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두음 법칙에 해당한다. ⑤는 '률(率)'이 '비율(比率)'에서와 같이 모음이나 '출산율(出産率)'에서와 같이 'ㄴ' 받침 뒤에서 '율'이 되는 경우로, 단어 첫머리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인 두음 법칙과는 다르다.

26 〈보기〉의 '아파요'에서 '아파'는 용언의 어간 '아프-'에 어미 '-아'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모음 'ㅡ'가 탈락한 것으로, 모음 탈락에 해당한다. ⑤의 '커서'도 어간 '크-'에 어미 '-어서'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모음 'ㅡ'가 탈락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울- + -어 → 울어[우러](음운 변동 없음.) ② 알- + -는 → 아는[아는](ㄹ 탈락) ③ 안- + -고 → 안고[안:꼬](된소리되기) ④ 놓- + -으니 → 놓으니[노으니](ㅎ 탈락)

27 '놓인다[노인다]'는 ㅎ 탈락이 맞지만, '낳고[나코]'는 'ㅎ'이 탈락한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ㄱ'과 만나 'ㅋ'으로 축약된 것으로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서라'는 '서- + -어라'에서, '건너서'는 '건너- + -어서'에서 'ㅓ'가 탈락하였다. ② '가서'는 '가- + -아서'에서, '탔다'는 '타- + -았- + -다'에서 'ㅏ'가 탈락하였다. ③ '예뻐'는 '예쁘- + -어'에서, '썼어'는 '쓰- + -었- + -어'에서 'ㅡ'가 탈락하였다. ④ '사는'은 '살- + -는'에서, '무는'은 '물- + -는'에서 'ㄹ'이 탈락하였다.

28 '기뻐서'는 '기쁘- + -어서'에서 모음 'ㅡ'가 탈락한 것이다.

29 '하얗게[하:얘케]', '시작합니다[시:자캄니다]', '잡히지[자피지]', '놓지[노치]', '축하합니다[추카함니다]'에서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쳐져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소리 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있다.

30 【조건1】은 거센소리되기, 【조건2】는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갇히다'는 예사소리 'ㄷ'과 'ㅎ'이 만나 [가티다]로, 다시 'ㅌ'과 모음 'ㅣ'가 만나 [가치다]로 발음된다. 따라서 '갇히다'는 거센소리되기와 구개음화가 차례로 일어나면서 【조건1】과 【조건2】를 모두 만족하는 단어이다.

오답 해설 ② 자음 'ㅎ'이 탈락하면서 [노이다]로 발음된다.(자음 탈락) ③ 예사소리 'ㄱ'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ㅋ'으로 축약되어 [마키다]로 발음된다.(거센소리되기) – 【조건1】만 만족 ④ 끝소리 'ㅌ'과 모음 'ㅣ'가 만나 구개음 'ㅊ'으로 바뀌어 [부치다]로 발음된다.(구개음화) – 【조건2】만 만족 ⑤ 예사소리 'ㅂ'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ㅍ'으로 축약되어 [자피다]로 발음된다.(거센소리되기) – 【조건1】만 만족

31 음운 변동 중에서 표기에도 반영되는 것은 두음 법칙(예 내일), 모음 탈락(예 아파서) 등이다.

32 '굽는[굼:는]'에서는 'ㅂ'이 'ㅁ'으로 교체되고 있다.(비음화)

오답 해설 ① '좋다[조:타]'는 'ㅎ + ㄷ → ㅌ'과 같이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므로 축약에 해당한다. ② '노인[노:인]'은 '로인(老人)'에서 두음 법칙에 의해 'ㄹ'이 'ㄴ'으로 바뀐 것으로 교체에 해당한다. ③ '논리[놀리]'는 앞의 'ㄴ'이 뒤의 유음 'ㄹ'의 영향으로 인해 유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교체에 해당한다. ⑤ '담가[담가]'는 '담그- + -아'에서 모음 'ㅡ'가 탈락한 것으로 탈락에 해당한다.

33 '맏형[마텽]'에서는 예사소리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난다. 거센소리되기는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축약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나머지는 모두 교체에 해당한다. 교체는 특정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것으로, 음운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① 유음화 ② 비음화 ④ 된소리되기 ⑤ 구개음화

34 거센소리되기는 'ㅎ'과 'ㄱ, ㄷ, ㅂ, ㅈ'이 만나 'ㅋ, ㅌ, ㅍ, ㅊ'으로 축약되는 현상이다. 2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축약되므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게 된다.

오답 해설 ①~④ 모두 교체로, 음운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35 '깎는[깡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깍는]이 된 다음 비음화에 따라 [깡는]으로 소리 난다. '된소리되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서울역 –(ㄴ 첨가)→ [서울녁] –(유음화)→ [서울력] ③ 앞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압날] –(비음화)→ [암날] ④ 낮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낟잠] –(된소리되기)→ [낟짬] ⑤ 산뜻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산뜯한] –(거센소리되기)→ [산뜨탄]

36
- 닦다[닥따]: ㄲ → ㄱ(음절의 끝소리 규칙), ㄷ → ㄸ(된소리되기)
- 꽃밭[꼳빧]: ㅊ → ㄷ(음절의 끝소리 규칙), ㅂ → ㅃ(된소리되기), ㅌ → ㄷ(음절의 끝소리 규칙)

37 '옷걸이[옫꺼리]'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ㅅ → ㄷ)과 된소리되기(ㄱ → ㄲ)가 나타난다. 그러나 두 음운 변동 모두 음운을 교체한 것일 뿐이므로 첨가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 '행복하게[행:보카게]'에서는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며 음운 축약에 해당한다. ② ㉡ '반려[발:려]'에서는 'ㄴ'이 'ㄹ'을 만나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식물[싱물]'에서는 'ㄱ'이 비음 'ㅁ'의 영향으로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나타나며 모두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③ ㉢ '따뜻한[따뜨탄]'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따뜯한]이 되었다가 다시

'ㄷ'과 'ㅎ'이 축약되어 'ㅌ'이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며 각각 음운 교체와 축약에 해당한다. ⑤ ㉤ '써'에서는 '쓰-+-어→써'에서 어간 모음 'ㅡ'가 탈락하며 음운 탈락에 해당한다.

38 '금요일'에 ㄴ 첨가를 적용하여 '금뇨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지만, ㄴ 첨가가 적용되지 않은 [그묘일]이 표준 발음이다. '꽃을'은 '꽃'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을'과 결합한 경우이므로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꼬츨]로 발음해야 한다. 참고로, '꽃' 뒤에 실질 형태소가 이어지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 후 연음하여 발음해야 한다(예 꽃인사[꼬딘사]).

Plus 〈참고〉

'ㄴ' 첨가의 조건

'ㄴ' 첨가는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 ㅑ, ㅕ, ㅛ, ㅠ'로 시작할 때, 'ㄴ'이 그 사이에 덧붙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금요일'의 경우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합성어이고 뒷말이 'ㅛ'로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금뇨일]과 같이 'ㄴ'이 첨가된 형태가 아닌 [그묘일]이 표준 발음인데, 그 이유는 언중들의 현실 발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ㄴ' 첨가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이지만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 예는 이 밖에도 '육이오[유기오]', '송별연[송벼련]' 등이 있다. 한편 두 가지 형태 모두를 복수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예에는 '검열[검:녈/거:멸]', 금융[금늉/그뮹]' 등이 있다.

39 ㉠ '이렇게': 거센소리되기에 따라 [이러케]로 발음한다. ㉡ '폭발': 된소리되기에 따라 [폭빨]로 발음한다. ㉢ '넋이':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 뒤의 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데, 연음되는 것이 'ㅅ'이면 된소리로 발음한다. 따라서 '넋이'는 된소리되기에 따라 [넉씨]로 발음한다.

40 〈보기〉에는 두음 법칙과 관련된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두음 법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⑤ '만타', '갈 껀데' ④ '짜르러', '둘껄'

41 겹받침 'ㄺ'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이 탈락하고 [ㄱ]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 '닭만'은 [닥만]이 된 다음 비음화에 따라 [당만]으로 발음해야 한다. ㉢ '닭장' 역시 먼저 겹받침 'ㄺ' 중 'ㄹ'이 탈락하여 [닥장]이 된 다음 된소리되기에 따라 [닥짱]으로 발음해야 한다. 한편,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의 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 '닭을'은 [달글]로 발음해야 한다.

42
- A: 음운의 수가 변하지 않는 음운 변동이므로 '교체'이다. 구개음화인 ㉣ '같이[가치]', 유음화인 ㉥ '난로[날:로]'가 교체에 해당한다.
- B: 음운의 수가 늘어나는 음운 변동이므로 '첨가'이다. 'ㄴ' 첨가인 ㉠ '집안일[지반닐]'이 첨가에 해당한다.
- C: 음운의 수가 줄었지만 새로운 음운은 없는 음운 변동이므로 '탈락'이다. 'ㅎ' 탈락인 ㉡ '좋은[조:은]'과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한 ㉥ '옮는[옴:는]'이 탈락에 해당한다.
- D: 음운의 수가 줄어들고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음운 변동이므로 '축약'이다. 'ㅎ'과 'ㄱ' 두 음운이 하나의 새로운 음운 'ㅋ'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인 ㉢ '않고[안코]'가 축약에 해당한다.

43
- 먹물[멍물]: 앞 음절의 종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뀜.
- 중력[중녁]: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뀜.
- 집념[짐념]: 앞 음절의 종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뀜.
- 칼날[칼랄]: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뀜.
- 톱밥[톱빱]: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뀜.

따라서 '중력, 칼날, 톱밥'이 ㉠, '먹물, 집념'이 ㉡에 해당한다.

Plus 〈참고〉

동화의 방향

동화는 동화의 방향에 따라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로 나눌 수 있다. 〈보기〉의 설명 중 ㉠이 순행 동화, ㉡이 역행 동화에 해당한다.

순행 동화	역행 동화
앞 음운의 영향으로 뒤 음운이 바뀜. (앞 → 뒤, 순행) 예 칼날[칼랄] (앞 → 뒤)	뒤 음운의 영향으로 앞 음운이 바뀜.(앞 ← 뒤, 역행) 예 국물[궁물] (앞 ← 뒤)

44 '굳히다'는 'ㄷ'과 'ㅎ'이 'ㅌ'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되어 [구티다]가 된 후, 'ㅌ'이 'ㅊ'으로 교체(구개음화)되어 [구치다]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② '미닫이'는 'ㄷ'이 'ㅈ'으로 교체(구개음화)되어 [미다지]로 발음된다. 축약은 일어나지 않는다. ③ '빨갛다'는 'ㅎ'과 'ㄷ'이 'ㅌ'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되어 [빨가타]로 발음된다. 교체는 일어나지 않는다. ④ '솜이불'은 'ㄴ'이 첨가되어 [솜:니불]로 발음된다. 교체와 축약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 ⑤ '잡히다'는 'ㅂ'과 'ㅎ'이 'ㅍ'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되어 [자피다]로 발음된다. 교체는 일어나지 않는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26~131쪽

01 ④	02 ③	03 ①	04 ④	05 ④	06 ⑤	07 ⑤	08 ⑤
09 ②	10 ②	11 ④	12 ①	13 ①	14 ⑤	15 ②	16 ②
17 ②	18 ⑤	19 ③	20 ⑤	21 ①	22 ①	23 ①	24 ①
25 ④	26 ⑤						

01 ㉠에는 비음화, ㉡에는 유음화의 예가 들어가야 한다. '닫는'은 'ㄷ'이 'ㄴ'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어 [단는]으로 발음되므로 비음화, '순리'는 비음 'ㄴ'이 'ㄹ' 앞에서 유음 'ㄹ'로 바뀌어 [술리]로 발음되므로 유음화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은 비음화, ㉡은 거센소리되기의 예이다. ② ㉠은 된소리되기, ㉡은 유음화의 예이다. ③ ㉠, ㉡ 모두 비음화의 예이다. ⑤ ㉠은 'ㄴ' 첨가, ㉡은 '류(流)'가 단어 첫머리에 오는 '류행가(流行歌)'에서 'ㄹ'이 탈락하여 '유행가(流行歌)'가 된 것으로 두음 법칙의 예이다.

02 두음 법칙은 같은 한자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현상이다. 그런데 '요건(要件)'의 '요'와 '완료(完了)'의 '료'는 서로 다른 한자이므로 두음 법칙의 예로 제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요(要)'는 원래 소리도 '료'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급류(急流), 유속(流速) ② 여자(女子), 소녀(小女) ④ 금리(金利), 이자(利子) ⑤ 내년(來年), 왕래(往來)

03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이고, ㉡은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한 후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깎는'은 쌍받침인 'ㄲ'이 'ㄱ'으로 바뀌어(음절의 끝소리 규칙) [깍는]이 된 다음 비음화에 따라 [깡는]으로 발음되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흙만'은 겹받침인 'ㄺ'에서 'ㄹ'이 탈락하여 [흑

만]이 된 다음 비음화에 따라 [홍만]으로 발음되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끝물' --(음절의 끝소리 규칙)→ [끋물] --(비음화)→ [끈물]: ㉠에 해당한다. / '있자' --(탈락)→ [인자] --(된소리되기)→ [인짜]: 비음화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듣는' --(비음화)→ [든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읊는' --(탈락)→ [읖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읍는] --(비음화)→ [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나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숯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숟내] --(비음화)→ [순내]: ㉠에 해당한다. / '닳은' --(탈락 후 연음)→ [다른]: 비음화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앞마당'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압마당] --(비음화)→ [암마당]: ㉠에 해당한다. / '값이' --(연음 후 된소리되기)→ [갑씨]: 탈락도, 비음화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04 ㉣ '묻히고'에서는 '묻-'이 형식 형태소인 접미사 '-히-'와 만나므로 'ㄷ'이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ㅊ]으로 발음된다. 즉 '묻히고 → [무티고] → [무치고]'와 같이 거센소리되기와 구개음화가 차례로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붙인'은 '붙-'이 접미사의 모음 'ㅣ'와 만나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부친]으로 발음된다. ② '낱낱이'는 접미사인 '-이'가 형식 형태소이므로 '낱'의 받침 'ㅌ'이 구개음화되어 [ㅊ]으로 바뀌어 [난나치]로 발음된다. ③ '밭이랑'의 '이랑'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밭'의 'ㅌ'은 [ㅊ]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밭이랑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밭이랑] --(ㄴ 첨가)→ [밭니랑] --비음화→ [반니랑]'과 같이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⑤ '홑이불'은 '홑-'과 결합한 '이불'이 실질 형태소이므로 '홑-'의 받침 'ㅌ'은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홑이불 --(음절의 끝소리 규칙)→ [홑이불] --(ㄴ 첨가)→ [홑니불] --비음화→ [혼니불]'

05 '난리[날리]'는 비음인 'ㄴ'이 유음인 'ㄹ'로 바뀐 것이므로 유음화에 해당한다. 같은 잇몸소리끼리의 변동이므로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았고, 비음이 유음으로 바뀐 것이므로 조음 방법만 바뀐 것이다.

오답 해설 ①·② '국물[궁물]'은 파열음인 'ㄱ'이 비음인 'ㅇ'으로 바뀐 것이므로 비음화에 해당한다. 같은 여린입천장소리끼리의 변동이므로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았고,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뀐 것이므로 조음 방법만 바뀐 것이다. ⑤ '해돋이[해도지]'에서 'ㄷ'이 'ㅈ'으로 바뀐 것은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잇몸소리가 센입천장소리로, 파열음이 파찰음으로 바뀐 것이므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뀐 것이다.

06 '활동1'과 '활동2'에 따르면 뒤의 음운이 바뀌는 경우는 '000100'으로 표시하고 이는 순행 동화이다. 그리고 앞의 음운이 바뀌는 경우는 '001000'으로 표시하고 이는 역행 동화이다. '잡념[잠념]'은 '001000'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역행 동화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국민'은 '001000'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역행 동화이다. ② '글눈'은 '000100'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순행 동화이다. ③ '명랑'은 '001000'이 아니라 '000100'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순행 동화이다. ④ '신랑'은 '000100'이 아니라 '001000'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역행 동화이다.

07 ㉠은 역행 동화가 일어난 유음화, ㉡은 순행 동화가 일어난 유음화, ㉢은 유음화가 일어나야 할 환경에서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비음화가 일어난 경우이다. '불놀이[불로리]'는 'ㄴ'이 'ㄹ' 뒤에서 [ㄹ]로 발음되므로 ㉡이 적용된 것이다, 이때 셋째 음절의 [리]는 둘째 음절의 받침 'ㄹ'이 연음된 것으로 유음화와 관련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신라[실라]'는 ㉠이 적용되어 'ㄴ'이 'ㄹ' 앞에서 [ㄹ]로 발음된다. ② '칼날[칼랄]'은 ㉡이 적용되어 'ㄴ'이 'ㄹ' 뒤에서 [ㄹ]로 발음된다. ③ '생산량[생산냥]'은 ㉢이 적용되어 'ㄹ'이 'ㄴ' 뒤에서 [ㄴ]으로 발음된다. ④ '물난리[물랄리]'는 '난'의 초성에는 ㉡이, 받침에는 ㉠이 적용되어 'ㄴ'이 'ㄹ'의 앞과 뒤에서 [ㄹ]로 발음된다.

Plus 〈참고〉

'생산량'의 발음

표준 발음법 제20항에 따르면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유음화) 그러나 '생산량'은 이 표준 발음법을 적용하지 않고 [생산냥]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산량'이 2음절의 한자어 뒤에 'ㄹ'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라서 유음화할 경우 'ㄴ'으로 끝난 원래 한자어의 의미와 거리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단어로는 이 외에도 '등산로[등산노]', '추진력[추진녁]' 등이 있다.

08 ㉤에 들어갈 예는 원래는 된소리가 아닌 'ㄱ, ㄷ, ㅂ, ㅅ, ㅈ'이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오면서 된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여야 한다(예 갈 거야[갈꺼야]). 그런데 '갈 때[갈때]'는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원래 된소리인 'ㅌ'이 온 것이므로 된소리되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각도[각또]: 끝소리 'ㄱ' 뒤에 'ㄷ'이 온 경우이므로 적절하다. ③ 담다[담:따]: 용언의 어간 '담-'의 받침 'ㅁ' 뒤에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 '-다'가 온 경우이므로 적절하다. ④ 발전(發展)[발쩐]: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ㅈ'이 온 경우이므로 적절하다.

09 ㉠은 'ㅏ'나 'ㅓ'가 연이어 오는 경우 하나가 탈락하는 동음 탈락, ㉡은 'ㅡ' 탈락을 설명한 것이다. ②에서 '나'는 '나- + -아 → 나'이므로 'ㅏ' 탈락, '커서'는 '크- + -어서 → 커서'이므로 'ㅡ' 탈락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뜨- + -어 → 떠: 'ㅡ' 탈락 / 가- + -아서: 'ㅏ' 탈락 ③ 아프- + -아서 → 아파서: 'ㅡ' 탈락 / 서- + -어서 → 서서: 'ㅓ' 탈락 ④ 까- + -아서 → 까서: 'ㅏ' 탈락 / 끄- + -고 → 끄고: 모음이 이어진 경우가 아니고 탈락도 없다. ⑤ 오- + -았- → 왔-: 축약(탈락 없음.) / 뜨- + -는 → 뜨는: 모음이 이어진 경우가 아니고 탈락도 없다.

10 ㉠은 거센소리되기(축약), ㉡은 자음군 단순화(탈락), ㉢은 된소리되기(교체), ㉣은 비음화(교체), ㉤은 유음화(교체)에 해당한다. '값싸다[갑싸다]'는 'ㅄ'에서 'ㅅ'이 탈락하고, '닭똥[닥똥]'은 'ㄺ'에서 'ㄹ'이 탈락한 것으로 모두 자음군 단순화(㉡)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먹히다[머키다]'에서만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고 '목걸이[목꺼리]'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③ '굳세다[굳쎄다]'에서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솜이불[솜:니불]'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난다. ④ '겁내다[검내다]'에서만 비음화가 일어나고, '맨입[맨닙]'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난다. ⑤ '원리[월리]'에서만 유음화가 일어나고, '잡히다[자피다]'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11 ⓐ는 비음화, ⓑ는 된소리되기, ⓒ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는 'ㄴ' 첨가에 대한 설명이고, ⓓ는 연음과 관련된 설명이다.

- 겉옷[거돋]: '겉'의 'ㅌ'이 'ㄷ'으로 바뀐 후 실질 형태소인 '옷'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되고, '옷'의 'ㅅ'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 국밥만[국빰만]: '밥'의 첫소리 'ㅂ'이 'ㄱ' 뒤에서 'ㅃ'으로 발음(ⓑ)되고, '밥'의 종성 'ㅂ'이 'ㅁ' 앞에서 'ㅁ'으로 발음(ⓐ)된다.
- 백분율[백뿐뉼]: '분'의 'ㅂ'이 'ㄱ' 뒤에서 'ㅃ'으로 발음(ⓑ)되고, 파생어인 '백분율'에서 '율' 앞에 오는 단어의 끝이 자음이기 때문에 [뉼]로 발음(ⓔ)된다.
- 색연필[생년필]: 합성어인 '색연필'에서 '연' 앞에 오는 단어의 끝이 자음이기 때문에 [년]으로 발음(ⓔ)되고, '색'의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발음(ⓐ)된다.
- 헛일[헌닐]: 파생어인 '헛일'에서 '일' 앞에 오는 단어의 끝이

자음이기 때문에 [널]로 발음(ⓔ)되고, '헛'의 'ㅅ'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는데, 'ㄷ'은 'ㄴ' 앞에서 'ㄴ'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의 예로 적절한 것은 '겉옷[거돋]'뿐이다.

12 〈보기〉에 따르면 ㉠에는 비음화와 된소리되기가 모두 일어나는 단어가, ㉡에는 비음화는 일어나지만 된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옷맵시[온맵씨]'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ㅅ → ㄷ), 비음화(ㄷ → ㄴ), 된소리되기(ㅅ → ㅆ)가 일어나므로, ㉠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다. '꽃말[꼰말]'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ㅊ → ㄷ), 비음화(ㄷ → ㄴ)는 일어나지만 된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덮개[덥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ㅍ → ㅂ), 된소리되기(ㄱ → ㄲ)는 일어나지만,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묵념[뭉념]'은 비음화(ㄱ → ㅇ)만 일어나고 된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다. ③ '부엌문[부엉문]'과 '앞날[암날]'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각각 [부억문]과 [압날]이 되었다가 비음화가 일어나 [부엉문]과 [암날]로 발음된다. 두 단어 모두 비음화만 일어나고 된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에 들어가야 할 사례이다. ④ '광안리[광알리]'는 유음화(ㄴ → ㄹ)만 일어나고 비음화와 된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권력가[궐력까]'는 유음화(ㄴ → ㄹ), 된소리되기(ㄱ → ㄲ)가 일어나므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귓속말[귇쏭말]'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ㅅ → ㄷ), 된소리되기(ㅅ → ㅆ), 비음화(ㄱ → ㅇ)가 일어나므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다. '습득물[습뜽물]'은 된소리되기(ㄷ → ㄸ), 비음화(ㄱ → ㅇ)가 모두 일어나므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13 '값만[감만]'은 'ㅅ'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ㅂ'이 'ㅁ'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함께 적용된 경우(㉠)이다. '흙과[흑꽈]'는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인 'ㄱ'이 'ㄲ'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함께 적용된 경우(㉡)이다.

오답 해설 ② 잃는[일른]: 자음군 단순화 · 유음화, 읊고[읍꼬]: 자음군 단순화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된소리되기 ③ 덮지[덥찌]: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된소리되기, 밝혀[발켜]: 거센소리되기 ④ 밟는[밤:는]: 자음군 단순화 · 비음화, 닦다[닥따]: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된소리되기 ⑤ 젊어[절머]: 음운 변동 없음.('ㅁ'이 뒤 음절로 연음됨.), 짧지[짤찌]: 자음군 단순화 · 된소리되기

14 '팥빵[팓빵]'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 일어나고, '많던[만턴]'은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애틋한'은 받침 'ㅅ'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 일어나 [애듣한]이 되고 이때 생긴 'ㄷ'이 뒤의 'ㅎ'과 합쳐져 'ㅌ'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모두 일어나 [애트탄]으로 소리 나므로 ⓐ와 ⓑ의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나는 예이다.

오답 해설 ① 낯설고[낟썰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 된소리되기(교체) ② 놀더라[노터라]: 거센소리되기(축약) ③ 맞는지[맏는지 → 만는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 비음화(교체) ④ 먹히는[머키는]: 거센소리되기(축약)

15 ㉠ 난로[날로]: 뒤의 음운 'ㄹ'의 영향으로 앞의 음운 'ㄴ'이 'ㄹ'로 바뀐다. 'ㄴ'은 잇몸소리 · 비음이고 'ㄹ'은 잇몸소리 · 유음이므로 조음 방법만 바뀐다.(비음 → 유음)
㉡ 맏이[마지]: 뒤의 음운 'ㅣ'의 영향으로 앞의 음운 'ㄷ'이 'ㅈ'으로 바뀐다. 'ㄷ'은 잇몸소리 · 파열음이고 'ㅈ'은 센입천장소리 · 파찰음이므로 조음 방법과 위치가 모두 바뀐다.
㉢ 실내[실래]: 앞의 음운 'ㄹ'의 영향으로 뒤의 음운 'ㄴ'이 'ㄹ'로 바뀐다. 'ㄴ'은 잇몸소리 · 비음이고 'ㄹ'은 잇몸소리 · 유음이므로 조음 방법만 바뀐다.(비음 → 유음)
㉣ 톱날[톰날]: 뒤의 음운 'ㄴ'의 영향으로 앞의 음운 'ㅂ'이 'ㅁ'으로 바뀐다. 'ㅂ'은 입술소리 · 파열음이고 'ㅁ'은 입술소리 · 비음이므로 조음 방법만 바뀐다.(파열음 → 비음)
따라서 뒤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앞 음운이 조음 방법만 바뀌는 단어는 ㉠, ㉣이다.

16 ㉡의 '깊숙이[깁쑤기]'는 '깊 → 깁'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ㅅ → ㅆ'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실없네[시럼네]: '없 → 업'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ㅂ → ㅁ'의 비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③ 짓밟지[짇빱찌]: '짓 → 짇'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ㅂ → ㅃ'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④ 꺾는[껑는]: '꺾 → 껵'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ㄱ → ㅇ'의 비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⑤ 삶고[삼꼬]: '삶 → 삼'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ㄱ → ㄲ'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17 '뚫는'은 '뚫는 → [뚤는] → [뚤른]'의 과정에서 'ㅎ'이 탈락하고 'ㄴ'이 'ㄹ'로 교체된다. 이때 'ㅎ' 탈락으로 인해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든다.

오답 해설 ① 국밥[국빱]: 'ㅂ'이 'ㅃ'으로 교체되므로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③ 막내[망내]: 'ㄱ'이 'ㅇ'으로 교체되므로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④ 물약[물략]: '물약 → [물냑] → [물략]'의 과정에서 'ㄴ'이 첨가되고 이 'ㄴ'이 'ㄹ'로 교체된다. 이때 'ㄴ'이 첨가되므로 음운의 개수는 하나 늘어난다. ⑤ 밟힌[발핀]: 'ㅂ'과 'ㅎ'이 결합하여 'ㅍ'으로 축약된다. 이때 두 음운이 결합하여 하나의 음운이 되었으므로 음운의 개수는 하나 줄어든다.

18 ㉠ '꽃잎 → [꼳입] → [꼳닙] → [꼰닙]'의 과정에서 교체(ㅊ → ㄷ, ㅍ → ㅂ, ㄷ → ㄴ)와 첨가(ㄴ)가 일어났으며 음운의 개수는 늘었다.
㉡ '맑지 → [막지] → [막찌]'의 과정에서 탈락(ㄹ)과 교체(ㅈ → ㅉ)가 일어났으며 음운의 개수는 줄었다.
㉢ '막힘없다 → [마킴업다] → [마키멉따]'의 과정에서 축약(ㄱ + ㅎ → ㅋ)과 탈락(ㅅ), 교체(ㄷ → ㄸ)가 일어났으며 음운의 개수는 줄었다.
따라서 '㉡과 ㉢은 음운의 개수가 줄었습니다.'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② ㉠은 탈락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③ ㉡은 축약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은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19 '연세[연세]'는 두음 법칙에 따라 첫머리에서 'ㄴ'이 탈락한 것이므로 탈락 현상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ㄷ → ㄸ ② ㄹ → ㄴ. '연세'와 마찬가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 것이지만 '래(來)'의 'ㄹ'이 단어 첫머리에서 'ㄴ'으로 바뀐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교체에 해당한다. ④ '샅샅이[샅사티→샅싸치]'는 첫째 음절에서 'ㅌ→ㄷ'의 교체, 둘째 음절의 초성에서 'ㅅ→ㅆ'의 교체가 일어나고 둘째 음절의 종성 'ㅌ'이 구개음화되어 'ㅊ'으로의 교체가 일어난다. ⑤ ㄴ → ㄹ

20 '잠가'는 '잠그- + -아'의 과정에서 모음 'ㅡ'가 탈락한 것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모음 탈락은 표기에 반영된다.

오답 해설 ① [닥따]: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만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② [국빱]: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만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③ [노치]: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나지만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④ [담:뇨]: ㄴ 첨가가 나타나지만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21 ⓐ: 모음(ㅡ) 탈락,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됨.
ⓑ: 자음(ㄹ) 탈락,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됨.

ⓒ: 자음(ㅎ) 탈락,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에는 자음 탈락이 아닌 ⓐ가, ㉯에는 자음 탈락이면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가, ㉰에는 자음 탈락이면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 ⓑ가 들어가야 한다.

22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은 거센소리되기(축약)에 해당한다.

23 • 국밥[국빱]: 교체(된소리되기), 음운의 개수 변화 없음(6개), 표기에 반영되지 않음.
• 굳히다[구티다 → 구치다]: 축약(거센소리되기) · 교체(구개음화), 음운의 개수 줄어듦(7 → 6개), 표기에 반영되지 않음.
• 급행열차[그팽녈차]: 축약(거센소리되기) · 첨가('ㄴ' 첨가), 음운의 개수 변화 없음(10개), 표기에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국밥'과 '굳히다, 급행열차'를 나누는 기준(ⓐ)은 '음운의 변동이 두 가지 이상 일어났는지'이고, '굳히다'와 '급행열차'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은 '축약'이다.

24 '좋고[조:코]'는 'ㅎ'이 'ㄱ'과 합쳐져 'ㅋ'으로 축약되므로 ㉮의 예로 적절하고, '닿아[다아]'는 음절의 끝소리인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아' 앞에서 탈락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쌓네[싼네 → 싼네]: 'ㅎ'이 'ㄷ'으로 교체되고, 그 'ㄷ'이 다시 'ㄴ'으로 교체되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③ 넣는[넏는 → 넏는]: 'ㅎ'이 'ㄷ'으로 교체되고 그 'ㄷ'이 다시 'ㄴ'으로 교체되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⑤ 닳지[달치]: 'ㅎ'이 'ㅈ'과 합쳐져 'ㅊ'으로 축약되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25 ㉠ '겉멋만 → [겉먿만] → [건먿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ㅌ → ㄷ, ㅅ → ㄷ), 비음화(ㄷ → ㄴ, ㄷ → ㄴ)
㉡ '꽃식물 → [꼳싱물] → [꼳씽물]': 음절의 끝소리 규칙(ㅊ → ㄷ), 비음화(ㄱ → ㅇ), 된소리되기(ㅅ → ㅆ)
㉢ '낮잠는 → [낟잠는] → [낟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ㅈ → ㄷ), 비음화(ㅂ → ㅁ), 된소리되기(ㅈ → ㅉ)
따라서 ㉠~㉢ 모두에서 음절 끝의 자음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⑤ ㉢의 비음화는 'ㄴ'으로 인해, ㉠과 ㉡의 비음화는 'ㅁ'으로 인해 일어난다.

26 '버들잎'은 '버들잎 → [버들닙] → [버들립]'의 과정에서 첨가가 한 번(ㄴ 첨가), 교체가 두 번(ㅍ → ㅂ, ㄴ → ㄹ) 일어난 경우이다. '덧입어'는 '덧입어 → [덛이버] → [덛니버] → [던니버]'의 과정에서 교체가 두 번(ㅅ → ㄷ, ㄷ → ㄴ), 첨가가 한 번(ㄴ 첨가) 일어난 경우이다.

오답 해설 ① 재밌는 → [재믿는] → [재민는]: 교체 두 번(ㅆ → ㄷ, ㄷ → ㄴ), 얽매는 → [억매는] → [엉매는]: 탈락 한 번(ㄹ 탈락) · 교체 한 번(ㄱ → ㅇ) ② 불이익 → [불니익] → [불리익]: 첨가 한 번(ㄴ 첨가) · 교체 한 번(ㄴ → ㄹ), 견인력 → [겨닌녁]: 교체 한 번(ㄹ → ㄴ) ③ 똑같이 → [똑까치]: 교체 두 번(ㄱ → ㄲ, ㅌ → ㅊ), 파묻힌 → [파무틴] → [파무친]: 축약 한 번(ㄷ + ㅎ → ㅌ) · 교체 한 번(ㅌ → ㅊ) ④ 읊조려 → [읖조려] → [읍조려] → [읍쪼려]: 탈락 한 번(ㄹ 탈락) · 교체 두 번(ㅍ → ㅂ, ㅈ → ㅉ), 걷늙어 → [걷늘거] → [건늘거]: 교체 두 번(ㅌ → ㄷ, ㄷ → ㄴ)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32~133쪽

01 (1) ① 권력, 원로, 난리 ② 등산로, 생산량, 추진력 (2) ①은 유음화가 일어나지만 ②는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②가 2음절의 한자어 뒤에 'ㄹ'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라서 유음화할 경우 'ㄴ'으로 끝난 원래 한자어의 의미와 거리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02** (1) ㉠ [파치] ㉡ [혼니불] (2) ㉠은 끝소리 'ㅌ'이 모음 'ㅣ'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은 모음으로 시작하기는 하지만 실질 형태소를 만났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03** 해설 참조 **04** 해설 참조 **05** 해설 참조

01 (1) ① ㄴ + ㄹ → ㄹ + ㄹ(유음화가 일어나는 것): 권력[권력], 원로[원로], 난리[날리]
② ㄴ + ㄹ → ㄴ + ㄴ(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등산로[등산노], 생산량[생산냥], 추진력[추진녁]
(2) 예컨대 '등산로'를 유음화하여 [등살로]로 발음하면 '등산'이라는 원래 한자어의 의미와 거리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음화하지 않고 [등산노]로 발음하는 것이다.

02 (1) '홑이불'은 '홑이불 → [홑이불] → [혼이불] → [혼니불]'의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 첨가, 비음화를 거치게 된다.

03

단어	발음	음운 변동
행복하게	[행보카게]	거센소리되기
반려 식물	[발려싱물]	유음화, 비음화
심고	[심꼬]	된소리되기
따뜻한	[따뜨탄]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소리되기
옷걸이	[옫꺼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써	[써]	모음 탈락

04 (1) 덮개 → [덥개] → [덥깨]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2) 닦는 → [닥는] → [당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3) 물약 → [물냑] → [물략]
(ㄴ 첨가) (유음화)
(4) 깨끗한 → [깨끋한] → [깨끄탄]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소리되기)

05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	발음	축약되는 음운
하얗게	[하야케]	ㅎ + ㄱ → ㅋ
시작합니다	[시자캄니다]	ㄱ + ㅎ → ㅋ
잡히지	[자피지]	ㅂ + ㅎ → ㅍ
놓지	[노치]	ㅎ + ㅈ → ㅊ
축하합니다	[추카함니다]	ㄱ + ㅎ → ㅋ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34~13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03 두음 법칙이나 모음 탈락 등은 표기에 반영된다.

10 '등산로'는 유음화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등산노]로 발음한다.

12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이다.

13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마디'는 [마디]로 발음해야 한다.

16 된소리되기는 '갈등(葛藤)[갈뜽]', '발전(發展)[발쩐]' 등의 한자어에서도 일어난다.

24 된소리되기는 음운의 개수를 변화시키지 않는 교체이다.

02 상황에 맞게 표현하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38~145쪽

01 ⑤	02 ⑤	03 ①	04 ②	05 ①	06 ③	07 ②	08 ④
09 ①	10 ①	11 ③	12 ③	13 ⑤	14 ②	15 ②	16 ③
17 ④	18 ③	19 ⑤	20 ②	21 ③	22 ①	23 ①	24 ①
25 ②	26 ④	27 ②	28 ③	29 ④	30 ①	31 ②	32 ④
33 ④	34 ④	35 ①	36 ④	37 ④	38 ④	39 ③	40 ⑤

01 '할아버지는 키가 크시다.'처럼 대상과 관련된 것(할아버지의 키)을 높임으로써 대상을 높이기도 한다.(간접 높임)

오답 해설 ① '계시다, 드리다, 여쭙다' 등의 어휘로도 구현된다. ②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조사는 '께서'이다. ③ 대화의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은 종결 표현만으로 실현된다. ④ '-(으)시-'는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

02 은혁이와 현아는 비격식체인 해체를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② 은혁이와 현아는 모두 '선생님'을 높이고 있는데, 은혁의 말에서는 선생님이 서술의 주체이고 현아의 말에서는 선생님이 서술의 객체이다. ③ 은혁이는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로 주체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④ 현아는 부사격 조사 '께'와 '여쭈어보다'로 객체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03 ㉠은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에서 '도착하다'의 주체, 즉 서술의 주체는 '할머니'이다. ㉡은 '도착하셨어'에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생략된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④ ㉠과 ㉢은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사용하여 대화 상대인 '엄마'를 높이고 있다. ⑤ ㉠과 ㉢에서 상대 높임의 대상은 '엄마', 주체 높임의 대상은 '할머니'이므로, ㉠과 ㉢은 상대 높임과 주체 높임의 대상이 다르다.

04 ㉠은 '주셨다'에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은 '계시다'라는 특수한 단어로 높임을 표현한 것이다. '계시다'는 그 자체가 높임을 뜻을 지닌 단어로, '시'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주체 높임이 사용된 ㉠과 ㉡은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문장의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각각 높이고 있다. ③ ㉡은 '계시다', ㉢은 '여쭈다'라는 특수한 단어를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④ ㉣만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청자를 높이고 있다.(상대 높임) ⑤ ㉢은 문장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객체 높임)

05 ㉠은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였다. '아프시다'는 할머니의 신체의 일부('손가락')를 높임으로써 할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말로, '아프다'에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인 것이지 특수 어휘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은 말을 듣는 상대(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였다.(상대 높임) ③ ㉢은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접미사 '-님'과 조사 '께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였다.(주체 높임) ④ ㉣은 목적어가 나타내는 대상(객체)인 '부모님'을 높이기 위해 '모시고'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였다.(객체 높임) ⑤ ㉤은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였다.(객체 높임).

06 ③은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객체 높임)

오답 해설 ①·② 대화 상대(청자)를 높이고 있다.(상대 높임) ④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와 대화 상대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객체 높임, 상대 높임) ⑤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와 대화 상대인 '어머니'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주체 높임, 상대 높임)

07 ⓑ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서술의 객체인 '아버지'이고, 상대 높임의 대상 역시 대화의 청자인 '아버지'이다. 따라서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다르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주체 높임의 대상은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 = 상대 높임의 대상은 대화의 청자인 '아버지' ③ 객체 높임의 대상은 서술의 객체인 '아버지' = 상대 높임의 대상은 대화의 청자인 '아버지' ④ 주체 높임의 대상은 생략된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 ≠ 상대 높임의 대상은 대화의 청자인 '아버지' ⑤ 주체 높임의 대상은 서술의 주체인 '어머니' ≠ 객체 높임의 대상은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 ≠ 상대 높임의 대상은 대화의 청자인 '아버지'

08 ㉣에서는 우진이가 아니라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선생님이'를 '선생님께서'로 바꾸고, '오시래'를 '오라셔(오라고 하셔)'로 바꿔야 한다. '오는 주체'인 우진이가 아니라 '말한 주체'인 선생님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09 ㉠에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와 특수한 어휘 '여쭈다'가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② ㉢에서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형님'을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 '-시-'와 특수 어휘 '주무시다'가 사용되었다. 조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은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 '여쭈다'를 사용하였고, ㉡은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손님'을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였다. ④ ㉡과 ㉢에서는 모두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조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은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할머니')을 높이기 위해 '여쭈다', ㉡은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손님')을 높이기 위해 '모시다', ㉢은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형님')을 높이기 위해 '주무시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였다.

10 ㉠, ㉡은 간접 높임, ㉢은 직접 높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④ ㉡에서는 '삼촌'이 청자이자 서술의 주체이므로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⑤ ㉢은 '계시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통해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11 ⓐ: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치아'를 높임으로써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해 '고모님'을 높이고 있다.
ⓒ: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생각'을 높임으로써 '그분'을 높이고 있다.
ⓑ에는 객체 높임이, ⓐ, ⓒ, ⓓ에는 주체 높임이 나타나 있으므로, '학생2'는 객체에 해당하는 인물을 높이는가의 여부를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학생 1'의 분류 기준으로, ⓐ는 주체의 소유물인 '치아'를, ⓓ는 주체의 소유물인 '생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높이는 방법인 간접 높임이 사용되었다.

12 ㉢은 '현아는 이웃집 할머니를 댁까지 모셔다드렸다.'로 바꾸어 써야 한다.

13 (가)는 사적 담화 상황으로, 비격식체인 해체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높임 표현을 사용했다는 진술('주체를 높임.')은 적절하지 않다.

14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의 선후를 구분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15 ㉠은 미래 시제에 해당한다. ②는 '내년'이라는 시간 부사어와 '-ㄹ 것이다'라는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선어말 어미 '-는-'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③ '어제'라는 시간 부사어와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④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어와 선어말 어미 '-는-'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⑤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16 '본'은 동사 '보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은 과거 시제이다.

오답 해설 ① 동사 '하다'에 선어말 어미 '-겠-'이 붙은 미래 시제이다. ② 동사 '먹다'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은 과거 시제이다. ④ '걸어갈'은 동사 '걸어가다'에 관형사형 어미 '-ㄹ'이 붙은 미래 시제이다. ⑤ '건강한'은 형용사 '건강하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은 현재 시제이다.

17 ㉣은 아침에 낮의 기온을 예측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이므로 미래 시제의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덥겠습니다' 정도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비가 내린 것'이 과거의 일이므로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한다. ②·③ '지금'의 상태에 해당하므로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한다. ⑤ 이번 주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므로 미래 시제로 표현해야 한다.

18 동작의 양상은 진행상이나 완료상으로 표현되는데, ㉠~㉢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은 '어제', ㉡은 '내일', ㉢은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어를 활용하여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④ ㉠은 '읽은'에서, ㉢은 '가는'에서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⑤ ㉠은 '재미있었다'에서, ㉡은 '하겠다'에서 각각 선어말 어미 '-었-', '-겠-'을 통해 과거와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의 '유명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Plus 〈참고〉

동작상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진행 양상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진행상	동작의 진행을 나타냄. '-고 있다', '-는 중이다', '-(으)면서' 등에 의해 실현됨. 예 의자에 앉고 있다.
완료상	동작의 완결을 나타냄. '-아/-어 있다', '-아/-어 버리다' 등에 의해 실현됨. 예 의자에 앉아 있다.

19 ⑤에서 '된다'는 동사 '되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붙은 것이지만 '이제'라는 말과 결합하여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동사 '먹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② 동사 '읽다'에 선어말 어미 '-는-'이 붙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③ 동사 '하다'에 선어말 어미 '-ㄴ-'이 붙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④ 형용사 '예쁘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20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것은 과거 시제이다. 그런데 ㉡은 부사어 '곧'과 선어말 어미 '-겠-'을 활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것은 현재 시제이다. ㉠은 선어말 어미 '-ㄴ-'을 활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③ ㉡은 '곧', ㉢은 '내일'이라는 부사어를 활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④ ㉢은 '입을'에서 관형사형 어미 '-(으)ㄹ'을 활용하여 미래 시제를, ㉣은 '만든'에서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활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⑤ ㉠은 '내린다'에서 선어말 어미 '-ㄴ-'을 활용하여 현재 시제를, ㉡은 '시작하겠습니다'에서 선어말 어미 '-겠-'을 활용하여 미래 시제를, ㉣은 '먹더라'에서 선어말 어미 '-더'를 활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21 형용사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는 '-(으)ㄴ'이다. '-는'은 동사와 결합하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22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가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는 문장을 찾아야 한다. ①은 '먹은'에서 관형사형 어미 '-은', '맛있었다'에서 선어말 어미 '-었-'이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시간 부사어 '내일'과 '읽을'의 관형사형 어미 '-을'이 미래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③ 시간 부사어 '이미'와 '도착했다'의 선어말 어미 '-았-'이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④ 시간 부사어 '작년에는'과 '왔었다'의 선어말 어미 '-았었-'이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⑤ 시간 부사어 '지금'과 '한다'의 선어말 어미 '-ㄴ-'이 현재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23 ①의 '-겠-'은 합격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③ 가능성 ④·⑤ 추측

24 (1)은 숙제를 하는 동작의 진행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에는 '진행상'이, (2)는 짜장면을 먹는 동작의 완결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에는 '완료상'이 들어가야 한다.

25 ㉠의 '먹어 간다'는 먹는 동작, ㉣의 '사용하고 있다'는 사용하는 동작의 진행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진행상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의 '가 있다'는 가는 동작, ㉢의 '써 버렸다' 쓰는 동작, ㉤의 '가 버렸다'는 가는 동작의 완결을 각각 표현하므로 완료상에 해당한다.

26 선어말 어미 '-었었-'은 현재와 비교하여 다르거나 현재와는 단절된 과거의 사건을 나타낸다. 따라서 '현재까지 지속되는 과거의 상황'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⑤ ㉤의 '-았-'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정하여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는 어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때의 '-았-'은 과거를 나타내지 않는다.

Plus 〈참고〉

'-았/었-'의 쓰임	
'-았/었-'은 일반적으로 과거를 나타내지만, 다음과 같이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	
현재	완결된 상황의 지속을 나타냄. 예 그녀는 어머니를 참 많이 닮았다.
미래	미래 실현에 대한 확신을 나타냄. 예 이렇게 방 안을 어지럽혀 놓았으니 넌 이제 혼났다.

27 '-아 있다'는 동작의 완결을 표현하는 형식이다. ㉠에서도 소년이 개울둑에 앉는 동작이 완결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28 '-되다'는 명사와 결합하는 피동 표현이다.

Plus 〈참고〉

피동 표현의 용도
• 동작이나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 동작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밝힐 필요가 없을 때 • 동작의 주체를 밝히려 하지 않을 때

29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인 것을 찾아야 한다. ④의 '흔들리다'가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 '흔들다'에 피동 접미사 '-리-'를 붙인 것으로, 주어인 건물이 흔듦을 당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③ 단어 중에 '기'와 '리'가 있지만 접미사가 아니다. ② 사동 접미사 '-기-'가 붙은 사동 표현이다. ⑤ 사동 접미사 '-이-'가 붙은 사동 표현이다.

30 '햇볕이 얼음을 녹였다.'는 주어('햇볕')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킴을 표현한 것으로, 사동 표현이다. '녹이다'의 '-이-'는 사동 접미사로 쓰였다.

오답 해설 ⑤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누구나 알기 때문에 이를 생략한 피동 표현이다.

31 피동형과 피동사를 동시에 사용한 이중 피동이 아닌 것, 즉 적절한 피동 표현을 찾으면 된다. ②의 '끼워져(끼우어져)'는 사동사인 '끼우다'에 피동형인 '-어지다'가 결합한 형태로, 적절한 피동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열리-(피동사) + -어지다(피동형)' ③ '놓이-(피동사) + -어지다(피동형)' ④ '쓰이-(피동사) + -어지다(피동형)' ⑤ '나뉘-(피동사) + -어지다(피동형)'와 같이 이미 피동의 의미를 지닌 피동사에 피동형을 또 붙여 이중 피동이 된 표현들이다.

32 ㉣에서 '대통령'을 뽑은 행위의 주체는 '국민들'이다. ㉣은 대통령을 뽑은 행위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은 경우이다.

33 '그려졌다'는 '그리-'에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지다'만 결합한 형태로,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니다. '그리다'의 '리'는 피동 접사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빼앗-'에 피동 접사 '-기-'가 결합하여 주어인 '형'이 '동생'에 의해 '인형을 빼앗는 행위를 당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⑤ '나누- + -이-'가 '나뉘-'로 줄어든 형태이다.

34 1)은 '진수가 선생님께 자기가 거기를 청소하겠다고 말씀드렸다.', 2)는 '어제 예지가 오늘 뭘 먹으면 좋겠냐고 물었다.'로 바꾸어야 한다. 2)의 '내일'은 어제의 시점에서의 '내일'이므로 간접 인용 표현에서는 '오늘'로 바뀌어야 한다.

35 간접 인용 표현은 큰따옴표를 없애고 종결 표현을 정리한 다음 간접 인용에 사용하는 부사격 조사 '고'를 붙여야 한다. ①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작은따옴표를 잘못 사용하였다. 작은따옴표는 직접 인용한 말 속에 또 다른 말을 직접 인용을 할 경우, 생각을 인용할 경우에 사용한다. ③ 조사 '라고'를 잘못 사용하였다. ④ 종결 표현 정리와 조사 사용에 문제가 있다. ⑤ 종결 표현 정리와 따옴표, 조사 사용에 문제가 있다.

36 ㉢에서 '이곳이'는 직접 인용절의 발화자인 친구의 입장에서 기술된 지시 표현이다. 이 표현이 간접 인용절로 바뀌면 간접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의 발화자인 '나'의 입장에서 기술되어야 한다. 부산에 있지 않은 '나'에게 부산은 '이곳'이 아니라 '그곳'이므로, '그곳이'로 바뀌어 나타나게 된다.

37 사적 담화 상황의 발화인 ㉠은 고유어와 비격식체를 사용하여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비격식체는 '해요체'가 아니라 '해체'이다.

38 ㉠은 상대의 발화에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고 ㉡은 상대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를 담은 발화이다.

오답 해설 ② ㉠은 '불평', ㉡은 '부탁'으로 상황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9 '호우 경보가 발령된'과 같이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행위의 주체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굳이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OO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말을 인용(간접 인용)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② 시청자를 높이기 위해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⑤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려

되고 있습니다' 등의 현재 시제의 동작상 표현을 통해 진행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40 학술 담화에는 개념어나 추상어가 많아서 고유어에 비해 좀 더 전문화되고 분화된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가 많이 사용된다. 실제로 학술 담화인 (가), (나)에는 고유어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46~151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②	05 ⑤	06 ①	07 ②	08 ④
09 ②	10 ①	11 ⑤	12 ②	13 ②	14 ①	15 ②	16 ①
17 ⑤	18 ③	19 ②	20 ②	21 ④	22 ①		

01 ㉢은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사용하여 대화 상대인 '아버지'를 높이는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창문을 닫는 행위를 하는 대상, 즉 서술의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같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③ ㉡은 주격 조사 '께서', 높임의 의미를 지닌 어휘 '잡수다',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02 ㉠는 특수 어휘 '뵙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이 실현된 것이다.

03 ㉡에서 '-으시-'는 생략된 주어의 지시 대상인 '어머니'를, '요'는 상대인 '점원'을 높이기 위해 쓰였다.

오답 해설 ① 문법적 수단인 조사 '께'와 어휘적 수단인 동사 '드리다'를 통해 부사어의 지시 대상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③ '모시다'는 목적어의 지시 대상인 '부모님'을, '께서'는 주어의 지시 대상인 '손님들'을 높이고 있다. ④ 문법적 수단인 종결 어미 '-ㅂ니다'를 통해 대화의 상대방인 '손님'을 높이고 있다. ⑤ 어휘적 수단인 '뵙다'를 통해 목적어의 지시 대상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04 ②는 종결 어미 '-습니다'를 통해 상대를 높이고, 특수 어휘 '모시고'를 통해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종결 어미 '-어요'를 통해 상대를 높이고 있다. ③ '드라- + -어 → 드려'와 같이 종결 어미 '-어'를 통해 상대를 낮추고 있고,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통해 객체('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④ 종결 어미 '-어'를 통해 상대를 낮추고 있고,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⑤ 종결 어미 '-죠'를 통해 상대를 높이고 있고,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그분')를 높이고 있다.

05 ㉤의 주체인 '어머니'는 화자에게는 높임의 대상이지만, 청자인 '할머니'에게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화자는 주체인 '어머니'와 청자인 '할머니'의 관계를 고려해서 '어머니'를 높이지 않고 있다. 한편 청자인 '할머니'는 화자에게 높임의 대상이므로 '-습니다'를 사용하여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방송이라는 공적 담화의 객관성을 고려해 '이순신 장군'을 높이지 않고 있다. ③ 주체인 '어린이'는 화자(선생님)에게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화자는 수업이라는 공적인 담화 상황을 고려하여 '-시-'를 통해 '어린이'에 대한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④ 주체인 '아빠'는 화자(할머니 혹은 할아버지)에게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청자인 '손자'에게는 높임의 대상이다. 따라서 화자는 주체인 '아빠'와 청자인 '손자'의 관계를 고려해서 '-시-'를 통해 '아빠'에 대한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06 ①에서 '저희'는 그 자체에 낮춤의 의미가 있는 특수 어휘(㉡)이고, '드리다'는 그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이다.

오답 해설 ②·④·⑤ 각각 '연세', '여쭈다' '모시다'를 ㉠으로 볼 수 있지만, ㉡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제'와 '말씀'을 ㉡으로 볼 수 있지만 ㉠은 사용되지 않았다. 참고로, '말씀'은 자기의 말을 가리킬 때는 낮춤, 남의 말을 가리킬 때는 높임의 의미가 담기는(예 아버지 말씀) 어휘이다.

07 ㉡에서 '데리고'를 '모시고'로 수정한 것은 주체인 삼촌이 아니라 객체인 할머니를 직접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계신가요'를 '있으신가요'로 수정한 것은 '아버지의 고민'을 높임으로써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주체인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이므로, 주체를 직접 높이는 어휘인 '계시다' 대신 '있으시다'로 바꾼 것이다. ③ '이'를 '께서'로, '온다고'를 '오신다고'로 수정해서 주체인 부장님을 직접적으로 높인 것이다. ④ '한테'를 '께'로, '주라고'를 '드리라고'로 수정해서 객체인 할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높인 것이다. ⑤ '한테'를 '께'로, '물어봐'를 '여쭤봐'로 수정해서 객체인 선생님을 직접적으로 높인 것이다.

08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에서 문장의 주체는 할아버지이지만, '과일 좀 드리고 오렴.'에서 문장의 주체는 말을 듣는 상대이고, 할아버지는 문장의 객체이다. 따라서 화자는 '드리고'의 '드리-'를 통해 문장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③ '-구나'는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이를 통해 화자가 '할아버지께서 방에 계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⑤ '-렴'은 부드러운 명령이나 허락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이를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할아버지께 과일을 드리고 오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09 ㉡의 '먹었겠다'에서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만, '-겠-'은 주체의 의지가 아니라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오답 해설 ① '그렸구나'의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③ '공부하는'은 '공부하다'라는 동사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은 것이다. ④ '읽은'은 '읽다'라는 동사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은 것이다. ⑤ '불겠지만'에서 '-겠-'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Plus 〈참고〉

'-겠-'과 '-(으)ㄹ 것'의 의미

추측	예 지금쯤 수업이 끝났겠다(끝났을 것이다).
의지	예 나는 시인이 되겠다(될 것이다).
가능성, 능력	예 그런 것은 삼척동자도 알겠다(알 것이다).

10 '너는 이제 집에 돌아오면 혼났다.'의 '-았-'은 미래의 일을 표현하는 데 쓰인 것으로, 미래 실현에 대한 확신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② 살았었다 ③ 덥더라 ④ 읽은 ⑤ 푸르던

11 '이제 나무 아래에서 낮잠은 다 잤다.'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했지만, 그 의미는 '앞으로는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잘 수 없다.'이므로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인 미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선행'하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기 위한 예시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선어말 어미 '-는-'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선어말 어미 '-었었-'을 사용하여 시간적으로 거리가 먼 과거를 표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주어가 1인칭인 경우에 선어말 어미 '-더-'의 쓰임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Plus 〈참고〉

'-더-'의 특징

'-더-'는 기본적으로 1인칭 주어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
예 나는 어제 지각했더라.(×)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서술어일 경우 예 그 얘기를 들으니 왠지 슬프더라.
-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중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화자가 자신의 행동을 타인이 관찰하듯이 진술할 경우 예 꿈에서 내가 합격을 했더라.
- 새삼스럽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비록 미래의 일이라도 그것을 안 시점이 과거일 경우 예 아까 달력을 보니 내일이 아버지 생신이더라.

12 ㉠은 '-아 있다'를 사용하여 앉는 동작이 끝났음을 드러내는 완료상이다. ㉡은 '-고 있다'를 사용하여 뛰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진행상이다. ㉢은 '-어 버리다'를 사용하여 먹는 동작이 끝났음을 드러내는 완료상이다. ㉣은 '-어 가다'를 사용하여 먹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진행상이다. 따라서 동작상이 같은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②이다.

13 ㉡은 동사의 어간 '내리-'에 관형사형 어미 '-ㄹ'과 의존 명사 '것'이 결합된 '내릴 것', 부사어 '내일'을 통해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내리다'에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한 '내린다'와 부사어 '지금'을 통해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 즉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③ 동사의 어간 '찾아가-'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찾아간'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④ ㉠에는 '지금', ㉡에는 '내일'이라는 부사어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⑤ ㉡에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미래 시제가, ㉢에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가 나타난다.

14 '잠시 후 결과가 발표된다.'에서 선어말 어미 '-ㄴ-'은 미래를 나타내고(ⓐ), '일찍 출발하느라 고생했겠다.'에서 선어말 어미 '-겠-'은 추측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② '삼촌은 곧 여기를 떠난다.'에서 선어말 어미 '-ㄴ-'은 미래를 나타내지만, '잠시만 비켜주시겠습니까?'에서 선어말 어미 '-겠-'은 완곡한 표현을 나타낸다. ⑤ '우리 고향은 이미 추수가 다 끝났겠다.'에서 선어말 어미 '-겠-'은 추측을 나타내지만, '그가 내 의도를 알아채고 웃는다.'에서 선어말 어미 '-는-'은 현재를 나타낸다.

15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는 시제'는 과거 시제이고,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는 진행상이다. ②는 철수가 책을 읽는 사건이 일어난 사건시가 그 사건을 언어로 표현하는 발화시보다 앞서므로 과거 시제이고(어제, -었-), 책을 읽는 동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므로 진행상이다(-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현재 시제, 진행상 ③ 현재 시제, 완료상 ④ 과거 시제, 완료상 ⑤ 미래 시제

16 ①의 '가려진'은 기본형 '가리다'에 '-어지다'만 붙은 것으로, 피동 표현을 두 번 겹쳐 쓴 이중 피동 표현의 예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쓰여진: 기본형 '쓰다' + 피동 접미사 '-이-' + '-어지다' ③ 담겨진: 기본형 '담다' + 피동 접미사 '-기-' + '-어지다' ④ 열려진: 기본형 '열다' + 피동 접미사 '-리-' + '-어지다' ⑤ 보여진: 기본형 '보다' + 피동 접미사 '-이-' + '-어지다'

17 ㉠은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게 한 것이므로 사동사이고, ㉡은 아기 곰이 어미에게 안음을 당한 것이므로 피동사이다.

오답 해설 ① '끈'과 '피로'가 푸는 행위를 당한 것이므로 모두 피동사이다. ② ㉠은 아이가 업는 행동을 당한 것이므로 피동사, ㉡은 누나가 아기를 업는 행동을 시킨 것이므로 사동사이다. ③ ㉠은 내가 마르는 동작을 하게 한 것이므로 사동사, ㉡은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을 못하게 방해하다.'의 뜻을 지닌 말로, 피동사도, 사동사도 아니다. ④ 주체가 '몸'과 '고드름'을 녹게 한 것이므로 모두 사동사이다.

18 '밝혀졌다'는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를 드러내 알리다.'의 뜻을 지닌 동사 '밝히다'에 '-어지-'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동사 '입다'에 '-히-'가 결합한 형태이지만, 이때의 '-히-'는 피동 접사가 아니라 사동 접사이다. ② '건네받다'는 '건네다 + 받다'의 합성어이다. 이때의 '받다'는 접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의 뜻을 지닌 동사이다. ④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표현한 경우가 아니고,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도 상정할 수 있다('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한다.'). '존경받다'는 ㉡의 예에 해당한다. ⑤ '이루다'는 타동사이므로 여기에 '-어지-'가 결합한 '이루어지다'는 ㉤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어제' 형이 '내일' 시험을 본다고 말한 것은, 인용을 하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형이 '오늘' 시험을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료]의 간접 인용에서의 시간 표현은 '오늘'이 적절하므로, '어제'로 바꿔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0 ⓒ에서 '동생'을 '할머니'로 바꾸면 '나는 할머니께 책을 읽혔다.'가 된다. 책을 '읽히는'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읽혔다'에는 '-시-'를 넣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 ⓑ는 각각 '어머니께서 동생을 업으셨다.', '동생이 어머니께 업혔다.'가 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는 '나는 할머니께서 책을 읽으시게 했다.'가 된다. '읽는' 주체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읽게'에 '-으시-'를 넣어야 한다. ④ ⓐ, ⓑ는 각각 '형이 동생을 업고 있다.', '동생이 형에게 업히고 있다.'가 된다. 이 중 '형이 동생을 업고 있다.'는 완료상과 진행상으로 모두 해석될 수 있지만 '동생이 형에게 업히고 있다.'는 진행상으로만 해석된다. ⑤ ⓐ, ⓒ는 각각 '형이 동생을 업고 있다.'와 '나는 동생에게 책을 읽히고 있다.'가 되고, 둘 다 진행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21 제시문은 학술 담화로, 전문어와 한자어를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고유어를 사고 도구어로 활용한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참고로, 사고 도구어로는 주로 한자어가 사용된다.

오답 해설 ② '휴리스틱', '넛지', '프레이밍' 등의 전문어의 의미를 풀이하면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⑤ 전문 분야에서 필요한 개념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휴리스틱', '넛지', '프레이밍' 등의 외래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22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대응한다고 주장하였다.'에서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의 주장을 간접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③ 미래 시제는 사용되지 않았다. ④ '해라체'를 사용하고 있다. ⑤ 주체 높임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52~153쪽

01 해설 참조 02 (1) 보았다, 본 / 본다, 보는 / 보겠다, 볼 (2) 예뻤다, 예쁘던 / 예쁘다, 예쁜 / 예쁘겠다 / 예쁠 (3) 이었다, 이던 / 이다, 인 / 이겠다, 일 03 (1) 철수가 의자에 앉고 있다. / 철수가 의자에 앉아 있다. (2) 그가 어제 "내일 너를 보러 가겠다."라고 말했다. / 그가 어제 오늘 나를 보러 오겠다고 말했다. (3) 도둑이 경찰에 잡혔다. 04 (1) 할머니를 모시고 시장에 다녀왔어. (2) 지영아,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오라셔. (3) 오늘은 날씨가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분은 독립된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05 인용 표현과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01

	높임 표현이 나타난 부분	높이의 대상(높임의 종류)
㉠	께서, -시-	어머니(주체 높임)
㉡	께서, 계시다	할아버지(주체 높임)
㉢	-ㅂ니다	청자(상대 높임)
㉣	께, 드리다	할머니(객체 높임)
㉤	께서, -시-, -ㅂ니다	할머니(주체 높임), 어머니(상대 높임)
㉥	께서, 께, 여쭈다, -습니다	선생님(주체 높임), 할머니(객체 높임), 청자(상대 높임)

02 현재 시제에서 동사의 관형사형 어미는 '-는'이고('보는')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의 관형사형 어미는 '-(으)ㄴ'이다('예쁜', '반장인'). 또한 현재 시제에서 동사의 선어말 어미는 '-는-/-ㄴ-'이지만('본다')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는 선어말 어미 없이 표현된다('예쁘다', '반장이다').

04 (1) '데리고'를 '모시고'로 고쳐서 객체인 할머니를 높여야 한다.
(2) 높임의 대상이 선생님이므로 조사 '이'를 '께서'로 바꾸고, '오시래'를 '오라셔(오라고 하셔)'로 바꾸어야 한다.
(3) '보여집니다'는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보입니다'로 바꾸어야 한다.
(4) 간접 인용 표현이므로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꾸어야 한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54~15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03 상대 높임은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인다.

06 주체 높임에 사용되는 조사는 주격 조사 '께서'이다. '께'는 객체 높임에 사용되는 조사이다.

11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서는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지 않는다.

16 '-고 있다', '-는 중이다', '-(으)면서'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진행상이다. 완료상은 '-아/-어 있다', '-아/-어 버리다' 등으로 표현한다.

18 피동 접미사 '-되다'를 붙여 피동을 표현하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이다.

21 직접 인용은 '라고', 간접 인용은 '고'를 사용한다.

26 전문어가 아니라 사고 도구어에 대한 설명이다. 전문어는 특정 분야의 지식을 담은 용어를 말한다.(예 형태소(形態素), 공시 지가(公示地價))

4 민주 시민의 대화

01 논증 파악하며 읽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60~165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④	05 ②	06 ④	07 ③	08 ④
09 ④	10 ⑤	11 ②	12 ①	13 ②	14 ⑤	15 ③	16 ④
17 ⑤	18 ①	19 ④	20 ①				

01 (라)에는 (다)에서 제시한 근거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 있으며, 이를 통해 '주장이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진술'인 '이유'가 드러난다. '근거와 이유를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내세우는 의견'은 '주장'으로, (라)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사람이 무엇을 ~ 밀어주는 힘'에서 동기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② 동기의 종류에는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③ 실험 내용을 통해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보, 즉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⑤ '외재 동기면 어떤가 ~ 생각할 수 있다.'와 같은 예상 반론을 제시한 뒤 그에 대한 글쓴이의 반박을 제시하고 있다.

02 (다)의 실험을 통해 외적 보상이 쉬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어려운 문제, 즉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를 푸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⑤ 외적 보상은 쉬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했다. 따라서 외적 보상이 모든 유형의 문제를 푸는 데 효과적이라거나 문제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다)의 실험 내용을 통해 외적 보상이 내재 동기에 비해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03 ㉡과 같은 예상 반론에 대해 글쓴이는 외적 보상만을 좇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외적 보상을 좇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보상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보상해 주는 사람과 갈등을 빚고 남들과도 끝없이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외재 동기, 즉 외적 보상만을 좇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뿐 외재 동기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외적 보상을 제시하는 부모나 회사 대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을 뿐 외적 보상을 제시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 ④ 외재 동기가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외적 보상을 좇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고, 또 보상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보상해 주는 사람과 끝없이 갈등을 빚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외적 보상을 좇는 사람들이 외적 보상을 주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관리된다고 볼 수는 없다.

04 (가)는 (나)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진술이 나타나므로 ㉡ '이유'에 해당한다.
(나)는 필즈상을 받은 수학자, 노벨상을 받은 파인먼, 국제 피아노 대회 우승자의 사례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타나 있으므로 ㉢ '근거'에 해당한다.
(다)는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대응이 나타나 있으므로 ㉣ '반론에 대한 반박'에 해당한다.
(라)는 (가), (나)의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내세우는 의견이 나타나므로 ㉠ '주장'에 해당한다.

05 (가), (나)에는 필즈상을 받은 수학자, 노벨상을 받은 파인먼, 국제 피아노 대회 우승자 등의 개별적, 구체적 사례에서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 낸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③ 연역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④ 전제가 참이어도 결론은 참이 아닐 수 있는 것은 귀납 논증의 특징이지만,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연역 논증이다. ⑤ 유비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06 (다)의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도 모른다. 평범한 사람들은 내재 동기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평범한 사람들은 내재 동기로 삶을 살아가기 어렵지만,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은 이들과는 다르므로 내재 동기로 살아갈 수 있다.'가 글쓴이가 예상한 반론이다.

오답 해설 ① 평범한 사람들은 외재 동기가 아니라 내재 동기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②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이다. ③ 상을 타거나 남과의 경쟁에서 승리했을 때에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나)의 사례를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해당한다. ⑤ 글쓴이가 예상 반론에 대해 제시한 반박의 내용이다.

07 이 글과 같이 논증이 나타난 글은 주장과 이유, 근거, 반론에 대한 반박 등의 논증 요소가 타당한지 평가하고, 글에 나타난 논증 방법을 파악하는 한편 그 효과를 판단하며 글을 읽어야 한다. 화제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은 주관성을 띠므로 객관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8 글쓴이는 (다)에서 '외재 동기면 어떤가, 칭찬이든 다른 보상이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을까?', (마)에서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내재 동기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예상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가): 중심 제재인 동기의 개념과 종류를 밝히고 글의 화제를 제시한 부분이다. (나): 실험 내용을 통해 근거를 제시한 부분이다. (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근거를 제시한 부분이다. (바): 앞서 제시한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주장을 제시한 부분이다.

09 (라)에 제시된 필즈상을 받은 수학자와 노벨상을 받은 파인먼은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에는 '내재 동기는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아서 삶을 행복하게 한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0 '평범한 사람들은 내재 동기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언급은 있으나 이를 통해 보통 사람들이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 중 무엇을 더 중시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동기에는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외재 동기는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내재 동기는 무엇을 할 때에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거나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외적 보상만을 좇으면 생기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④ (나)에서 외적 보상은 쉬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됨을 알 수 있다.

11 (바)에서 '고래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며 춤을 추게 하려면 조련사의 칭찬이 아니라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고래가 칭찬을 통해 춤을 추

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며 춤을 추게 하려면 칭찬이 아닌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에서 '칭찬'도 결국 외적 보상이다.'라고 했다. ④, ⑤ (바)에서 글쓴이는 내재 동기를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주변의 시선이나 환경에 휩쓸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 불행해지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내재 동기에 따라 살아야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12 성과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은 외적 보상을 받으려고 일을 하는 것이므로 외재 동기에 의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무엇을 할 때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거나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한 것이므로 내재 동기에 따른 것이다.

13 ㉡ 앞에서 '하지만 이들은 평생 수많은 찬사를 받아 왔다.'라고 한 것에서,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은 평생 수많은 찬사를 받아 왔기에 찬사와 같은 외재 동기의 유혹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라)의 사례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은 내재 동기에 따라 행동했음을 알 수 있다. ③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은 남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과 같이 생각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다. ④ (라)의 사례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이 내면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것이 ㉡과 같이 생각한 이유인 것은 아니다. ⑤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 상을 타거나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것이 ㉡과 같이 생각한 이유인 것도 아니다.

14 ㉠ '실험'은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동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외적 보상은 쉬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을 근거로 제시한 이유는 외적 보상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을 통해 외적 보상과 인간 행동에 대한 통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 정보이다. ③ ㉠을 통해 외적 보상의 한계가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내재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을 통해 문제 해결에 외적 보상이 미치는 영향은 확인할 수 있으나 어떤 외적 보상이 효과적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15 자신이 무엇을 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나)에 제시된 사례들을 통해 이끌어 낸 결론에 해당하며 전제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허○○ 교수와 파인먼은 모두 외적 보상을 얻었으나 내재 동기를 통해 기쁨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 준 구체적인 사례들로, 이를 통해 내재 동기가 삶을 행복하게 해 준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④, ⑤ (나)에는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는데, 〈보기〉에서 귀납 논증은 사례가 충분할수록 이끌어 낸 결론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 것과, 그러나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이 항상 참인 것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16 (라)에서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때에 내재 동기가 나온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해진다.'라고 한 것에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① 큰 성공을 거둔 사람과 평범한 사람들이 지닌 동기가 어떠한지가 아니라 어떠한 동기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다. ② 상을 타거나 남과의 경쟁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나,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려는 바는 아니다. ③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동기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복을 위해 내재 동기를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⑤ 내재 동기가 중요하다고 본 것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해서이다.

17 이 글에는 '집'과 '사람의 몸', '나라의 정치'의 유사한 속성을 토대로 한 유비 논증이 사용되었다. 개별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귀납 논증이다.

오답 해설 ① (가)는 글쓴이의 체험에 해당하는 사실, (나)와 (다)는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사실 + 의견'의 2단 구성으로 볼 수 있다. ②, ④ (가)에 나타난 행랑채를 수리한 일상적인 경험을 토대로 잘못을 알면 곧바로 고쳐야 한다는 깨달음(주장)을 전하고 있다. ③ '그러니 어찌 행동을 조심히 하지 않겠는가.'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경계의 태도가 드러난다.

18 비가 새기 시작한 것을 알았을 때 바로 지붕을 고쳤다면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았을 텐데 뒤늦게 지붕을 고치려다 수리비가 많이 들게 된 상황이므로 '커지기 전에 처리하였으면 쉽게 해결되었을 일을 방치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와 어울린다.

오답 해설 ② 사람이 글자를 모르거나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아무 관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형편이나 사정이 전에 비하여 나아진 사람이 지난날의 미천하거나 어렵던 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성격이 매우 급하거나 일을 하는 데 매우 조급해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9 (가)~(다)의 내용은 '경험(대상의 분석) – 대상의 의미 유추 – 대상의 의미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가)에 나타난 경험을 토대로 깨달은 바를 (나)에서는 '사람의 몸', (다)에서는 '나라의 정치'에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집을 수리한 경험이 나타날 뿐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나)와 (다)는 (가)의 경험을 토대로 깨달은 바를 각각 '사람의 몸'과 '나라의 정치'에 적용한 내용으로 상반된 견해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에 사건의 결과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나)와 (다)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가)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에 적용한 것이다.

20 이 글에서는 '집'을 수리할 때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모두 못 쓰게 되어 수리비가 많이 들었으나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재목들은 아직 온전하여 쉽게 고칠 수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이든 정치든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글쓴이는 잘못을 알게 되면 빨리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③ '사람의 몸'이나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는 일의 공통점을 언급하고 있을 뿐 그 일의 순서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낡은 집을 수리하는 일과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일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의견을 전하고 있다. ⑤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을 뿐 나라의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66~169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⑤ 05 ① 06 ① 07 ① 08 ③
09 ⑤ 10 ③ 11 ④ 12 ⑤

01 이 글은 내재 동기를 따르는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관점을 드러낸 글로, 외재 동기를 중시하는 모습이나 글쓴이의 논증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이 제시되어 있으나 두 관점을 절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동기의 개념과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② (나)와 (라)에서 실험과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가)에서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의 예를, (다)에서 외적 보상의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등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⑤ (가)에서 '우리는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 중 어떤 것에 따라서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화제를 제시하는 한편 (바)에서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라며 질문 형식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글쓴이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02 (가)는 동기의 개념과 종류를 밝힌 서론이고, (나)~(마)는 본론, (바)는 주장을 밝힌 결론에 해당한다. 이 중 (나)~(마)는 다시 실험을 근거로 하여 이유를 제시한 (나)와 그와 관련하여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제시한 (다), 사례를 근거로 하여 이유를 제시한 (라)와 그와 관련하여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제시한 (마)로 나누어 묶을 수 있다.

03 이 글에서 예상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이 제시된 부분은 (다)와 (마)이다. (다)에서는 "외재 동기면 어떤가, 칭찬이든 다른 보상이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예상 반론을 제시한 뒤, 외적 보상만을 좇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여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④ (나)에서는 실험 내용이라는 객관적 정보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실험의 출처 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04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것을 다른 사람이 활용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만족감을 중시하는 것이므로 내재 동기와 관계 깊다. 나머지는 모두 외적 보상을 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이므로 외재 동기가 작용한 것이다.

05 외적 보상을 좇는다는 것은 상을 타거나 칭찬을 듣는 등의 보상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적 보상을 좇을 때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진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② (바)에서 내적 동기를 등한시하면 주변의 시선이나 환경에 휩쓸리게 되어 불행해진다고 한 것을 통해, 외적 보상만을 좇을 때의 문제점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다)에서 외적 보상을 좇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로, 그 요구가 점점 커지기 때문임을 제시하고 있다. ④, ⑤ (다)에서 외적 보상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보상을 해 주는 사람과 끝없이 갈등을 빚고, 남들과도 끝없이 비교하게 되어 마음이 황폐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06 (나)에서는 실험 결과를 통해 외적 보상은 쉬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적 보상인 성과급은 쉬운 문제 해결에만 효과적일 것이므로, 성과급 규정이 있어서 잘 돌아간다고 할 때 그 회사는 쉬운 업무만 해결하려고 하는 조직일 수 있는 것이다.

07 (가)는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 중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때 나오는 내재 동기에 따라 살 때 행복해진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잘못을 발견했을 때 빨리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둘 다 바람직한 삶을 위해 필요한 자세에 대한 의견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가), (나) 모두 부정적인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③ (나)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가)에는 경험이나 개선 의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 일상적인 체험에서 깨달은 바를 다른 대상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나)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가)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 내고 있다.

08 (가)에는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례에서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ㄹ)인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는데, 귀납 논증은 사례가 충분할수록 이끌어 낸 결론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ㄴ). (나)에는 두 대상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ㅁ)인 유비 논증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ㄱ, ㄷ. 연역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09 C는 A의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에서 깨달은 바를 '나라의 정치'에 적용한 내용으로, 나라의 정치에서도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비가 샌 곳을 바로 고치듯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즉 C에서는 유추의 방법으로 의미를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 주장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을 제시한 부분이다. ② (나)에서는 '집'과 '사람'의 유사한 속성을 근거로 경험에서 깨달은 바를 '사람'의 일에 적용하고 있다. ③ (나)에서는 '사람'에게 적용한 의미를 '나라의 정치'에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10 국제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한 임○○ 씨는 우승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확인하려는 내재 동기에 따라 대회에 출전했으며 우승보다는 연주 그 자체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했다. 즉 외적 보상에 연연하기보다 내재 동기에 따라 행동하며 행복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나, 외적 보상을 거부하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허○○ 교수, 파인먼, 국제 피아노 대회 우승자 임○○ 씨는 모두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내재 동기에 따라 행동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필즈상을 받은 허○○ 교수가 언론에 주목받는 것보다 수학 연구에 몰두하는 것을 낙으로 여긴다고 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파인먼의 인터뷰에는 '내재 동기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삶의 기쁨이 드러나 있다.'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기업에서 일 잘하는 직원 중에는 능력을 인정받더라도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이들이 있다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고래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며 춤을 추게 하려면 조련사의 칭찬이 아니라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에서 비를 한 번 맞고 샜던 것을 서둘러 고친 것은 잘못된 부분을 알고 바로 고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나라의 정치'에서 나라가 위태로워진 뒤 급하게 바로잡는 것은 이미 행랑채가 낡고 떨어져 버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뒤늦게 잘못을 고치려 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연결로 볼 수 없다.

12 ㉡과 ㉣에는 '집'을 수리할 때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모두 못 쓰게 되어 수리비가 많이 든 것과 의미가 통하는 내용이, ㉢과 ㉤에는 '집'을 수리할 때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재목들은 아직 온전하여 쉽게 고칠 수 있었던 것(㉠)과 의미가 통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나)에서 백성이 도탄에 빠진 뒤 급하게 바로잡으려 하면 '그때는 이미 썩어 버린 재목처럼 늦어 버리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이는 ㉣에 들어가야 어울리는 것이다. 따라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70~171쪽

01 외적 보상을 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외재 동기에 따른 것이고, 무엇을 할 때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거나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한다면 내재 동기에 따른 것이다. 02 ⓐ: 외적 보상, ⓑ: 자유 ⓒ: 내재 동기 03 (나)는 필즈상을 받은 수학자와 노벨상을 받은 파인먼의 사례를 통해 내재 동기는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아서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귀납 논증을 사용하고 있다. 04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은 평생 수많은 찬사를 받아 왔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보다 외재 동기의 유혹을 더 많이 받았지만 내재 동기를 중시한다. 05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때에 나오는 내재 동기를 따라야 한다.

01 (가)의 '외적 보상을 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외재 동기에 의한 것이다.'와 '무엇을 할 때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거나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한다면 내재 동기가 작용한 것이다.'에서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02 (가)에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에서 '칭찬'도 결국 외적 보상이라고 했고, (라)에서 고래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며 춤을 추게 하려면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라)에서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때 나오는 내재 동기를 따라야 행복해진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03 (나)에서는 필즈상을 받은 수학자와 노벨상을 받은 파인먼의 사례를 통해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내재 동기를 따라 행동할 때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적,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은 귀납 논증이다.

05 (라)에서 글쓴이는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재 동기에 따라 살 때 행복해지며, 내재 동기를 등한시하면 주변이나 환경에 휩쓸려 불행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O×로 마무리 check

본문 172~17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4 두 대상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은 유비 논증이다.

07 이 글의 제목은 흔히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칭찬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고래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며 춤을 추게 하려면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내적 동기에 따르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9 이 글에서는 예상되는 반론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이나 간과한 부분을 지적하며 반박하고 있으나 이때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10 이 글의 본론에서는 필즈상을 받은 교수, 노벨상을 받은 파인먼, 국제 피아노 대회 우승자의 사례 등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귀납 논증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역 논증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14 필즈상을 받은 교수의 사례 등은 내적 동기는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아서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시된 근거이다.

15 글쓴이는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도 모른다.'는 예상 반론에 대해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은 평생 수많은 찬사를 받아 왔기에 평범한 사람들보다 외재 동기의 유혹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18 이 글에서는 외적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때 나오는 내재 동기에 따라 살 때 행복해진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02 논증하고 토론하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76~183쪽

01 ③	02 ③	03 ③	04 ④	05 ③	06 ③	07 ⑤	08 ③
09 ⑤	10 ③	11 ②	12 ③	13 ⑤	14 ⑤	15 ④	16 ⑤
17 ⑤	18 ①	19 ④	20 ③	21 ⑤	22 ⑤	23 ⑤	24 ①
25 ⑤	26 ④						

01 이 토론의 논제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이며 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⑤ 가치 논제에 대한 설명이다. ②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④ 사실 논제에 대한 설명이다.

02 입론에서는 논제에 관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특히 첫 번째 입론에서는 주요 용어 및 개념을 정의하고 논제가 등장한 배경을 명시한다.

오답 해설 ㄱ은 반대 신문, ㄹ은 반론에 해당한다.

03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진술이나 생각'은 논증 요소 중 '이유'에 해당한다. ㉡은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한 이유, ㉣은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이익이 있다.'라는 주장에 대한 이유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논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 ㉤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04 (나)의 4문단에서 보통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 선진국으로 들어섰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에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고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오답 해설 ① (나)의 2문단에서 '오늘날 세계는 전쟁, 경제 위기,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나)의 1문단에서 난민이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심사를 신청하는데, 이 결과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비율을 '난민 인정률'이라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나)의 3문단에서 ○○ 일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2.8%와 비교할 때 매우 낮다고 했다. ⑤ (나)의 5문단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한 나라인 독일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에 난민과 이주민 110만 명을 수용하면서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고 했다.

05 (나)는 찬성 측의 첫 번째 입론으로 난민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제시하고 있으나 문제 상황에 대한 통념이나 그에 대한 반박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난민', '난민 인정률'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난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논제의 등장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인가?',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이익이 있는가?'라는 필수 쟁점 세 가지에 대해 각각 주장과 이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⑤ ○○ 일보 출처의 난민 인정률에 대한 통계 자료,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 독일의 사례, 프랑스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06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찬성 1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나 실행 가능성을 쟁점으로 한 주장이다. ②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효과나 이익을 쟁점으로 한 주장이다. ④ 문제의 심각성을 쟁점으로 한 주장과 관련하여 이유로 언급한 내용이다. ⑤ 논제가 등장한 배경과 관련된 내용이다.

07 (다)에서 '반대 2'는 (나)에서 '찬성 1'이 이유로 제시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그럼에도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찬성 1'이 서유럽 국가의 예를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서유럽 국가의 상황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 따라서 찬성 측이 제시한 근거와 이유에서 논리적 허점을 찾아 검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주장의 모순된 지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③ 근거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했을 뿐, 출처나 조사 시점에 대해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④ 근거가 적절한지 검증하고 있을 뿐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다.

08 중립적 입장에서 토론을 경청하며 찬반 양측의 논증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것은 청중의 역할이다.

오답 해설 ① 토론자들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토론 절차에 맞게 발언해야 한다. ② 토론에서 토론자의 발언 기회와 그 시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토론자는 이를 고려해 발언해야 한다. ④, ⑤ 토론에서 토론자는 필수 쟁점에 대한 주장을 밝히고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논증하며, 상대측의 주장, 이유, 근거 등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역할을 한다.

Plus 〈참고〉

토론 참여자와 청중의 역할

- **사회자:** 논제를 소개하고, 토론자가 토론의 규칙과 순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한다.
- **찬성 측 제1토론자:** 찬성 측에서 제시하는 해결 방안이 해결력이 있음을 입증한다.
- **반대 측 제1토론자:** 찬성 측에서 제시한 주장에 관해 쟁점별로 반박한다.
- **제2토론자:** 제1토론자의 발언을 보충하거나 제1토론자가 미처 말하지 못한 새로운 주장을 펼친다.
- **청중:** 중립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경청하고, 논증이 타당한지와 토론자들이 토론 규칙을 잘 준수하는지를 판단하며 듣는다.

09 '난민 인정률을 높인다 해도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보호받으며 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민 인정률을 높여서 난민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사회에 이익보다는 여러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난민 인정률을 갑자기 높이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와 같은 '반대 1'의 발언을 고려할 때 이 토론의 논제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반대 1'의 발언에서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한 쟁점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② '반대 1'이 (가)에서 우리나라에 난민들이 정착해서 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제도 마련을 쟁점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③ 우리나라가 난민의 수용과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반대 1'이 (가)에서 난민 인정률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난민 심사 기준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Plus 〈참고〉

논제 정하기

- 찬반 양측이 대등하게 논증을 제시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 긍정의 평서문 형식으로 표현하되, 중립적인 단어를 선택한다.
- 현상을 바꾸는 쪽으로 논제를 정한다.

10 (가)에서 '반대 1'은 필수 쟁점에 대한 주장을 밝히고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논제에 관한 자기 측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인 '입론'에 해당한다. (나)에서 '찬성 1'은 '반대 1'이 앞서 논증한 내용에 대해 논리적 허점을 찾아 질문하고 있으므로, 이는 입론을 마친 토론자

를 대상으로 주장과 근거의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를 찾아 질문하는 단계인 '반대 신문'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반론'은 상대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근거의 불충분함, 부적절함 등을 지적하는 단계로 입론과 반대 신문이 진행된 후에 이루어진다.

Plus 〈참고〉

토론의 발언

- **입론:** 논제에 관한 자기 측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함.
- **반대 신문:** 상대측이 준비한 주장과 근거의 논리적인 허점이나 오류를 찾아 여러 가지를 질문함.
- **반론:** 상대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근거의 불충분함, 부적절함 등을 지적함.

11 필수 쟁점 중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인가?(ㅁ)'를,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나 실행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문제가 해결되는가?(ㄴ)'를,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나 이익'에 대해서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이익이 있는가?(ㄱ)'를 필수 쟁점으로 하여 논증하고 있다.

12 ㄴ. (가)에서 '반대 1'이 '난민 인정률을 높여 그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더라도 잘 적응하여 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ㄷ. (가)에서 '반대 1'이 '우리나라는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 난민이 많이 찾는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오답 해설 ㄱ. 반대 측은 난민 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므로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은 반대 측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ㄹ. 반대 측은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난민 인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반대 측의 입장으로 볼 수 없다. ㅁ. 반대 측은 난민 수용에 관한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13 (가)는 반대 측 제1토론자의 입론으로, 찬성 측에서 제시한 주장에 대해 쟁점별로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즉 먼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이 문제라는 찬성 측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난민이 많이 찾는 나라가 아니므로 이는 우리나라에서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또 찬성 측 주장에 따라 난민 인정률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여 살기 쉽지 않을 것임을 들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우리 사회에 이익보다는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반대 측 제1토론자는 입론에서 찬성 측에서 정의한 개념을 점검할 수 있으나 (가)에는 이러한 말하기가 나타나지 않았다. ② '반대 1'은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없고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인한 이익도 없다는 입장이다. ③ 반대 신문에서 나타나는 말하기이다. ④ (가)에 논제의 등장 배경을 언급하며 반박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14 [A]에서 앞서 제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언급한 것은 53%가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범죄가 늘어날 것에 관한 불안감 때문임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주장, 즉 난민이 많이 들어오면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여론 조사 결과 자체를 [A]에서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② [A]는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나 이익과 관련한 필수 쟁점, 즉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이익이 있는가?'에 대하여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이익보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④ '장기간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국가는, 이주한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늘어나자 외국인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 급기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 (나)에서 '반대 1'은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만,' ' 여론 조사 결과가 실제 범죄율이 아니라는 지적은 맞습니다.'와 같이 '찬성 1'의 지적을 수용하는 한편,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와 같이 근거를 보강하거나 '국민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와 같이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언급하고 있을 뿐 자신의 발언 내용을 수정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찬성 1'은 '반대 1'이 근거로 제시한 여론 조사 자료를,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라며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여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② '찬성 1'은 '반대 1'이 근거로 제시한 여론 조사 결과가 난민의 범죄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한 것이지 실제 범죄 사실을 파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③ '찬성 1'은 난민 수용으로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반대 1'의 우려와 달리 '난민들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난민 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조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반대 1'은 여론 조사 결과의 해석에 대한 '찬성 1'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아직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16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를 나타낸 표와 (마)를 통해 반대 신문식 토론은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에서 시작하여 찬성 측 제2 토론자의 반론으로 마무리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④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를 나타낸 표와 (마)를 통해, 첫 번째 입론과 반대 신문, 두 번째 입론과 반대 신문이 끝난 후 반론을 주고받음을 알 수 있다.

17 (다)에서는 2013년에 〈난민법〉을 시행하여 합리적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그 합리적 심사 과정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다)에서 반대 측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2021년 난민 심사 현황과 난민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독일의 사례이다.

18 (가)에서 '찬성 2'가 '하나의 국가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나)에서 '반대 1'이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라고 한 것을 통해 찬반 양측이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다)에서 '반대 2'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심사는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언급했다. ③ (라)에서 '반대 2'가 드러낸 입장으로, 찬성 측이 이에 동의하는지는 알 수 없다. ④ (나)에서 '반대 1'은 물질적 지원과 같은 간접적 지원 방법으로도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간접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찬성 측의 입장이다. ⑤ (다)에서 '반대 2'는 우리나라가 난민의 정착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고 했을 뿐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니며, 찬성 측 또한 이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19 (나)에서 '반대 1'은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찬성 측 주장에 대해 '난민 기구에 물질적 지원을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하고 있다. 이는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 외에 간접적 방안도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② '찬성 2'가 근거로 제시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사례

를 난민 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 지적하고 있을 뿐, 그 사례가 주장과 관련이 없다거나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다. ③ 주장의 모순된 점을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다른 문제 해결 방안을 언급했을 뿐 문제 해결 방안의 한계나 효과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20 (다)의 '반대 2'는 '2021년에는 공무원 1명이 평균 129건이나 되는 심사를 담당'했다는 등의 통계 자료와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아직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다)에서 토론자가 토론의 규칙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은 사회자이다. ② (다)의 '찬성 2'는 토론 규칙을 지키지 않고 발언했으므로 적절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 ④ (라)의 '찬성 2'는 '반대 2'가 입론에서 제시한 근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것이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다. ⑤ (라)의 '반대 2'는 '찬성 2'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적한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답을 역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21 상대측 토론자의 발언을 경청한 뒤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토론자의 역할이다.

22 ㅁ에 들어갈 전략은 '비용보다 효과나 이익이 큼.'이다. '비용이 이익이나 효과보다 큼.'은 반대 측의 전략에 해당한다.

23 (다)는 상대측이 준비한 주장과 근거의 논리적인 허점이나 오류를 찾아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 반대 신문 단계이다. 상대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근거의 불충분함, 부적절함 등을 지적하는 것은 반론 단계이다.

24 ㄱ에 들어갈 필수 쟁점은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나 실행 가능성'으로, 찬성 측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이 가능한가?', 반대 측은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문제가 해결되는가?'를 필수 쟁점으로 하여 논증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③ 찬성 측은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며 ○○ 일보의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 수치,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의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규모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④, ⑤ 반대 측은 '난민 인정률을 높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제시하며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 조사를 근거로 하여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아서 난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25 ㉠에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독일뿐 아니라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서도 난민이 이주하여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경제가 발전했다는 연구 결과인 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난민 인정률의 개념일 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난민의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잘 마련한 사례로, 이를 통해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뒷받침하기는 어렵다. ③ 우리나라의 난민 심사 현황으로,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날 뿐 ㉠에 추가될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④ 난민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한 사례이나 이를 통해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뒷받침하기는 어렵다.

26 쟁점은 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세부 주장으로, 상대측의 반박에 따라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84~189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② 05 ③ 06 ② 07 ① 08 ②
09 ② 10 ③ 11 ② 12 ⑤ 13 ③

01 반대 신문은 상대측 입론 이후 입론의 내용에 대해 진행되는 것으로, 반론 이후에 진행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입장을 주고받고 있다. ③ 이 토론의 논제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④ 상대측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여 상대측이 제시하는 말을 반박하는 형식의 반대 신문식 토론에 해당한다. ⑤ (가)에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나라 상황에서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이 가능한가?',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이익이 있는가?'라는 필수 쟁점을 바탕으로 논증을 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2 필수 쟁점 1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를 뒷받침하는 '이유'는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기 못하는 것이기 때문(ㄴ)이라는 것이고 그 '근거'는 ○○ 일보의 각국 난민 인정률 수치(ㅁ)이다.
필수 쟁점 2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을 높일 수 있다.'를 뒷받침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ㄱ)이라는 것이고 그 '근거'는 ○○ 일보의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 수치(ㅂ)와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의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규모이다.
필수 쟁점 3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이익이 있다.'를 뒷받침하는 '이유'는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ㄹ)이라는 것이고 그 '근거'는 독일의 사례(ㄷ)와 프랑스국립과학연구원의 서유럽 국가의 난민 이주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03 (나)에서 '찬성 1'은 (가)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바탕으로 '반대 2'의 반대 신문에 반박하고 있으나, 난민 인정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가)에서 언급한 바 없는 유럽 국가들의 난민 예산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찬성 1'은 '난민'과 '난민 인정률'의 개념을 정의하고 난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논제의 등장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나)에서 '반대 2'는 '찬성 1'이 언급한 이유 중 경제 수준이 높아졌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④ (다)는 찬성 측 제2토론자의 입론으로, '찬성 2'는 (가)의 입론에서 '찬성 1'이 언급했던 내용과 관련한 주장을 보충하고 있다. 또한 반대 측에서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반박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⑤ '반대 1'은 '찬성 2'가 근거로 제시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사례를 난민 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04 ㉠에는 '찬성 1'이 서유럽 국가를 근거로 하여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이어진 '찬성 1'의 답변을 고려할 때 난민이 기존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와 선진국의 상황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적절하므로, 반박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ㄴ과 ㄷ이다.

오답 해설 ㄱ. 난민이 이미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어진 답변 내용으로 보아 ㉠에 들어갈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ㄹ. 난민 수용으로 인한 경제 성장을 주장하는 찬성 측에 대해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와야 하므로, 경제 성장면에 있어 난민 수용과 다른 방법의 효율성을 따지는 내용은 반대 신문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뒤에 이어지는 '찬성 1'의 발언과도 논리적

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ㅁ.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난민 수용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05 ㄱ~ㅂ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ㄴ과 ㄹ 2개이므로 적절한 것의 개수는 4개이다.

ㄱ: 정책 토론의 논제는 문제 해결에 관한 어떤 제안이나 주장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명확히 나뉘는 것이어야 한다.

ㄷ: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해결 방안은 무엇이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 '문제 해결 방안을 실행하여 얻는 효과나 이익이 있는가?'의 세 가지이다.

ㅁ: 토론에서 논증은 쟁점별로 구성하여 말해야 하며, 논증은 쟁점에 대해 내세우는 견해인 '주장',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진술이나 생각인 '이유',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근거'로 구성된다.

ㅂ: 토론의 준비 과정에서는 상대측의 반론이나 반대 신문의 내용을 예상하여 그에 대한 반박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답 해설 ㄴ: 논제는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긍정의 평서문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며,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ㄹ: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에서 찬성 측이 변화에 대한 주장을 맡으므로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고,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반박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해결 방안의 해결력을 입증하는 쪽이 찬성 측이고, 찬성 측 주장에 대해 쟁점별로 근거를 제시하여 반박하는 쪽이 반대 측이 되어야 한다.

06 난민 심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난민의 정착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은 둘 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난민 인정률을 높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난민 인정률을 높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에 드러난다. ③, ④ '공무원 1명이 평균 129건이나 되는 심사를 담당했으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평균 20.8개월'이라는 근거는 난민 인정률을 높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⑤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과 독일의 사례가 근거 자료로 제시되었으나 그 출처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

07 ㉠은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진술이므로 '이유'에 해당하고, ㉡~㉤은 모두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에 해당한다.

08 (가)에서 '반대 1'은 다른 국가에서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늘어난 사례와 우리나라의 여론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 난민 수용 시 범죄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난민을 수용한 이후 범죄가 늘어났다고 한 것은 아니다. (나)의 '찬성 1'의 반대 신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여론 조사 결과가 실제 범죄율이 아니라는 지적은 맞다고 언급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우리나라는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 난민이 많이 찾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은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가)의 '난민 인정률을 높인다 해도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보호받으며 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민 수용에 관한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나)의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만, 아직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서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 측이 말씀하신 경제 성장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라고 한 뒤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09 [A]에서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셨는데요.'라며 상대측 주장과 근거를 재진술한 후 그 근거의 해석이 적절한지 질문하고 있고, [B]에서는 '여론 조사 결과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늘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높은 것을 근거로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고 한 상대측 주장과 근거를 재진술한 후 근거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와 [B] 모두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③ [A]와 [C] 모두 상대측의 진술을 다시 언급했을 뿐 문제 제기를 인정한다고 볼 수 없다. ④, ⑤ [B]와 [C] 모두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 상대측의 주장이 실현되었을 때를 가정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거나 상대측이 사용한 용어의 모호성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10 (라)는 반대 측 제1토론자에 대한 반대 신문으로, 반대 신문에서는 반대 측 주장이나 근거의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를 찾아 질문한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결 방안이 해결력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입론 단계이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입론으로, 논제에 관한 자기 측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가)에서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이익이 있다.'라는 주장을 논증하고 있다. ② (다)는 반대 측 제1토론자의 입론으로, (가)와 동일한 쟁점,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 이익보다는 문제가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④ 제2토론자의 입론에서는 제1토론자의 발언을 보충하거나 제1토론자가 미처 말하지 못한 새로운 주장을 펼친다. ⑤ (바)의 반대 신문은 표에서 '⑧ 반대 신문'에 해당하므로, 이어서 ⑨~⑫의 반론이 이어질 것이다.

11 (나)에서 '찬성 1'은 '반대 2'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난민 신청자가 많아지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난민을 많이 수용한 유럽 국가들의 난민 예산은 0.1~0.6% 정도'라는 구체적 수치 자료를 들어 답변을 보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반대 2'는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서유럽 국가의 상황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을까요?'와 같이 답변을 제한하는 폐쇄형 질문을 활용하고 있으나 자료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라)에서 '찬성 1'은 '반대 1'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있으며, 찬성 측의 의견을 반복하여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은 난민의 범죄를~오히려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반대 측이 언급한 근거에 반박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④ (라)에서 '반대 1'은 '찬성 1'의 반대 신문에 대한 답변에서 상대방의 지적이 맞다고 수용하고 있으므로 질문과 무관한 답변을 했다거나 찬성 측과의 협력적 의사소통에 실패했다고 볼 수 없다. ⑤ (바)에서 '찬성 2'는 반대 측이 제시한 사례가 담긴 자료의 출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12 ㉠은 (마)에서 제시한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즉 우리나라는 난민 심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난민 인정률을 높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13 '반대 1'은 다른 국가의 실제 사례와 우리나라의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난민 수용 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ㄷ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적절한가?'에 대해 평가할 때 (라)에서 '찬성 1'이 지적한 내용, 즉 '반대 1'이 파악한 것은 '난민의 범죄를 우려하는 국민의 정서'일 뿐 '실제 범죄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반대 1'이 제시한 근거가 실제 사례가 아니라는 것은 적절한 평가 이유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찬성 1'은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이익이 있다는 주장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독일 등의 사례를 들어 난민 수용이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주장과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④ (라)에서 '찬성 1'이 난민의 범죄 우려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와 실제 범죄 사실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근거의 타당성에 대해 적절하게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마)에서 '찬성 2'는 '반대 2'의 발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했으므로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은 것이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90~191쪽

01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실행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이다. 02 (1)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인가? (2)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3)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이익이 있는가? 03 (가)는 찬성 측의 첫 번째 입론으로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논제의 등장 배경을 제시한 뒤 필수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고 있고, (나)는 찬성 측의 두 번째 입론으로 제1토론자의 발언을 보충하고 있다. 04 (1) 주장: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2) 이유: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05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경우를 난민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01 (가)의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에서 드러나듯 이 토론의 논제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이다. 이는 어떤 정책을 도입, 실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논하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02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의 필수 쟁점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실행 가능성이 있는 해결 방안이 있는가?',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이익이나 효과가 있는가?'이다.

03 (가)는 찬성 측의 첫 번째 입론, (나)는 두 번째 입론에 해당한다. 입론에서는 논제에 관한 자기 측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 (가)에서는 '난민'과 '난민 인정률'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한 뒤 필수 쟁점 세 가지와 관련한 내용을 모두 언급하며 각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고 있다. (나)에서는 (가)에서 언급한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임을 언급하고 반대 측이 제기한 내용과 관련하여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04 [A]는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한 논증을 전개한 부분으로, 근거로는 ○○ 일보의 각국 난민 인정률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05 〈보기〉에서 '찬성 2'가 '물론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바탕으로 반대 신문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92~19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1 어떤 사안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다루는 것은 가치 논제이다. 정책 논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실행 방안을 다룬다.

02 토론의 논제는 긍정의 평서문 형식으로 표현한다.

06 찬성 측은 '문제 해결 방안을 실행하여 얻는 이익이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이익이나 효과가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논증한다.

08 논제에 관한 자기 측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입론 단계이다.

12 난민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많은 나라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찬성 측이 주장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논제의 등장 배경에 해당한다.

16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를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한 반대 측의 반대 신문 내용이다.

20 반대 측은 반대 신문에서 찬성 측이 근거로 제시한 내용의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최종 점검 모의고사

제1회

본문 196~203쪽

01 ③	02 ③	03 ①	04 ④	05 ⑤	06 ③	07 ②	08 ⑤
09 ⑤	10 ④	11 ④	12 ③	13 ①	14 ②	15 ③	16 ③
17 ①	18 ⑤	19 ⑤	20 ②	21 ④	22 ④	23 ④	24 ③
25 ④							

01 (가)에서는 자동차를 '달리는 무기'에 비유하여 위험한 대상이라는 인식을, '아늑한 자궁'에 비유하여 안락함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산수유나무를 '농부', 그 산수유나무가 그늘을 만드는 것을 '농사'에 비유하여 가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②·⑤ '열거'나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산수유나무의 그늘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나)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02 글쓴이는 풀 비린내(ⓒ)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동차(ⓐ)와 생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고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기에 이르고 있으므로, ⓒ는 ⓐ와 ⓑ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와 ⓑ만 대조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② ⓑ는 자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④ ⓐ가 ⓒ를 초래한 것은 맞지만, ⓒ를 만들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한 것은 아니다. ⑤ ⓒ는 ⓑ의 죽음을 의미할 뿐 ⓒ 자체가 ⓑ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03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는 것은, 자동차가 주는 안락함과 편리함에 익숙해져 갔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4 글쓴이는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이 모든 운전자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일로 간주되는 생태적 무신경에 경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안도감과는 거리가 멀다.

05 글쓴이는 ㉥에 대해 '타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자동차는 살상의 도구이기 때문에 몰지 않는 것이 옳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이 아닌 '타협'으로 평가하면서, 아쉬움, 안타까움, 불만족스러움 등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가 만족감을 유도한다고 볼 수는 없다.

06 수미상관 방식은 첫째 연이나 행을 마지막에서 반복하는 것으로, 구조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나)에는 수미상관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산수유나무, 그늘, 농사' 등의 단어가 반복되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문장이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로 반복·변주되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노랗다'라는 색채어가 반복되면서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⑤ '-고 있다', '-다' 등의 현재 시제 종결 표현이 반복되면서 현장감과 생동감을 조성하고 있다.

07 (나)의 화자는 그늘을 드리우고 넓혀 가는 산수유나무의 모습에서 이타적인 행동과 그 노력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옹호하고 있다. 그런데 ㉡은 자기 마음의 그늘에 대해서만 불평하는, 즉 개인적 아픔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따라서 개인적 아픔에만 매몰되지 말고 주변의 아픔을 돌아보며 포용하라고 조언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자연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낸 것이지 자연에 귀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③~⑤ (나)의 화자는 개인적 아픔에만 집중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모두 적절하지 않다.

08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나'가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서술자는 변화하지 않는다. ② 외양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④ '논의 벼는 비단 폭처럼 선연하게 푸르고~아름다운 고장이다.'에서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이와 대조되는 '나'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을 뿐, 이를 통해 작품의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09 ⓐ는 여유와 안락함을 누리는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가 훈이에게 바라는(강요하는), 즉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기대하는(강요하는) 삶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훈이가 실제로 경험하는, 즉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는 '나'가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나'가 바라는 훈이의 삶이다. ② ⓐ가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는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삶과는 거리가 멀다. ③ ⓑ가 아니라 ⓐ가 오히려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난 삶이다. ④ ⓐ가 '나'가 훈이에게 바라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는 훈이가 '나'에게 바라는 삶이 아니라 훈이가 실제로 경험하는 자신의 삶이다.

10 [D]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훈이를 배려하는 말인 동시에 일이 '당초 계획대로 잘 풀릴' 수도 있다는 미련을 드러내는 말이다. 훈이가 '의심과 불만'을 느끼는 것도, '나'가 그것을 '불식'시키려 하는 것도 아니며, '긍정적 결과에 대한 확신'을 담은 말로도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결국엔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나'에서 기성세대의 소망이나 믿음에 비판적인 시각을,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에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겠다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고모가 꾸미고, 고모가 애써 된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순조롭게 놓여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에서 기성세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나는 내 나름으로 이곳에서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에서 자기 나름대로 현실에 대응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잘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굴진 마.'에서 억지 노력을 하지 말 것에 대한 당부를, '6개월만 기다리라는 임시직 신세로~회사 측으로선 훌륭한 경영 합리화지.'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회적 부조리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11 '나'가 '전쟁에 대한 복수, 상처의 치유'라고 여기는 것은 훈이가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살아 주'는 것이다(②). ㉠은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라는 조건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소망의 실현을 방해하는 일로 간주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훈이는 ㉠이 '실업'이라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교제비'로 쓸 돈을 요청한다. ③ "왜요 고모, 쩨쩨하게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 봐 겁나서?"에서 알 수 있다. ⑤ "해외 취업은 당분간 보류하렴.~돈이 좀 들더라도……."에서 알 수 있다.

12 훌륭하지 않은 것을 훌륭하다고 표현하면서 비꼬고 있다. 반어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냉소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Plus 〈참고〉 역설과 반어

역설

논리에 맞지 않거나 모순되도록 표현하는 수사법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말한다.
예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_한용운, 〈님의 침묵〉

반어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수사법으로, 문장 자체의 논리에는 이상이 없지만 본래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반대되는 의미의 말을 표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_김소월, 〈진달래꽃〉

13 '나'는 자신의 계획이 빗나간 것에 당황스러움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느낌은 '낭패감(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났다는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④ 조화되지 아니하는 어설픈 느낌.

14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시나리오이다.

오답 해설 ① S# 100~104에서 장면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박진감(생동감 있고 활기차고 적극적이어서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느낌)과는 거리가 멀다. ③ 과거 회상에 해당하는 장면은 없다. ④ S# 38에서 동주와 특고의 갈등이 중점적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 '다양한 갈등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 ⑤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다.

15 '나약한 이상주의자'는 특고가 예상한 동주의 변명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동주는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문학청년, 평범한 유학생'과 같은 말을 사용하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④ "너는 그저 송몽규의 리더십을 추종하는 문학청년일 뿐이란 건가?", "모든 일은 송몽규의 지시! 그래서 난 억울하다, 그런 얘기인가?"라는 특고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동주는 자신의 혐의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몽규의 혐의 또한 부정하고 있다.

16 S# 102에서는 '인서트(insert)'라는 특수 용어를 사용하여 영상 촬영 방식을 지시하고 있다. 인서트는 화면과 화면 사이에 끼워 넣는 삽입 화면을 말하는 것으로, 영화나 드라마 대본에서 특정한 요소나 특정 동작,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장면 중간에 삽입되는 장면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S# 102가 S# 100이나 S# 101보다 과거이다. ② S# 103에는 대사도 등장하고 있다. ④ S# 100, S# 103 모두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S# 103을 보면 동주 부가 몽규 부를 나무라는 듯한 말이 나오지만 이는 슬픔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⑤ S# 102와 S# 104는 모두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비추면서 장면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장면과 관련하여 관객의 정서를 유발하는 역할은 하지만 등장인물의 정서를 암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17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 ③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뜻으로, 예사로운 말 속에 단단한 속뜻이 들어 있음을 이르는 말. ④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 ⑤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18 S# 102의 별은 동주의 고결함을, S# 104의 별은 암울한 현실 인식과 그럼에도 버릴 수 없는 희망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S# 102의 별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답 해설 ② 애상감은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감정'을 말한다. S# 101에서 '죽는 날까지~'라는 내레이션이 동주의 죽음과 연결되어 애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9 〈보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지만 작중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소설로 바꾸는 것이므로 서술자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④ 〈보기〉는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심리나 생각까지 모두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었다.

20 허구적인 이야기를 형상화하는 것은 소설과 같은 서사 갈래나 (나)와 같은 극 갈래이다. (가)는 서정 갈래이다.

오답 해설 ① 서술자가 존재하는 것은 서사 갈래이다. ③ (가)는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되는 서정 갈래이다. ④·⑤ (나)는 영화로 상영되는 것을 전제한 시나리오로, 사건과 갈등을 직접 보여 주는 극 갈래이다.

21 7행은 하늘에서 피어나는 '꽃'과 땅에서 넓어지는 '그늘'을 대조하여 표현함으로써 '꽃'과 구별되는 '그늘'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22 ㉠이 함축하는 가치는 다른 존재를 위한 배려와 위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실천한 것은 고생하는 택배 기사를 위한 배려를 보여 준 ④의 주부이다.

오답 해설 ①·③ 타인이 아닌 자신을 위한 행동이다. ②·⑤ 배려가 담긴 행동이 아니다.

23 '문학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에서 알 수 있듯이 동주는 문학을 이념의 도구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 따라서 ㉯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념을 위해 모든 가치를 팔아먹는 게 관습을 타파하는 일이야? 그거야말로 시대의 조류에 몸을 숨기는 썩어 빠진 관습이지.'에서 알 수 있듯이 동주는 이념을 위해 관습을 타파하는 것이야말로 시대 조류에 몸을 숨기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도 적절하지 않다.

24 동주와 몽규가 서로 말꼬리를 잡고 상대방의 문학관을 비판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동주가 몽규에 대해 '관습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단정 짓는다'고 비판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동주가 문제 삼은 것은 이광수에 대한 평가 자체가 아니라 평가의 태도이다. ② 동주가 몽규에 대해 위선, 즉 겉으로만 착한 체한다고 비판한 것은 아니다. ④ 처중은 두 사람의 갈등을 수습해 보려고 하지만 두 사람의 관점을 절충하고 있지는 않다. '절충(折衷)'은 '서로 다른 사물이나 의견, 관점 따위를 알맞게 조절하여 서로 잘 어울리게 함.'을 의미한다. ⑤ 몽규는 갈등이 커지거나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 자기 관점을 철회하지는 않는다. 또 갈등이 중단된 것이지 해소된 것도 아니다.

25 ⓐ는 의문문으로 표현되었지만 여진에게 가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말이다. 이는 '아니 더 보고.'라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여진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반면 ⓑ는 명령문의 형식으로 명령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여진도 '어, 그래. 이제 가 봐야겠어.'라며 그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와 ⓑ는 다른 형식으로 표현되었지만, 모두 상대방에게 가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제2회

본문 204~209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⑤	05 ④	06 ①	07 ⑤	08 ⑤
09 ①	10 ④	11 ③	12 ③	13 ④	14 ②	15 ⑤	16 ④
17 ⑤	18 ①	19 ④	20 ⑤	21 ④	22 ②	23 ⑤	24 ③
25 ④							

01 대화의 원리를 지키면서 대화하면 상대방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④는 원활한 의사소통과는 거리가 있다.

02 공손성의 원리 중 관용의 격률에 따르면,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은 늘리고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여야 한다.

오답 해설 ①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 ② 협력의 원리 중 질의 격률 ③ 공손성의 원리 중 찬동의 격률 ④ 공손성의 원리 중 동의의 격률

03 공손성의 원리에 따라 '늘려야 할 것'은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요령의 격률), 상대를 칭찬하는 표현(㉢–찬동의 격률), 나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관용의 격률), 나를 낮추는 표현(㉥–겸양의 격률), 상대와 내 의견 중에 같은 점(㉦–동의의 격률)'이고, '줄여야 할 것'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요령의 격률),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찬동의 격률), 나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관용의 격률), 나를 칭찬하는 표현(㉨–겸양의 격률), 상대와 내 의견 중에 다른 점(㉩–동의의 격률)'이다.

04 〈보기〉의 이현은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찬동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찬동의 격률에 따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리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 ⑤는 '한심하다'거나 '실력이 없다'는 식의 비방을 줄이고 '기본 실력이 있'다는 칭찬을 늘림으로써 찬동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오답 해설 ①·② 여전히 상대를 비방하고 있다. ③·④ 자신을 칭찬함으로써 겸양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05 철수는 빵을 자신이 나누는 대신 나누어진 빵에 대한 선택권은 상대에게 주면서 상대의 부담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표현하고 있다(요령의 격률).

오답 해설 ①은 겸양의 격률, ②는 관용의 격률, ③은 찬동의 격률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보기〉의 대화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⑤ 영희가 빵을 나눠 먹자는 철수의 말에 "그래."라고 하여 공감을 표현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이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빵을 나누는 방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06 (가)의 '민지'와 (나)의 '경수'는 모두 자신에 대한 칭찬을 줄여야 한다는 겸양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대화를 할 때는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을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동의의 격률 ③ 관용의 격률 ④·⑤ 요령의 격률

07 제안을 거절할 때는 먼저 상대의 제안에 공감을 표현한 다음,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정중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⑤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라며 상대의 제안에 공감을 표현한 다음, "그런데 이미 봉사 활동을 가기로 친구들과 약속했어요."라며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고(동의의 격률), "대신 다음 주에 함께 낚시 가는 것은 어떠세요?"라며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고 있으므로(요령의 격률) 가장 적절하다.

08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 사이의 차이점을 최소화해서 말해야 한다.'는 공손성의 원리 중 동의의 격률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양의 격률 ② 관련성의 격률 ③ 질의 격률 ④ 태도의 격률

09 '지은'은 '모둠 발표 주제'라는 대화의 맥락에서 벗어난 말을 함으로써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질의 격률 ③ 양의 격률 ④ 겸양의 격률(공손성의 원리) ⑤ 태도의 격률

10 '지혜'는 어느 '구'에 사는지를 묻는 인성의 질문에 대해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오히려 대화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한다.)을 위반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② 태도의 격률 ③ 관련성의 격률 ⑤ 질의 격률

11 현진은 대화를 진행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화의 주제를 제시하고 대화 참여자들이 고루 발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의견(정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질의 격률(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한다.)을 지켰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답 해설 ① 혜주는 전통문화 중 전통 음식을 주제로 하자고 말함으로써, 즉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말을 함으로써 협력의 원리를 지키고 있다. ② 우신은 한옥을 주제로 하자고 간단하게 말하면 될 상황에, 현대의 주거 문화나 현실 등 불필요한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제공하면서 양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④ 용운은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태도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⑤ 미선은 점심에 대한 감상이나 먹고 싶은 음식 등 대화의 맥락에 맞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12 ③에서 철수는 방학식이 언제냐는 선미의 질문에 7월 28일이라며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양의 격률이 잘 지켜진 대화이다.

오답 해설 ① 오늘 날짜를 묻는 질문에 어제 날짜와 요일까지 말하고 있으므로 양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② 저녁 메뉴에 대한 질문에 모호하게 대답하고 있으므로 태도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④ 옷의 가격에 대한 질문에 모호하게 대답하고 있으므로 태도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⑤ 여름 방학에 갈 곳을 묻는 질문에 전혀 관련이 없는 대답을 하고 있으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13 재훈은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어 대화해야 하다는 체면 유지의 원리를 어기고 있다. 소극적 예의 전략도 체면 유지의 원리에 따른 전략이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 해설 ②·③ 윤희는 준석에 대해 친근하게 유대감을 나타내고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적극적 예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14 담화 관습은 문화 풍토를 반영하여 생성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

15 〈보기〉는 겸손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는 '죽다'를 '돌아가다'로 표현한 경우로, 돌려 말하는 담화 관습의 예에 해당한다.

16 〈보기〉는 신중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이 표현된 것이다. 그런데 '말은 해야 맛이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는 '마땅히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말'로, 신중한 말하기와는 거리가 있다.

오답 해설 ①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이것저것 많이 늘어놓으면 그만큼 쓸 말은 적어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라는 말. ③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 ⑤ 말은 옮길수록 거칠어지므로 삼가야 한다는 말.

17 〈보기〉에 비속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ㅇㅇ', '짐', ② 'ㅠㅠ', 'ㅋㅋ', ③ '조케따', '멀어써', ④ '시러!!!!', '부럽쥐~' 등에서 알 수 있다.

18 언어 공동체는 지역, 세대, 성, 문화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언어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다.

19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언어 공동체별 담화 관습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20 〈보기2〉는 세대에 따른 언어 공동체의 차이를 고려한 대화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보기1〉은 청소년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담화 관습에 따라 줄임말을 사용함으로써 소통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이므로, 할아버지 세대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배려하여 줄임말을 쓰지 않았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② 줄임말을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것은 청소년 세대의 담화 관습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이다. ③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적절하지 않다. ④ 할아버지 세대를 청소년 세대에 맞추려는 것으로, 언어 공동체의 다양성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이다.

21 〈보기〉는 방언의 사례로, 지역에 따른 언어 공동체의 차이를 보여 준다. ㉠~㉢을 일상어로 쓰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 공동체에 속하므로 소통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표준어를 사용하여 대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방언을 버리는 것은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2 남한에 비해 특별히 간결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다.

오답 해설 ① '전초선', ⑤ '일없습니다'에서 알 수 있다.

23 남북한 언어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언어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남한이나 북한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통일해 나가려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24 '손님'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상대의 문화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알면서 업신여기는 태도, 곧 '무시'하는 태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25 영미가 속한 언어 공동체에는 '-어 죽다'라는 구성으로 '앞말이 뜻하는 상태나 느낌의 정도가 매우 심함'을 표현하는 담화 관습이 있는데, 다른 언어 공동체에 속한 스미스가 이런 담화 관습을 모르고 '죽다'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여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제3회

본문 210~215쪽

01 ②	02 ①	03 ②	04 ③	05 ①	06 ①	07 ②	08 ②
09 ④	10 ④	11 ③	12 ③	13 ③	14 ③	15 ⑤	16 ⑤
17 ⑤	18 ④	19 ③	20 ⑤	21 ②	22 ①	23 ③	24 ④
25 ③							

01 모음 탈락이나 두음 법칙은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만,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등은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⑤ 음운 탈락과 음운 축약이 일어나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02 〈보기〉에서 설명한 현상은 비음화이다. '국내'와 '함박눈'은 비음 'ㄴ' 앞의 'ㄱ'이 'ㅇ'으로 바뀌어 각각 [궁내]와 [함방눈]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모두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이다.

오답 해설 ② '국물'은 비음 'ㅁ' 앞 'ㄱ'이 'ㅇ'으로 바뀌어 [궁물]로 발음되므로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단어이다. '나팔꽃'은 음절 끝 'ㅊ'이 'ㄷ'으로 바뀌어 [나팔꼳]으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 단어이다. ③ '업무'는 비음 'ㅁ' 앞 'ㅂ'이 'ㅁ'으로 바뀌어 [엄무]로 발음되므로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단어이다. '피붙이'는 음절 끝 'ㅌ'이 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ㅊ'으로 바뀌어 [피부치]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 단어이다. ④ '닫는'은 비음 'ㄴ' 앞 'ㄷ'이 'ㄴ'으로 바뀌어 [단는]으로 발음되므로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단어이다. '서랍장'은 예사소리 'ㅈ'이 앞의 소리에 영향을 받아 된소리 'ㅉ'으로 바뀌어 [서랍짱]으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 단어이다. ⑤ '신라'와 '한라산'은 'ㄴ'이 유음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바뀌어 각각 [실라], [할:라산]으로 발음되므로 모두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 단어이다.

03 ㉠의 '학문'은 비음 'ㅁ' 앞 'ㄱ'이 'ㅇ'으로 바뀌어 [항문]으로, '앞마당'은 '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ㅂ'으로 바뀐 뒤, 다시 비음 'ㅁ'의 영향으로 'ㅁ'으로 바뀌어 [암마당]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두 단어 모두 비음화가 나타난 사례이다. ㉡의 '설날'과 '줄넘기'는 유음 'ㄹ' 뒤에서 'ㄴ'이 'ㄹ'로 바뀌어 각각 [설:랄], [줄럼끼]로 발음된다. 따라서 두 단어 모두 유음화가 나타난 사례이다.

04 〈보기1〉의 [붙임]으로 보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된 형태인 ㉡의 '묻힌'은 [무친]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맏이'는 'ㄷ' 뒤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마지]로 발음해야 한다. ② '솥을'은 'ㅌ' 뒤에 'ㅣ'나 '히'가 결합된 형태가 아니므로 연음되어 [수틀]로 발음해야 한다. ④ '느티나무'는 '느티'가 원래부터 한 형태소이므로 [느티나무]로 발음해야 한다. ⑤ '밭이랑'은 'ㅌ'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 '이랑')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바치랑]으로 발음해야 한다.

05 '홑이불'은 접두사 '홑-'과 실질 형태소 '이불'이 결합한 파생어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홑이불]로, 다시 'ㄴ' 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나 [혼니불]로 발음된다. 따라서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⑤는 모두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ㅈ,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② [구지] ③ [여:다지] ④ [부처] ⑤ [해도지]

06 '내일'에서는 'ㄹ'이 'ㄴ'으로 바뀌고 있지만(교체), '연간'에서는 'ㄴ'이 탈락하고 있다(탈락). 따라서 교체를 두음 법칙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탈락이 일어난 '연간'의 경우에서 알 수 있다. ③ '작년'이나 '근래'와 같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곳에서는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 ④ '니글거리다' 같은 고유어나 '라디오', '뉴스' 같은 외래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 ⑤ '연간', '내일' 등에서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07 '산길'은 두 개의 명사가 합쳐진 합성어(명사)이다. 따라서 용언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길[산낄]'은 사잇소리 현상 중, 두 개의 형태소나 단어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역도[역또]'는 'ㄱ' 받침 뒤의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③ '넘고[넘꼬]'는 용언의 어간 받침 'ㅁ' 뒤의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④ '열정(熱情)[열쩡]'은 한자음 'ㄹ' 뒤의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⑤ '둘 바[둘빠]'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오는 'ㅂ'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08 ②의 '써서'는 '쓰- + -어서'이므로 'ㅡ' 탈락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가- + -아서: 'ㅏ' 탈락 ③ '고프- + -아서: 'ㅡ' 탈락 ④ 건너- + -어서: 'ㅓ' 탈락 ⑤ 자- + -았다: 'ㅏ' 탈락

09 ㉣은 [집쫑하기]로 발음되는 말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오답 해설 ㉠ '하얗게[하:야케]', ㉡ '시작합니다[시:자캄니다]', ㉢ '잡히지[자피지]', ㉤ '축하합니다[추카함니다]'에서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쳐져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소리 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있다.

10 ㉣은 '따뜻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따뜯한] --(거센소리되기) --→ [따뜨탄]'의 과정을 거쳐 발음되는 말로,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① 식물[싱물]: 비음화 ② 심고[심꼬]: 된소리되기 ③ 같이[가치]: 구개음화 ⑤ '쓰- + -어 → 써': 모음 탈락

11 ㉢ '입문하여[임문하여]'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비음화이다. ③의 '집문서[짐문서]', '맏누이[만누이]'는 모두 비음화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은 자음군 단순화이다. '굶기다[굼기다]'는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하지만, '급하다[그파다]'는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② ㉡은 구개음화이다. '미닫이[미다지]'는 구개음화에 해당하지만, '뻗대다[뻗때다]'는 된소리되기에 해당한다. ④ ㉣은 된소리되기이다. '꺼안다[꺼안따]'는 된소리되기에 해당하지만, '꿈같이[꿈가치]'는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⑤ ㉤은 거센소리되기이다. '굽히다[구피다]'는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하지만, '한여름[한녀름]'은 'ㄴ' 첨가에 해당한다.

12 ㉠, ㉡, ㉢은 모두 [묵따]로 발음된다. ㉠은 된소리되기만,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은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된소리되기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모두 교체로서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생기지 않지만,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으로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음운 개수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만이다.

오답 해설 ② ㉠, ㉡, ㉢ 모두에서 교체인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므로 적절하다. ⑤ ㉠은 교체만 1번, ㉢은 교체와 탈락이 각각 1번씩 일어나지만, ㉡은 교체만 2번 일어난다.

13 모음 탈락과 두음 법칙은 표기에도 반영된다.

14 ㉠ 국화꽃[구콰꼳]: 거센소리되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축약 1회, 교체 1회)

㉡ 흙덩이[흑떵이]: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탈락 1회, 교체 1회)

㉢ 새벽이슬[새병니슬]: 'ㄴ' 첨가, 비음화(첨가 1회, 교체 1회)

따라서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현상이 일어났는가?', 즉 '축약이 일어났는가?'라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에만 ○을 표시한 ⓒ가 적절하다.

오답 해설 〈보기〉의 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	㉡	㉢
두 개의 음운 중 하나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났는가?(탈락)	×	○	×
기존에 있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는가?(교체)	○	○	○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현상이 일어났는가?(축약)	○	×	×
원래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현상이 일어났는가?(첨가)	×	×	○
음운 변동이 총 2번 일어났는가?	○	○	○

15 ㉢은 주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은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청자를 높이고 있다.(상대 높임) ② · ③ ㉡은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선생님'을 높고 있다.(객체 높임)

16 ⑤에서 '연세'는 높임의 대상인 '할머니'의 나이를 높인 것으로, '높여야 할 대상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에 해당하고, '모시고'는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인 것으로, '객체를 높이는 용언(ⓐ)'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주무시다: 주체를 높이는 용언 ② 그분: 높여야 할 대상을 직접 높이는 명사, 성함: 높여야 할 대상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③ 선생님: 높여야 할 대상을 직접 높이는 명사, 말씀: 높여야 할 대상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④ 선생님: 높여야 할 대상을 직접 높이는 명사, 여쭈다: 객체를 높이는 용언(ⓐ)

17 ⑤는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을 조사 '께서'와 '오라셔(오라고 하셔)'라는 종결 표현으로 적절히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 할아버지, 버스 왔어요.(버스는 높임의 대상이 아님.) ② → 주말에 할머니를 뵈러 갑시다.(할머니를 높여야 함.) ③ → 손님, 제품의 가격은 오천 원이에요.(가격은 높임의 대상이 아님.) ④ → 제가 아는 의사를 소개해 드릴게요.(자신을 높여서는 안 됨.)

18 '토론'을 하는 일은 발화시와 일치하는 시점(현재)이 아니라 발화시 이후(미래)에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발화시는 현재이며, '지금'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므로 '지금'과 발화시는 일치한다. ② '토론'을 하는 것이 사건시가 되어 미래 시제로 표현되었다. ③ '-었-'으로 과거, '-겠-'으로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 ⑤ '읽었던'으로 볼 때 '책 읽기'가 행해진 시점은 〈보기〉의 발화가 있기 이전이다.

19 '산 책'의 '산'에서 '-ㄴ'은 과거 시제(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 시제)를 나타낸다. 따라서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진행상 ④ 완료상

20 '이대로만 공부하면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다.'는 공부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볼 때 대학에 붙는 미래의 일이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시인이 되겠다.: ㉡ ② 그런 것은 삼척동자도 알겠다.: ㉢ ③ 지금 떠나면 새벽에 도착하겠구나.: ㉠ ④ 어제 동생의 피아노 발표회에 다녀왔다.: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21 피동문인 ㉠을 능동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부사어인 '벌에'를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로 만들어 '벌이 은주를 쏘았다.'와 같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③ ㉡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는 순간이다.'이다. ④ '잡혀지려는'은 어간 '잡-'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피동사 '잡히다'에 또 '-어지다'를 결합한 것이므로 이중 피동이다. ⑤ '풀렸다'는 '풀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한 것이다. ㉢에서는 '풀다'의 어간에 '-어졌다'를 붙인 '풀어졌다'를 써도 피동문이 성립한다.

22 ①의 '닫혀'는 동사의 어간 '닫-'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은 피동 표현으로,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불려진: 동사의 어간 '불-' + 피동 접미사 '-리-' + '-어지다' ③ 담겨져: 동사의 어간 '담-' + 피동 접미사 '-기-' + '-어지다' ④ 잊혀질: 동사의 어간 '잊-' + 피동 접미사 '-히-' + '-어지다' ⑤ 닦여져: 동사의 어간 '닦-' + 피동 접미사 '-이-' + '-어지다'로 모두 불필요하게 이중 피동 표현이 사용된 예이다.

23 ⓐ: 직접 인용된 발화는 '어제' 말한 것이다. 따라서 어제 시점에서의 '내일', 곧 '오늘'이 되어야 한다.
ⓑ: '계십시오'는 아들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간접 인용하게 되면 자신을 높이는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있-'으로 서술어를 바꾸어야 한다. 또한 명령문을 간접 인용할 때에는 '-(으)라고'를 써야 하므로 '있으라고'로 말해야 한다.
ⓒ: 직접 인용된 발화는 '철수 어머니'가 말한 것이다. 따라서 ⓒ에는 주어인 '철수 어머니'를 다시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 '자기'를 사용한 '자기의'가 들어가야 한다.
ⓓ: '착해'는 간접 인용에서는 '고'가 붙어야 하므로 '착하다고'가 되어야 한다.

24 '보여진다'는 잘못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보인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25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과일의 맛을 알 수 있도록' 즉 의미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 브릭스(Brix)와 퍼센트(%)로 표시하던 것을 고유어로 바꾼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정확성은 떨어진다. ② 사고 도구어가 아니다. ④ 문학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⑤ 전문어가 아니다.

제4회

본문 216~225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②	05 ②	06 ③	07 ②	08 ①
09 ③	10 ④	11 ④	12 ②	13 ③	14 ⑤	15 ④	16 ③
17 ③	18 ①	19 ①	20 ①	21 ③	22 ③	23 ③	24 ④
25 ④							

01 (라)에서 내적 동기에 따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물들의 말이 직접 인용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화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직접 인용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다)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글쓴이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한편 (라)에서 허○○ 교수와 파인먼의 사례를 통해 논증하고 있다. ② (가)에서 '동기'의 개념을 제시한 뒤 동기를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로 분류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③ '우리는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 중 어떤 것에 따라서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제시한 뒤 그 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⑤ (다)와 (마)의 첫 번째 문장에서 각각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한 뒤 그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02 '본론 1'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 (다)로, (나)의 실험에서 외적 보상은 어려운 문제, 창의성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3 ㉤은 (라)에 나타난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상대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이다.

오답 해설 ① ㉠은 근거, ㉡은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은 ㉡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객관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② ㉡과 ㉢은 모두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③ ㉣은 ㉢에서 언급한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내재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의 사례 중 하나이다. ⑤ ㉤은 이 글의 주장으로, ㉠~㉣의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결론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견에 해당한다.

04 (다)에서 "외재 동기면 어떤가, 칭찬이든 다른 보상이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예상 반론을 제시한 뒤, 외적 보상만을 좇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여 반박하고 있다. 즉 외적 보상을 좇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보상받는 사람도 끝없는 갈등과 비교로 괴로워진다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외적 보상만을 좇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지, 외적 보상에 의미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 ③ 내재 동기를 등한시할 때의 문제점으로, 이를 통해 제시된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성공한 사람들이 내재 동기를 더욱 중시한다는 것을 통해 제시된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의 특징으로, 이를 통해 제시된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5 (가)에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에서 '칭찬'도 결국 외적 보상임을 제시한 뒤, (바)에서 '고래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며 춤을 추게 하려면 조련사의 칭찬이 아니라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 글의 제목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은 내적 동기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내재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목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역할을 비유하고 있지는 않다. ③, ④ 이 글에서는 외적 보상인 칭찬이 아닌 내재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이 글에서는 내재 동기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을 뿐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의 조화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06 (다)에서 ⓐ의 앞부분에는 외재 동기를 추구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한 뒤, 뒷부분에는 외적 보상만을 좇는 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상반되는 사실을 연결하는 접속어인 '그러나', '하지만' 등이 들어갈 수 있다. (마)에서도 ⓑ의 앞부분에는 (라)의 논증에 대한 예상 반론이, 뒷부분에는 그에 대한 반박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에는 상반되는 사실을 연결하는 접속어인 '그러나', '하지만' 등이 들어갈 수 있다.

07 (가)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내재 동기에 따르는 삶과 내재 동기를 등한시하는 삶의 모습을 대비하여 내재 동기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글쓴이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잘못을 알고 바로 고쳤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글쓴이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에만 해당한다. ③ (가), (나) 모두 구체적인 사례에서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④ (가), (나)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나)는 경험에서 의미를 이끌어 내어 의미를 적용, 확장하고 있을 뿐 문제 제기와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08 ㄱ, ㄷ에는 '외재 동기', ㄴ, ㄹ, ㅁ에는 '내재 동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9 (가)는 필즈상을 받은 수학자, 노벨상을 받은 파인먼, 국제 피아노 대회 우승자의 사례 등 개별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내재 동기는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아서 삶을 행복하게 해 준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귀납 논증을 사용하고 있다.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연역 논증의 특징이다.

오답 해설 ①, ②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양하게 들어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본다면, 귀납 논증을 통해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④, ⑤ 성공한 사람들이 내적 동기에 따라 행동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귀납 논증이 나타나는데 사례들이 모두 비슷한 내용이므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이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제시된다면 결론의 타당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10 '집'을 수리했을 때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모두 못 쓰게 되어 수리비가 많이 들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은 잘못을 알고도 곧바로 고치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가 되며, '나라의 정치' 또한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두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이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다는 공통점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③ '나라의 정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 글쓴이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계하는 태도가 아니라 잘못을 알면 바로 고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1 [A]는 행랑채를 수리한 일, [B]는 [A]의 깨달음을 '사람의 몸'에 적용한 것, [C]는 깨달음을 '나라의 정치'에 확장하여 적용한 것에 해당한다. 즉 [A]의 경험에서 [B]의 깨달음을 유추해 내고 있으며, [C]는 [B]에서 유추된 의미를 확장한 것이다.

12 (나)의 주된 내용 전개 방식은 유추이다. ②는 마라톤과 인생의 유사한 점을 들어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추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연극과 영화의 차이점을 대조하였다. ③ 속담의 예를 열거한 예시가 사용되었다. ④ 인간이 문명을 이루게 된 이유를 제시한 인과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⑤ 연역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13 '등한시하다'는 '소홀하게 보아 넘기다.'라는 의미이다. '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흘겨보다.'를 의미하는 단어는 '백안시하다'이다.

14 상대측이 준비한 주장과 근거의 논리적인 허점을 찾아 질문하는 것은 반대 신문 단계에 해당한다. 반론은 입론과 반대 신문이 진행된 후 상대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근거의 불충분함, 부적절함 등을 지적하는 단계이다.

오답 해설 ① 반대 신문식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과 그에 대한 반대 신문이 각각 진행된 후 반론이 진행된다. ② 이 토론의 논제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룬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③ 정책 논제를 다룬 토론에서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해결 방안은 무엇이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 '문제 해결 방안을 실행하여 얻는 효과나 이익이 있는가?'라는 필수 쟁점이 나타난다.

15 제시하는 해결 방안이 해결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찬성 측이다. 반대 측은 해결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문제 해결에 있어 최선의 대안이 아님을 드러내야 한다.

16 (다)에서 '반대 1'은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아서 난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며 난민 인정률을 높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 조사 결과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늘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높은 것을 근거로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뿐 실제로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범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다.

17 (다)는 찬성 측의 첫 번째 입론과 그에 대한 반대 신문에 이은 반대 측의 첫 번째 입론이다. 따라서 찬성 측에서 제시한 주장에 관해 쟁점별로 근거를 제시하여 반박하는 말하기가 나타나 있다.

오답 해설 ① 반대 측 첫 번째 입론에서는 찬성 측에서 정의한 개념과 주요 용어를 점검하기도 하는데, (다)에는 찬성 측에서 제시한 개념에 대해 점검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쟁점별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해결력을 입증하는 것은 찬성 측이 입론에서 제시해야 하는 내용이다.

18 (가)에서 논제와 관련한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논제의 등장 배경을 밝힌 후 필수 쟁점별로 주장과 이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논제와 관련된 통념을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으며 문제 해결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한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③ ○○ 일보에서 제시한 통계,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의 내용,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한 나라인 독일의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통계 자료 등의 경우 내용 출처를 밝히고 있으므로 신뢰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난민 예산은 0.1~0.6% 정도'라는 수치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⑤ (라)에서 반대 측이 근거로 제시한 여론 조사 결과의 논리적 허점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19 ㉠에 대하여 '찬성 1'이 우리나라의 난민 예산은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며,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더 늘릴 수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에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질문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ㄱ이 가장 적절하다.
㉡에 대하여 '찬성 1'이 선진국에서는 난민이 기존의 노동력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에는 난민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일자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지 질문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ㄴ이 가장 적절하다.

20 이 토론의 사회자가 토론자의 발언 내용에 대해 요약, 정리하는 발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가)에서 토론의 논제를 소개하고 토론 방식이 반대 신문식 토론임을 제시하고 있다. ③ 이 토론의 사회자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④ '이제 반대 측 제1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절차에 따라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있다. ⑤ 토론의 규칙에서 벗어난 토론자에 대해 '반대 신문은 반대 측의 입론이 끝난 뒤 진행해 주십시오.'라며 토론의 규칙을 지키도록 통제하고 있다.

21 이 토론의 논제인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룬 논제인 정책 논제이다. ③은 어떤 사안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루는 사실 논제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책 논제이다.

22 (다)에서 '반대 1'은 첫 번째 발언에서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밝힌 후 '난민 기구에 물질적 지원을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하여 다른 해결 방안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양측 입장을 절충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찬성 1'은 난민과 난민 인정률의 개념을 정의한 뒤 난민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 상황을 통해 논제의 등장 배경을 밝히고 있다. ② (나)에서 '찬성 2'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과 제주도에 왔던 예멘 난민 신청자의 사례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라)에서 '반대 2'는 '공무원 1명이 평균 129건이나 되는 ~ 대기 시간이 평균 20.8개월'과 같이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⑤ (마)에서 '찬성 2'는 반대 측 입장을 '문밖에서 생명의 위협에 쫓겨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기다리세요."라고 말하는 것에 빗대어 그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23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찬성 측은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다는 입장이고, 반대 측은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ㄴ은 찬성 측, ㄱ, ㄷ, ㄹ은 반대 측 입장으로 적절하다.

24 (마)에서 '반대 2'는 '난민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면, 난민 심사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찬성 측 반대 신문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제대로 심사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즉 난민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므로 난민 심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것은 찬성 측이 반대 신문에서 문제 삼은 내용에 가까우므로, '반대 2'가 이를 찬성 측의 반대 신문에 대한 반박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

25 ㉠은 입론 중에 상대방의 발언을 끊고 질문한 내용이므로, 토론 태도 면에서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가 주장을 적절히 뒷받침하는지 질문하고 있을 뿐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반박하거나 근거가 주장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다. ③ 토론의 규칙에 따른 발언으로 볼 수 없다. ⑤ 토론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문법 익힘북

01 음운 변동 1 _ 교체

본문 228~229쪽

01 ㄷ 02 ㄱ, ㄷ, ㅂ 03 유음화 04 예사소리 05 ㅈ, ㅊ 06 형식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없다 16 비음화, 방법 17 유음화, 역행 18 뒤 19 구개음화 20 비음화 21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22 유음화 23 실질 24 (1) [바치] (2) 구개음화 25 ② 26 ⑤ 27 ⑤ 28 ④ 29 ④

07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교체가 일어나도 음운의 수에는 변동이 없다.

08 유음화는 'ㄹ'의 위치에 따라 순행 동화(예 칼날[칼랄])와 역행 동화(예 신라[실라])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09 '난로[날:로]', '천리[철리]'는 'ㄴ'이 유음 'ㄹ'의 앞에서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10 한자어에서 끝소리 '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ㅈ'도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난다.(예 절도[절또])

12 '갈등[갈뜽]', '멸시[멸씨]', '발전[발쩐]'과 같이 고유어가 아닌 한자어에서 끝소리 'ㄹ' 뒤에 결합되는 'ㄷ,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20 '국민'은 [궁민]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음절의 끝소리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에 해당한다.

21 '앞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ㅍ'이 [ㅂ]으로 바뀌어 [압니]가 되었다가,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변하여 [암니]가 된다. 따라서 '앞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난다.

22 '천리[철리], 신라[실라], 광한루[광:할루]'는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이고, '물난리[물랄리]'는 '난'의 'ㄴ' 2개가 앞과 뒤에 있는 'ㄹ'의 영향을 받아 모두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23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이어지는 환경에서 일어나므로, '발 + 일 → 발일[반닐]'과 같이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하는 경우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24 '발이'는 실질 형태소('발')와 형식 형태소('이')가 이어지므로 'ㅣ' 앞의 'ㅌ'이 [ㅊ]으로 바뀌어 [바치]로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25 '꽃을'은 받침 'ㅊ'이 연음되어 [꼬츨]로 발음될 뿐 음운이 교체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꼳]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ㅊ → [ㄷ])가 일어난다. ③ '꽃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꼳만]이 되었다가 비음화에 따라 [꼰만]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ㅊ → [ㄷ] → [ㄴ])가 일어난다. ④ '꽃받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꼳받침]이 되었다가 된소리되기에 따라 [꼳빧침]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ㅊ → [ㄷ] / ㅂ → [ㅃ])가 일어난다. ⑤ '꽃꽃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꽃'이 [꼳]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ㅊ → [ㄷ])가 일어난다. 이후 '꽃이'의 받침 'ㅊ'이 연음되어 [꼳꼬지]로 발음된다.

26 '맑다[막따]'는 자음군 단순화(ㄺ → [ㄱ])와 된소리되기(ㄷ → [ㄸ])가 일어난다.

27 '넘기다'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삼고[삼:꼬]'와 같이 'ㅁ'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ㄱ'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된소리로 발음하지만, 사동 접미사나 피동 접미사가 오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넘기다'의 '-기-'는 사동 접미사이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④ '더듬다[더듬따]'와 '신기가[신:끼가]'는 어간이 각각 'ㅁ'과 'ㄴ'으로 끝나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② '값도[갑또]'는 앞말의 받침이 'ㅂ(ㅄ)'이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③ '닭과[닥꽈]'는 앞말의 받침이 'ㄱ(ㄺ)'이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28 '미닫이[미다지]'는 받침 'ㄷ'이 뒤에 오는 형식 형태소 'ㅣ'의 영향을 받아 [ㅈ]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홑이불[혼니불]'은 형식 형태소('홑-') 뒤에 실질 형태소('이불')가 결합한 것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굳히다[구치다]'는 'ㅌ(ㄷ + ㅎ)'이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②, ③ '밭솥이[밭소치]'와 '밭입니다[바침니다]'는 'ㅌ'이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⑤ '맏이[마지]'는 'ㄷ'이 [ㅈ]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29 '생산량[생산냥]'은 'ㄹ'이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밭이[바치]: 구개음화 ② 덮개[덥개 → 덥깨]: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③ 겉웃음[겉우슴 → 거두슴]: 음절의 끝소리 규칙 ⑤ 줄넘기[줄럼기 → 줄럼끼]: 유음화, 된소리되기

02 음운 변동 2 _ 탈락/첨가/축약

본문 230~231쪽

01 축약, 첨가 02 거센소리되기 03 파생어 04 ㅎ 05 탈락 06 ㅣ 07 ㅌ 08 × 09 × 10 ○ 11 × 12 ○ 13 ○ 14 초성 15 값싸다 16 두 17 ㅡ 18 줄어든다 19 축약 20 거센소리되기 21 ㄴ 22 (1) [색년필] → [생년필] (2) 첨가 → 교체 23 (1) [바파고] (2) 거센소리되기(축약) 24 (1) ㉠, ㉣ (2) ㉡, ㉢ 25 ④ 26 ② 27 ② 28 ① 29 ⑤ 30 ③ 31 ③

06 가랑잎: [가랑입(음절의 끝소리 규칙 – 교체) → 가랑닙('ㄴ' 첨가 – 첨가)]

08 '담그– + –아 → 담가'와 같이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09 어간의 끝소리 자음 'ㄹ'은 몇몇 어미 앞에서만 탈락한다.

10 서른여덟: [서른녀덟('ㄴ' 첨가) → 서른녀덜(자음군 단순화)]

11 '좋아[조:아]'의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와 만나 탈락한다. 또한 '좋고[조:코]'의 'ㅎ'은 뒤에 오는 'ㄱ'과 만나 [ㅋ]으로 축약된다.

12 급행열차: [그팽열차(거센소리되기 – 축약) → 그팽녈차('ㄴ' 첨가 – 첨가)]

15 '흙까지[흑까지]'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이다. '값싸다' 또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갑싸다]로 발음된다. 반면 '잡히다'는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자피다]로 발음된다.

16 '흙하고[흐카고]'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ㄹ'이 탈락하고([흙하고 → 흑하고]),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축약되므로([흑하고 → 흐카고]) 음운의 개수가 2개 줄어든다.

17 '고프– + –아서 → 고파서'에서는 'ㅡ' 탈락이 일어난다.

18 '서– + –어서 → 서서'는 'ㅓ'가 탈락한 것이므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19 '널따랗다'는 'ㅎ'과 'ㄷ'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어 [널따라타]로 발음된다.

20 '좋지'는 'ㅎ'과 'ㅈ'이 만나 [ㅊ]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21 '담요'는 'ㄴ'이 첨가되어 [담:뇨]로 발음된다.

22 색연필: [색년필('ㄴ' 첨가 – 첨가) → 생년필(비음화 – 교체)]

23 '밥하고'는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축약되어 [바파고]로 발음되는데, 이는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24 (1) ㉠과 ㉣은 모두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 것이다. (2) ㉡은 'ㅎ' 탈락이, ㉢은 'ㅏ' 탈락이 일어난 것이다.

25 '크– + –어서 → 커서'는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싫다[실타]'는 자음 축약(ㅎ + ㄷ → [ㅌ])에 해당한다. ② '놓은[노은]'은 자음('ㅎ') 탈락에 해당한다. ③ '울– + –는 → 우는'은 자음('ㄹ') 탈락에 해당한다. ⑤ '건너– + –었다 → 건넜다'는 모음('ㅓ') 탈락에 해당한다.

26 '실학'은 표기 그대로 [실학]으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목화[모콰] ③ 끊기다[끈키다] ④ 밥하다[바파다] ⑤ 빨갛다[빨:가타]

27 '따르– + –면서 → 따르면서'에서는 'ㅡ'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담그– + –았– + –다 → 담갔다 ③ 아프– + –아서 → 아파서 ④ 모으– + –아라 → 모아라 ⑤ 예쁘– + –어서 → 예뻐서

28 '눈요기'의 발음은 [눈뇨기]로, 'ㄴ'이 첨가되었다.

오답 해설 ② 막히면[마키면]: ㄱ + ㅎ → ㅋ – 축약(거센소리되기) ③ 물난리[물랄리]: ㄹ + ㄴ → ㄹ + ㄹ / ㄴ + ㄹ → ㄹ + ㄹ – 교체(유음화) ④ 벚나무[벋나무 → 번나무]: ㅈ → ㄷ –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 ㄷ + ㄴ → ㄴ + ㄴ – 교체(비음화) ⑤ 넣어서[너어서]: 탈락('ㅎ' 탈락)

29 〈보기〉에서는 'ㅎ' 탈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좋아요[조:아요]'에서도 'ㅎ' 탈락이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좁히다[조피다]', '그렇죠[그러쵸]', '하얗다[하:야타]'는 'ㅎ'과 'ㅂ', 'ㅈ', 'ㄷ'이 만나 각각 [ㅍ], [ㅊ],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놓는다[놀는다 → 논는다]'는 'ㅎ'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으로 교체되었다가 비음화에 의해 다시 [ㄴ]으로 교체된 것이다.

30 '입학[이팍]'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축하[추카]'에서도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설날[설랄]'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②, ④ '국수[국쑤]', '역전[역쩐]'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⑤ '여덟[여덜]'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31 '잃– + –어서 → 잃어서[이러서]'는 'ㅎ'이 탈락한 것으로, 음운의 축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놓고[노코]'는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축약된 것이다. ②, ④ '숱하다[숟하다 → 수타다]'와 '파랗다[파:라타]'는 'ㅎ'과 'ㄷ'이 만나 [ㅌ]으로 축약된 것이다. ⑤ '닫히는[다티는 → 다치는]'은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된 후에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03 문장 표현 1 _ 높임 표현

본문 232~233쪽

01 주체 02 부사어 03 상대 04 드릴/드리다 05 뵙고 06 상대 07 ○ 08 × 09 ○ 10 ○ 11 × 12 ○ 13 선어말 어미 14 께 15 주체 16 어머니 17 상대 18 계시면 → 있으시면 19 ㉠: 아버지, ㉡: 께, 드리다, ㉢: -어요 20 ㉠: ⓒ, ㉡: ⓑ 21 물어봐 → 여쭤봐 22 ② 23 ③ 24 ④ 25 ⑤ 26 ③

08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의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다.

11 '드리다', '모시다'는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16 '어머니, 저는 아버지를 정말 존경합니다.'는 '-ㅂ니다'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17 '동생이 밥을 먹습니다.'에는 '-습니다'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18 '궁금한 점'은 직접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9 〈보기〉에서 서술어 '가시었어요'의 주체는 '아버지'(㉠)이고, '아버지'에 대한 높임은 '께서', '-시-'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객체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에 대한 높임은 '께', '드리다'(㉡)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한편 화자의 말을 듣는 대상은 '어머니'이고, '어머니'에 대한 높임은 종결 표현 '-어요'(㉢)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20 ㉠: ⓒ는 주체(어머니)를 높이고('께서', '-시-') 상대를 낮추어('-어') 표현하였다. ㉡: ⓑ는 객체(할아버지)를 높이고('께', '드리다') 상대를 낮추어('-어') 표현하였다.

오답 해설 ⓐ는 상대를 높여('-어요') 표현하였다.

21 선유의 마지막 말 중 객체인 '선생님'을 높여야 하므로 '물어보다' 대신 특수 어휘 '여쭤보다'를 사용해야 한다.

22 '교수님'의 소유물인 '책'을 높임으로써 높여야 할 대상인 '교수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께서'와 '-시-'를 사용하여 주체를 직접 높이고 있다.

23 '께'와 '드리다'를 통해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께서'와 '댁', '계시다'를 통해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으며, '-ㅂ니다'를 사용하여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② '-어요'를 사용하여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④ '께서'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며, '-시-'를 사용하여 '할아버지'의 눈을 높임으로써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ㅂ니다'를 사용하여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⑤ '께서'와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24 ㉡: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 '께'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25 ⓔ는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로, 주체 높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객체(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 '께'를 사용하여 객체인 '큰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26 '잡수시다'는 주체(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고, '연세'는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나이)을 높이는 명사(㉡)이다.

오답 해설 ① 높여야 할 인물(그분)과 관련된 것(성함)을 높이는 명사(㉢)가 사용되었다. ② 객체(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여쭈다)가 사용되었으며,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댁)을 높이는 명사(㉢)가 사용되었다. ④ 객체(부모님)를 높이는 특수 어휘(모시다)가 사용되었다. ⑤ 주체(어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 '주무시다'가 사용되었다.

04 문장 표현 2 _시간 표현

본문 234~235쪽

01 발화시 02 형용사 03 –겠– 04 과거 05 추측 06 진행상 07 ○ 08 × 09 ○ 10 ○ 11 × 12 × 13 발화시, 사건시 14 앞서 있는, 나중인 15 동사 16 진행상 17 회상 18 완료상 19 알맞는 → 알맞은 20 ⓑ 21 ㉠ 22 ㉠, ㉣ 23 ③ 24 ⑤ 25 ③ 26 ③ 27 ②

08 동사는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을 붙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11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는 무척 재미있다.'에서 '들은'은 동사 어간 '듣–'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붙여 과거를 나타낸 것이다.

12 '그는 지금 문 앞에 서 있다.'는 보조 용언 '–어 있다'를 사용하여 완료상을 나타내고 있다.

19 '알맞다'는 형용사이므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해야 한다.

20 ⓑ에 사용된 '–었–'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감기에 걸림.)의 결과 상태(목이 잠겨 있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아직도') 있음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 ⓓ: '소풍날', '어제'라는 과거의 시간에 대한 사건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았–'은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내는 예에 해당한다. ⓒ: '–았–'은 과제 준비를 하기 위해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예에 해당한다.

21 ㉠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낸다.

오답 해설 ㉡~㉣의 '–겠–'은 모두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22 ㉠의 '먹어 간다', ㉣의 '사용하고 있다'에는 진행상이 드러난다.

오답 해설 ㉡의 '가 있다'와 ㉢의 '써 버렸다'에는 완료상이 드러난다.

23 '–더–'는 과거에 대한 회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오답 해설 ① '–겠–'은 가능성을 나타낸다. ② '–리–'는 미래를 나타낸다. ④ '–ㄹ 것'은 의지를 나타낸다. ⑤ '–었었–'은 단절된 과거를 나타낸다.

24 '빠른'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로, 형용사 어간 '빠르–'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붙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동사 어간 '쓰–'에 관형사형 어미 '–던'을 붙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② 형용사 어간 '귀엽–'에 관형사형 어미 '–더–'를 붙여 과거 시제(회상)를 나타내고 있다. ③ 형용사 어간 '조용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붙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④ 동사 어간 '바치–'에 선어말 어미 '–리–'를 붙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25 '익어 간다'는 '–어 가다'를 사용하여 곡식이 익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오답 해설 ① '–어 버리다'를 사용하여 이미 소문이 퍼졌음을 나타낸 완료상이다. ② '–고 있다'를 사용하여 발레 학원에 다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④ '–고 있다'를 사용하여 눈발이 날리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⑤ '–어 있다'를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이 마을 회관에 모인 사건이 완결되어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한 완료상이다.

26 ㉢의 '산'은 동사 어간 '사–'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의 '–고 있다'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② ㉡의 '–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 ④ ㉣의 '–어 버리다'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다. ⑤ ㉤은 동사 어간 '공부하–'에 관형사형 어미 '–ㄹ'이 붙어 미래 시제를 나타낸 것으로, 미래 시제는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

27 ②는 넥타이를 맨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넥타이를 매는 동작이 진행되는 중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진행상을 나타내는 '–고 있–' 뒤에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을 붙여, 형이 과거에 양치질을 하는 동작을 진행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동작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 ③ '–고 있–'을 통해 안경을 벗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 안경을 벗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④ '–고 있–'을 통해 그가 연말에 기부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 기부하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⑤ '–고 있–'을 통해 누나의 생일이 내일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 아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05 문장 표현 3 _ 피동 표현/인용 표현

본문 236~237쪽

01 피동문 02 부사어 03 목적어 04 –되다 05 따옴표 06 간접 07 × 08 × 09 ○ 10 × 11 ○ 12 ○ 13 강조하기 14 라고 15 간접 16 –히– 17 어제는 18 친구가 벌에게 쏘였다. 19 소녀는 나에게 내가 정말 친절하다고 하였다. 20 ㉣, ㉥ 21 ④ 22 ④ 23 ⑤ 24 ① 25 ④ 26 ② 27 ⑤

07 '–우–, –구–, –추–'는 사동 접미사이다.

08 용언의 어간에 '–게 하다'를 붙이면 사동 표현이 된다.

10 '달였다'는 '달이– + –었– + –다'로 분석된다. 즉, 피동 접미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11 '믿겨지다'는 피동사 '믿기다'에 '–어지다'가 중복된 이중 피동에 해당한다.

18 능동문의 목적어('친구를')를 피동문의 주어('친구가')로 바꾸고, 능동문의 주어('벌이')를 피동문의 부사어('벌에게')로 바꾼다. 그리고 피동 접미사 '–이–'를 활용하여 서술어를 '쏘였다'로 만든다.

19 "당신은 정말 친절하세요."에서 '당신은'을 '내가'로 바꾸고,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꾸어야 한다.

20 ㉣: 직접 인용된 발화는 '어제'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은 어제 시점에서의 '내일'인 '오늘'로 바뀌어야 한다. ㉥: '계십시오'는 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간접 인용하게 되면 자신을 높이는 표현을 쓸 수 없으므로, 서술어를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명령문을 간접 인용할 때에는 '–(으)라고'를 써야 하므로 '있으라고'로 바뀌어야 한다. → 아들이 어제 저에게 오늘 사무실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21 '나누어집니다'는 '나누–'에 '–어지다'를 붙이는 통사적 피동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예상되어진다'는 피동을 표현하는 '–되다'와 '–어지다'가 같이 사용된 이중 피동이므로, '예상된다'로 고쳐야 한다. ② '닫혀졌는지'는 피동 접미사 '–히–'와 '–어지다'가 함께 사용된 이중 피동이므로, '닫혔는지'나 '닫아졌는지'로 고쳐야 한다. ③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능동 표현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므로, '그가 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 ⑤ '말썽이 빚어지고'는 번역 투의 표현으로, 불필요한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말썽을 빚고'로 고쳐야 한다.

22 '태풍에 건물이 흔들리다.'는 건물이라는 주체가 태풍에 의해 흔들림을 당하는 것을 표현한 피동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당기다'는 '물건 따위를 힘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의 뜻으로, 피동 접미사 '–기–'가 붙은 피동사가 아니다. '당기다'는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이다. ② '감기다'의 '–기–'는 사동 접미사로, '감기다'는 사동 표현이다. ③ '놀리다'는 '잣궂게 굴거나 흉을 보거나 웃음거리로 만들다.'의 뜻으로, 피동 접미사 '–리–'가 붙은 피동사가 아니다. '놀리다'는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이다. ⑤ '숙이다'의 '–이–'는 사동 접미사로, '숙이다'는 사동 표현이다.

23 인용 표현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을 말한다.

오답 해설 ① 직접 인용할 때에는 조사 '라고'를 사용한다. ② 인용 표현은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구분한다. ③ 앞말이 간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것은 조사 '고'이다. ④ 인용하는 문장에 큰따옴표를 붙이는 것은 직접 인용이다.

24 ①은 '그가 범인이다.'라는 문장이 '나는 생각한다.'라는 문장 속에 부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으로, 인용 표현과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② '네 친구를 사랑한다.'가 간접 인용된 문장이다. ③ '함께 영화를 보자.'가 간접 인용된 문장이다. ④ "곧 새로운 사랑이 올 거야."가 직접 인용된 문장이다. ⑤ '사랑한다.'가 간접 인용된 문장이다.

25 '듣다'는 '들리다(듣– + –리– + –다)'라는 피동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생적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다. '칭찬이 부모님에 의해 동생에게 들렸다.'는 어색한 문장이다.

오답 해설 ①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② '풀이 사람들에 의해 뽑혔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③ '문이 누나에 의해 세게 닫혔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⑤ '탁자 위에 있는 유리병이 그에 의해 깨졌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26 ㉠을 ㉡으로 바꾸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인 '제가'가 생략된다. ㉠의 목적어는 ㉡에서 주어가 된다.

오답 해설 ①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③ '깨– + –었– + –어요'에 '–어지–'가 결합하여 '깨– + –어지– + –었– + –어요'라는 피동 표현이 된다. ④ ㉠은 주어를 통해 화분을 깬 주체를 밝히고 있으나, ㉡에는 화분을 깬 주체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⑤ 피동 표현은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27 직접 인용된 발화는 언니가 말한 것이다. 따라서 ㉠에는 주체인 언니를 다시 가리키는 말인 '자기'를 사용한 '자기의'가 들어가야 한다. 한편 명령문을 간접 인용할 때에는 '–(으)라고'를 써야 하므로 ㉡에는 '남기라고'가 들어가야 한다.

06 국어사 _ 고대 국어/중세 국어/근대 국어

본문 238~239쪽

01 한자 02 ㅇ 03 방점 04 –옴 05 가 06 모음 조화 07 × 08 ○ 09 × 10 ○ 11 × 12 ○ 13 거센소리 14 선어말 어미 15 ㅅ 16 이어 적기 17 근대 국어 18 –기 19 모음 조화 20 끊어 적기를 하는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를 하였다. 21 ① 22 ② 23 ② 24 ④ 25 ⑤ 26 ② 27 ⑤

07 된소리 계열이 생겨난 것은 중세 국어 시기이다.

09 중세 국어 시기에 쓰인 '–이–/–잇–'은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숩–/–줍–/–숩–'이 있다.

11 근대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 거듭 적기, 끊어 적기가 섞여서 나타났다.

19 현대 국어의 '서로'를 중세 국어에서 '서르'로 표기한 것은, '서'의 'ㅓ'가 음성 모음이므로 뒤에 오는 모음 역시 음성 모음인 'ㅡ'를 넣어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20 중세 국어에서는 '말씀미', '노미', 'ᄠᅳ들'처럼 이어 적기를 한 반면, 현대 국어에서는 '말이', '사람이', '뜻을'처럼 끊어 적기를 한다.

21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된 것은 근대 국어 시기부터이다.

오답 해설 ② 현대 국어에 없는 'ㅸ, ㅿ, ㆍ' 등의 음운이 사용되었다. ③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 적기가 일반적이었다. ④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한 방점이 있었다. ⑤ '뿌메'처럼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있었다.

22 된소리 계열이 나타난 것은 중세 국어 시기에 해당한다.

23 'ᄡᅳ– + –움 + 에 → 뿌메'는 음성 모음끼리 결합되어 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몸'과 '일홈'의 'ㅗ', '하ᄂᆞᆯ'의 'ㆍ'라는 양성 모음에 '을'이라는 음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⑤ 음성 모음을 가진 어간 '비릇–'에 '–옴'이라는 양성 모음을 가진 어미가 결합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24 ㉣은 이어 적기가 사용된 반면, 나머지는 모두 끊어 적기가 사용되었다.

25 'ㅅ'으로 시작하는 합용 병서는 'ᄯᅳᄅᆞ미니라'이다.

오답 해설 ② 'ㅂ'으로 시작하는 합용 병서, ③, ④ 각자 병서

26 '것슨'은 '것 + 은'으로, 거듭 적기가 사용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깊– + –은'을 이어 적기한 것이다. ③ '심 + 이'를 이어 적기한 것이다. ④ 'ᄇᆞᄅᆞᆷ + 애'를 이어 적기한 것이다. ⑤ '바ᄅᆞᆯ + 애'를 이어 적기한 것이다.

27 '묻줍고'는 선어말 어미 '–줍–'을 통해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즉, '묻줍고'는 현대 국어처럼 '여쭙다' 같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한 것도, 청자를 높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명사형 어미 '–ㅁ'을 사용한 현대 국어('효도함')와 달리 중세 국어('효도홈')에서는 명사형 어미 '–옴'을 사용하였다. ② 'ᄠᅳ디'에는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ㅄ')이 사용되었다. ③ 목적격 조사 '을'을 사용한 현대 국어('성손을')와 달리 중세 국어('聖孫(성손)ᄋᆞᆯ')에서는 목적격 조사 'ᄋᆞᆯ'을 사용하였다. ④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현대 국어('내셨습니다')와 중세 국어('내시니이다')에서 모두 '–시–'가 사용되었다.

07 한글 맞춤법

본문 240~241쪽

01 한글 02 의사소통 03 표준어, 어법 04 원형 05 조사 06 일찍이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책이요 16 하굣길 17 주십시오 18 학생으로서 19 널따란 20 백분율 21 시들은 → 시든 22 ㉠: 꽃이, ㉡: 꽃에 23 조사 24 ④ 25 ④ 26 ⑤ 27 ② 28 ② 29 ①

07 제5항 '다만'('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에 따라 '깍뚜기 → 깍두기'로 고쳐야 한다.

08 '맞추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의 뜻이고, '맞히다'는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의 뜻이므로, '맞추면 → 맞히면'으로 고쳐야 한다.

10 '들릴'은 용언, 뒤에 오는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에 따라 띄어 써야 한다.

13 제18항 '1'(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에 따라 '내밀은 → 내민'으로 고쳐야 한다.

15 제15항 [붙임 3](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에 따르면 '책이요'가 맞는 표기이다.

16 제30항 '2'(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중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에 따르면 '하굣길'이 맞는 표기이다.

17 제15항 [붙임 2](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에 따르면 '주십시오'가 맞는 표기이다.

18 제57항(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에 따라 '로서'와 '로써'를 구분해 적는다.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므로 '학생으로서'가 맞는 표기이다. '로써'는 재료나 수단 또는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19 제21항 '2'의 '다만'(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중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에 따르면 '널따란'이 맞는 표기이다.

20 제11항 [붙임 1]의 '다만'(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에 따르면 '백분율'이 맞는 표기이다.

21 '시들은'은 어간('시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결합할 때 어간의 끝소리 'ㄹ'을 탈락시키지 않고 '-은'을 붙인 것으로, 잘못된 표기이다. 제18항 '1'(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에 따라 '시든'으로 적어야 한다.

22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기 위해서는 형태소 본래의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한다. [꼬치]와 [꼬체]는 연음된 발음이므로, 본래의 형태는 각각 '꽃이'와 '꽃에'가 되어야 한다.

24 '안사람'은 [안싸람]으로 소리 나지만 '안사람'으로 표기하는데, 이는 어법에 맞게 적은 것에 해당한다.

25 '-든지'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고, '-던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④의 밑줄 친 부분은 '놀랐던지'로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② '닫혔다'는 '닫다'라는 자동사에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사 '-히-',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한 것이다. ③ '귀걸이'는 '귓불에 다는 장식품'을 이르는 말로, '귀고리'와 '귀걸이' 모두 표준어이다. ⑤ '절이다'는 '절다'의 사동사로, '생선이나 야채 따위를 간이 들거나 숨이 죽도록 소금기가 배어들게 하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26 '구름'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④ '빛'은 [빋], '옷'은 [옫], '잎'은 [입], '바깥'은 [바깓]으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쓴 것이다.

27 '젓가락'은 '저'(㉠)와 '가락'의 합성어로,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라 사이시옷이 붙은 것이다. 반면 '숟가락'은 '술'(㉡)과 '가락'의 합성어로, 한글 맞춤법 제29항(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에 따라 받침 'ㄹ'이 'ㄷ'으로 바뀐 것이다.

28 '늘리다, 발굴, 검정, 아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에 해당하며, '먹는다[멍는다], 북극점[북끅쩜], 밟는다[밤:는다]'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에 해당한다.

29 '무덤'의 어원은 '묻- + -엄'인데, '묻-'은 명사가 아니라 용언 어간이므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고랑'의 어원은 '골(명사) + -앙'이다. ③ '이파리'의 어원은 '잎(명사) + -아리'이다. ④ '바가지'의 어원은 '박(명사) + -아지'이다. ⑤ '지푸라기'의 어원은 '짚(명사) + -으라기'이다.

08 어휘 _ 고유어/한자어/외래어/전문어/사고 도구어 본문 242~243쪽

01 고유어 02 개념 03 고유어 04 외래어 05 전문어 06 ○ 07 × 08 ○ 09 ○ 10 ○ 11 × 12 고유어 13 외래어 14 사고 도구어 15 마음 16 외래어, 외국어 17 산소, 우주 18 (1) 구름, 빨강 (2) 간식, 책 (3) 로켓, 망토 19 외래어, 외국어 20 ② 21 ① 22 ③ 23 ③ 24 ④

07 바꾸어 쓸 수 있는 우리말이 존재하는 것은 외국어이다.

11 '버스'는 외래어이고 '레스토랑'은 외국어이다.

17 '꽃, 흙, 하늘, 아기'는 고유어, '산소(酸素), 우주(宇宙)'는 한자어이다.

18 '구름, 빨강'은 고유어, '간식(間食), 책(冊)'은 한자어, '로켓(rocket), 망토(manteau)'는 외래어이다.

19 '피아노(piano)'는 대체할 어휘가 없으므로 외래어이지만, '게스트(guest)'는 '손님'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으므로 외국어이다.

20 전문어는 전문 분야의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 ②는 은어에 대한 설명이다.

21 '노랗다, 누렇다, 노릇하다, 누르스름하다, 샛노랗다'는 색채어가 발달했음을 보여 주는 예이며, '달다, 달콤하다, 달짝지근하다, 들척지근하다'는 미각어가 발달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이를 통해 우리말 고유어에 감각어가 발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가 발달한 것은 맞지만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다. ③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말이 많은지는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④ 하나의 말이 지닌 의미의 폭이 넓은 말은 많으나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다. ⑤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은지는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22 '고치다'라는 고유어가 '개혁하다', '치료하다', '교정하다', '수정하다', '수선하다' 등의 한자어로 대응되는 것은 그만큼 고유어의 의미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유어에 비해 한자어의 의미가 더욱 세분화되어 있음을 뜻한다.

오답 해설 ① 고유어에 비해 다의어가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④, ⑤ 고유어에 비해 동음이의어가 많거나, 반의 관계가 뚜렷하거나, 상위어가 발달되어 있는지는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23 〈보기〉의 의사 1과 의사 2는 '심계 항진', '안구 진탕', '연하 곤란' 등의 전문어를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어는 전문 분야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답 해설 ① 전문어는 성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전문어는 세대와 관계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④ 듣기 거북한 말에 대해 우회적으로 발화하는 것은 완곡어법에 해당한다. ⑤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말은 유행어이다.

24 〈보기〉의 밑줄 친 '분류', '구분'은 사고 도구어로, 이는 전문어와 달리 여러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오답 해설 ①~③ '분류(分類)'와 '구분(區分)'은 한자로 된 사고 도구어이다. 사고 도구어는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드러내는 말이다. ⑤ '분류'와 '구분'은 '나누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두 '나누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9 품사 1 _ 체언/용언 본문 244~245쪽

01 보어 02 인칭 03 순서 04 서술어, 활용 05 성질 06 보조 용언 07 × 08 ○ 09 × 10 × 11 ○ 12 ○ 13 명사, 대명사 14 명사 15 동사 16 들어온 17 형용사, 동사 18 보조 용언 19 수, 일 20 (1) 데 (2) 그, 여기 (3) 일하는 (4) 멀다 21 허름하다 22 ③ 23 ② 24 ⑤ 25 ① 26 ④ 27 ② 28 ① 29 ③

07 '그를 잊을 리 없다.'에서 '리'는 의존 명사이다.

09 '아이 셋 중에 한 명이 매우 뛰어나다.'에서 수사는 '셋'뿐이다. '한'은 수 관형사이다.

10 '다르듯'과 '그러하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19 우리(대명사)가(조사) 할(동사) 수(명사 – 의존 명사) 없는(형용사) 일(명사)도(조사) 있다(형용사).

20 그(대명사)가(조사) 일하는(동사) 데(명사 – 의존 명사)는(조사) 여기(대명사)서(조사) 멀다(형용사).

21 나(대명사)는(조사) 허름한(형용사) 책방(명사)에서(조사) 곰팡이(명사) 슨(동사) 헌책(명사)을(조사) 뒤적이며(동사) 학창(명사) 시절(명사)을(조사) 보냈다(동사). → 형용사는 '허름하다' 하나뿐이다.

22 우리(대명사)는(조사) 시골(명사) 할머니(명사) 댁(명사)에서(조사) 즐겁게(형용사) 하루(명사)를(조사) 보냈다(동사). → 수사는 들어 있지 않다.

23 '어느'는 뒤에 오는 체언 '저녁'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오답 해설 ① '나위'는 의존 명사이다. ③ '여기'는 대명사이다. ④ '그것'은 대명사이다. ⑤ '한두째'는 수사이다.

24 '마주치다'는 동사이다.

오답 해설 ①~④ '파랗다', '비슷하다', '뛰어나다', '높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25 '느낀 대로 표현하고 싶었다.'의 '대로'는 명사(의존 명사)이다.

오답 해설 ② '잘못'은 명사이다. ③ '열'은 수사이다. ④ '만큼'은 명사(의존 명사)이다. ⑤ '무엇'은 대명사이다.

26 '되고 싶었다'의 '싶다'는 소망의 뜻을 더하는 보조 용언이다.

오답 해설 ①의 '놀다', ②의 '인사하다', ③의 '가다', ⑤의 '오다'는 모두 실질적인 뜻을 지닌 본용언으로 사용되었다.

27 '쌓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본용언이다.

오답 해설 ①의 '놓다', ③의 '체하다', ④의 '듯싶다', ⑤의 '보다'는 모두 본용언의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 용언으로 사용되었다.

28 옛날(명사) 사진(명사)을(조사) 보니(동사) 기뻤던(형용사) 기억(명사) 하나(수사)가(조사) 떠올랐다(동사). → '옛날'은 명사이다.

29 〈보기〉의 ㉠은 의존 명사이다. ③의 '때'는 자립 명사로, '때가 되었다.'처럼 문장의 첫머리에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①의 '터', ②의 '지', ④의 '만큼', ⑤의 '바'는 모두 의존 명사로, 문장의 첫머리에 쓸 수 없다.

10 품사 2 _ 관계언/수식언/독립언

본문 246~247쪽

01 가 02 서술 03 명사 04 부사 05 못 06 아이고 07 × 08 ○ 09 × 10 ○ 11 ○ 12 × 13 보조사 14 보격 조사 15 관형사, 부사 16 관형사 17 오늘 18 감탄사 19 의, 은, 이다 20 (1) 가 (2) 을 (3) 에 21 보격 조사 22 ㉠: 수사, ㉡: 관형사, ㉢: 명사 23 ㉠, ㉡ 24 ㉠: 명사, ㉡: 부사 25 ㉠: 감탄사, ㉡: 관형사 26 (1) ㉡, ㉣ (2) ㉠, ㉢ 27 ⑤ 28 ④ 29 ② 30 ②

07 같은 조사끼리 결합할 수 있으므로, 조사는 다른 조사 뒤에도 붙을 수 있다.

09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다.

12 '민수야'는 '명사 + 호격 조사' 형태의 독립어이지만, 감탄사는 아니다.

19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에서 '의'는 관형격 조사, '은'은 보조사,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다.

20 '아이가'의 '가'는 주격 조사, '의자에'의 '에'는 부사격 조사, '책을'의 '을'은 목적격 조사이다.

21 '되다', '아니다'가 쓰인 문장에서 주어에 붙은 '이/가'를 제외하고 다른 체언에 붙은 '이/가'는 보격 조사이다.

22 ㉠은 자식이 세 명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수사이다. 그리고 ㉡은 뒤에 오는 체언 '살'(의존 명사)을 수식하므로 수 관형사이다. ㉢은 '순서가 가장 먼저인 차례'가 아니라 '여러 형제자매 가운데서 제일 손위인 사람(맏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명사이다.

23 ㉠은 뒤에 오는 '말'이라는 체언을 수식하고, ㉡은 뒤에 오는 '사람들'이라는 체언을 수식하므로, 둘 다 관형사이다.

오답 해설 ㉢은 '일처리'를 수식하지만, '빠르고', '빠르니'와 같이 활용하는 형용사이다.

24 ㉠은 '을'이라는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을 하므로 명사이다. 그리고 ㉡은 뒤에 오는 용언 '먹어서'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25 ㉠은 뜻밖에 놀라운 일이나 딱한 일을 보거나 들었을 때 하는 말로, 감탄사이다. 그리고 ㉡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관형사로, 뒤에 오는 체언 '상황'을 수식한다.

26 '이'(㉡)는 체언 '사과'를, '그'(㉣)는 체언 '연필'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또한 '이리'(㉠)는 용언 '오다'를, '그리'(㉢)는 용언 '보내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27 '마다'는 '날날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오답 해설 ① '하고'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②~④ '에', '랑', '이며'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28 '과연'은 부사이다.

오답 해설 ①의 '첫', ②의 '무슨', ③의 '아무', ⑤의 '온갖'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29 '대로'는 의존 명사이다.

오답 해설 ①의 '모름지기', ③의 '일찍이', ④의 '같이', ⑤의 '살랑살랑'은 모두 부사이다.

30 ㉡과 ㉢은 감탄사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아버지를 부르는 말로, 명사가 독립어로 쓰인 것이다. ㉣ 화제를 전환하거나 상반되는 내용을 제시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11 문장 성분 _ 주성분/부속 성분/독립 성분

본문 248~249쪽

01 보어 02 점수를 03 이상한, 마을로 04 물정에 05 독립어 06 ○ 07 × 08 ○ 09 ○ 10 × 11 주어 12 예쁘다 13 정보의 14 공원에서 15 부사어 16 나는, 동창생을, 만났다 17 보니, 우울하다 18 ㉠: 주어, ㉡: 부사어, ㉢: 목적어, ㉣: 서술어 19 관형어 20 ② 21 ② 22 ④ 23 ② 24 ③ 25 ④ 26 ②

07 주어는 '그는'이고, '귀감이'는 보어이다.

10 부사어 '너무'는 관형어 '헌'을 수식한다.

16 '나는 어제 길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났다.'에서 주어는 '나는', 목적어는 '동창생을', 서술어는 '만났다'로, 이들이 주성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어제', '길에서', '우연히'는 부사어, '초등학교'는 관형어이다.

17 '어두운 하늘을 보다.(보니) + 괜히 기분마저 우울하다.'의 형태이므로, 서술어는 '보니'와 '우울하다'의 2개이다.

18 '어머니께서'는 주어, '형에게'는 필수적 부사어, '용돈을'은 목적어, '주셨다'는 서술어에 해당한다.

19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으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것은 관형어이다.

20 그들은(주어) 어린(관형어) 소년에게(필수적 부사어) 중요한(관형어) 임무를(목적어) 맡겼다(서술어). → 보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21 '고래는 어류가 아니다.'에서 주어는 '고래는'이고, '어류가'는 보어이다.

오답 해설 ①, ③ '너만'과 '나도'는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④ '아버지께서'는 '체언 + 주격 조사의 높임말(께서)'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⑤ '학교에서'는 '체언 + 주어가 단체일 때 쓰이는 주격 조사(에서)'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22 '동생도 이제 나만큼 컸다.'에서 '나만큼'은 부사어이다. 목적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주스나'는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목적어로, '마시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② '얘기'는 목적격 조사 '를'이 생략된 형태의 목적어로, '듣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③ '야구는'은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목적어로, '좋아하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⑤ '밥만이라도'는 '체언 + 보조사 + 보조사'로 이루어진 목적어로, '먹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23 '연신'은 부사어이다.

오답 해설 ①, ③, ⑤ 동사의 활용형이 관형어로 쓰였다. ④ 형용사의 활용형이 관형어로 쓰였다.

24 '친구마저'는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오답 해설 ① '광화문으로'는 '체언 + 부사격 조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② '조용히'는 부사 단독으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④ '그래서'는 접속 부사 단독으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⑤ '어지럽게'는 '용언의 어간 + 부사형 어미'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25 ㉠야호(독립어 – 독립 성분)! ㉡우리가(주어 – 주성분) ㉢드디어(부사어 – 부속 성분) ㉣힘든(관형어 – 부속 성분) ㉤관문을(목적어 – 주성분) ㉥통과했어(서술어 – 주성분). →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 ㉡, ㉤, ㉥이고, 부속 성분은 부사어, 관형어인 ㉢, ㉣이며, 독립 성분은 독립어인 ㉠이다.

26 '아'는 독립어(감탄사)로, 독립 성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세월의'는 관형어, '이토록'은 부사어, '빠른'은 관형어로, 부속 성분은 모두 3개이다. ③ ㉠은 독립어로 독립 성분이고, ㉢은 부사어로 부속 성분이므로, 둘 다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세월의 흐름은 빠른 것인가!'). ④ ㉡은 뒤에 오는 체언 '흐름'을, ㉣은 뒤에 오는 체언 '것'을 수식하고 있다. ⑤ ㉡은 체언 '세월'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있으며, ㉥은 체언 '것'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형('인가')으로 결합되어 있다.

Memo